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2017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2017 Korean Volunteering, Giving and Helping)

연구수행기관 :  **한국자원봉사문화**

책임연구원 : 주 성 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소장)

연구원 : 정 희 선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윤 영 미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부장)

연구보조원 : 이 경 화 ((사)한국자원봉사문화 간사)

자문위원 : 권 미 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국장)
박 윤 애 (자원봉사이음 대표)
송 민 경 (경기대학교 교수)
윤 순 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 금 룡 (상명대학교 교수)
정 진 경 (광운대학교 교수)

조사수행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본 조사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1
3. 연구조사 방법	2
4. 연구결과 활용	2

II. 자원봉사, 누가 참여하는가?

1. 자원봉사 참여율	3
1) 자원봉사 참여율	3
2) 통계청과 World Giving Index 조사	4
3)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율	5
2. 자원봉사자 개인특성별 비교	5
1) 남녀	5
2) 연령	7
3) 성-연령	8
4) 교육 수준	8
5) 소득 수준	9
6) 직업	11
3. 자원봉사 활동기관과 활동분야	12
1) 자원봉사 활동기관	12
2) 자원봉사 활동분야	16
4. 자원봉사 참여 동기	19
1) 2014년과 2017년	20
2) 1999-2008년 시계열 비교	22
3) 가족의 영향과 자원봉사경험	24
5. 자원봉사 참여경로와 참여요청	26
1) 자원봉사 참여경로	26
2) 참여경로 단체별 비교	29
3) 자원봉사 참여요청	30
4) 자원봉사 요청자	32
5) 친사회적 경험	33
6)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35
6. 자원봉사 활동시간과 기간	35
1) 자원봉사 활동시간	35
2) 일생동안 자원봉사 활동기간과 활동시간(2014-2017년)	38

7. 자원봉사 인구와 경제적 가치	40
1) 자원봉사 인구	40
2)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40

Ⅲ.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1. 자원봉사활동 정신적 보람	42
1)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보람	42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43
3) 활동기관별 정신적 보람 비교	44
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45
1) 2014년과 2017년	45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46
3.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47
1)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4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49
3)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50
4)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비교	53
5) 자원봉사활동의 중단경험	54

Ⅳ.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인센티브

1. 자원봉사 시간관리	55
1) 활동 시간관리를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더 많다	55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별 비교	55
2. 자원봉사자 인정	57
1) 자원봉사자 인정 경험	5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58
3) 활동기관별 인정과 인센티브 경험	59
4) 활동비나 수당을 받은 자원봉사자	61
5) 자원봉사활동 인정유형별 중요성	62

Ⅴ.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의식

1. 자원봉사의 동기와 인정	64
1) 2017년은 '사명감' 동기 중시	64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방안	65
2.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봉사	68
1) 자원봉사로 해결할 시급한 사회이슈	68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69

3)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69
3. 비자원봉사자의 특성과 참여 의향	70
1) 자원봉사 불참 요인	70
2) 비자원봉사자의 참여 의향	73
3) 비자원봉사자의 선호 프로그램	76
4) 자원봉사 활동기관 선호도	77

VI.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1. 한국인의 단체소속활동	80
1) 공익단체의 자원봉사활동	80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82
3) 단체소속활동 :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85
2.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86
1)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86
2) 대통령탄핵 집회 관련 참여활동	87
3. 신뢰, 관용, 자원봉사	88
1)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자원봉사	88
2)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90
3) 타국 이주자에 대한 관용	94

VII. 기부

1. 자선적 기부 참여율	96
1) 2014년과 2017년	96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96
3) 종교기부 포함	97
2. 자선적 기부자의 특성	97
1) 남녀	97
2) 연령	98
3) 교육 수준	99
4) 소득 수준	101
5) 직업	102
6) 종교특성	103
7) 자원봉사자의 자선적 기부 참여	104
8)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	105
9) 종합 요약 : 자선적 기부자의 개인적 특성(2002-2017)	106
3. 자선적 기부금액	107
1) 2014년과 2017년	107
2) 종교기부와 비교 : 2014, 2017	108
3) 물품기부와 금전기부 비교 : 2017	109

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 2017	109
5)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110
4. 자선적 기부자의 정기성, 기부횟수	111
1) 정기성	111
2) 기부횟수	112
5. 기부 활성화 방안	113

VIII. 이웃돕기

1. 이웃돕기(helping) 국제표준안	114
2. 한국인의 이웃돕기 활동	115
1) 이웃돕기 참여율 : 2014, 2017	115
2) 1999-2008년 시계열 비교	117
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117
4) 개인의 경험과 인구학적 특성별 비교	119

IX.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 자원봉사와 기부	122
2.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123
3. 기부와 이웃돕기	124
4.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25
5.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126

X. 국제비교 : OECD에서의 한국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 물질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나눔활동	128
1) 한국인 나눔활동과 사회자본의 국제적 위상	128
2) 물질자본, 인적자본,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30
2. 사회자본과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32
1) 사회자본과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32
2)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133
3. OECD에서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35
4. 자원봉사와 웰빙	137

XI. 결론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1. 자원봉사의 가치와 임팩트	142
2. 자원봉사 참여의 정체	144
1) 자원봉사 참여 정체의 요인들	144

3. 한국 자원봉사문화 정착 방안	150
참고문헌	160
부록(조사개요, 부표)	162

표 목 차

[본문]

<표2-1> 직업별 자원봉사참여율 : 2005-2017	12
<표2-2>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참여율 : 1999-2017	14
<표2-3>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참여율 비교 (성,연령,교육,직업) : 2017	15
<표2-4> 활동기관별 주된 자원봉사활동 : 2017	18
<표2-5>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율 추이 : 2008-2014	19
<표2-6>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21
<표2-7> 참여 동기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평가 : 2014, 2017	22
<표2-8> 참여 동기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평가 : 2002-2008	23
<표2-9>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 1999	23
<표2-10>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 : 1999-2017	26
<표2-11> 자원봉사자의 참여경로 : 1999-2017	28
<표2-12> 자원봉사 참여경로 비교 (성,연령,직업) : 2017	29
<표2-13> 자원봉사 참여요청 비교 (성,연령,직업) : 2017	31
<표2-14> 자원봉사활동 요청자 : 1999-2008	33
<표2-15> 자원봉사자의 친사회적 경험 : 1999-2011	34
<표2-16>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의 친교활동 : 1999-2011	35
<표2-17> 1년간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활동시간 : 2017	36
<표2-18> 1년간 자원봉사 활동기관과 활동시간 : 2014, 2017	36
<표2-19> 자원봉사자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시간(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39
<표2-20> 자원봉사인구 추산 : 1999-2017	40
<표2-21> 연간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 1999-2017	41
<표3-1> 자원봉사활동 정신적 보람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43
<표3-2>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정신적 보람	44
<표3-3>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46
<표3-4>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2002-2017	47
<표3-5> 자원봉사활동 주요 불만족 이유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50
<표3-6>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 : 2011	51
<표3-7>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 : 2002-2008	52
<표3-8> 자원봉사교육 경험 : 2005-2017	52
<표3-9> 자원봉사교육의 도움 정도 : 2005-2017	52
<표3-10>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불만요인	53
<표4-1>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56
<표4-2> 자원봉사활동 인정 경험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59
<표4-3>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인센티브 경험	60
<표4-4> 자원봉사자 인정 유형에 대한 자원봉사자 개인특성별 선호도 차이	63

<표5-1>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사회이슈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69
<표5-2>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사회이슈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69
<표5-3> 자원봉사 불참 이유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72
<표5-4>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999-2017	73
<표5-5>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 : 2011, 2014, 2017	74
<표5-6> 자원봉사 참여 의향 : 불참자의 개인 특성별 비교	75
<표5-7> 선호 프로그램 : 비자원봉사자의 특성별 비교	77
<표5-8> 선호하는 활동기관 : 비자원봉사자의 특성별 비교	79
<표6-1> 한국인의 단체소속 회원활동 : 1999-2017	81
<표6-2> 단체 활동 참여빈도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017	84
<표6-3> 주요 단체 참여율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85
<표6-4> 타인에 대한 신뢰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2017	89
<표6-5>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 2017	91
<표6-6> 신뢰도 비교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93
<표6-7>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95
<표7-1> 연령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99
<표7-2>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102
<표7-3> 지난 1년간 자선기부자의 개인적 특성 : 2002-2017	107
<표7-4> 개인 특성별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금액 : 2005-2017	110
<표8-1> 영국 정부의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이웃돕기) 분류	115
<표8-2> 이웃돕기 참여율 추이 : 1999-2008	117
<표8-3> 이웃돕기 유형별 비교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121
<표9-1>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자와 불참자 : 2014, 2017	123
<표9-2>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7	123
<표9-3>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4, 2017	124
<표9-4> 기부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7	124
<표9-5> 기부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4, 2017	125
<표9-6>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참여율 비교 : 2014, 2017	125
<표9-7>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비교 : 2017	127
<표10-1> 물질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나눔지수 : OECD 31개국, 2013-2015	129
<표10-2> 글로벌 자원봉사 참여율과 경제성장률 : 2008-2015	136
<표10-3>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 OECD 34개국, 2015	138
<표10-4> 자원봉사의 건강증진 : 비자원봉사자와 비교, OECD 18개국, 2015	140
<표10-5> 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효과 : OECD 34개국	141
<표11-1> 한국 자원봉사 발전 정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대안	153

그 림 목 차

[본문]

<그림2-1>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3
<그림2-2>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 1999-2017	3
<그림2-3> 통계청 조사의 자원봉사 참여율 : 1999-2015	4
<그림2-4> 한국과 OECD 32개국 자원봉사 : World Giving Index 조사	4
<그림2-5>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5
<그림2-6> 남녀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6
<그림2-7> 남녀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1999-2017	6
<그림2-8>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7
<그림2-9>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1999-2017	7
<그림2-10> 성-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7	8
<그림2-11> 교육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8
<그림2-12> 교육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1999-2017	9
<그림2-13> 소득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10
<그림2-14> 소득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2005-2017	10
<그림2-15> 직업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11
<그림2-16>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참여율 : 2014, 2017	13
<그림2-17> 향후 자원봉사 참여시 선호하는 활동 희망처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전체)	16
<그림2-18> 1년간 주로 한 자원봉사활동 : 2017	17
<그림2-19> 주된 자원봉사활동 : 2014, 2017	17
<그림2-20>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 2014, 2017	20
<그림2-21> 가족 자원봉사 경험 : 2014, 2017	24
<그림2-22> 가족 자원봉사 참여율 성·연령별 비교 : 2017	24
<그림2-23>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 : 2017	25
<그림2-24>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 : 2014, 2017	25
<그림2-25> 자원봉사 처음 참여경로 : 2014, 2017	27
<그림2-26> 참여경로 단체별 참여율 비교 : 2014, 2017	30
<그림2-27>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요청경험 : 2014, 2017	31
<그림2-28> 자원봉사활동 요청자별 참여율 : 2014, 2017	32
<그림2-29> 친사회적 경험과 자원봉사와의 상관성 : 2017	33
<그림2-30> 자원봉사자의 친사회적 경험 : 2014, 2017	34
<그림2-31> 자원봉사 활동횟수와 시간 비교 : 2008-2017	37
<그림2-32> 자원봉사자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기간 : 2014, 2017	38
<그림2-33> 자원봉사자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시간 : 2014, 2017	38
<그림2-34> 자원봉사 인구 비교 : 1999-2017	40
<그림2-35>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비교 : 1999-2017	41
<그림3-1>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보람 : 2014, 2017	42

<그림3-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2014, 2017	45
<그림3-3>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비교 : 2002-2017	47
<그림3-4>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활동시작부터 결과까지) : 2014, 2017	49
<그림3-5>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 2014, 2017	51
<그림3-6>	자원봉사활동 중단 경험이 있다 : 2014, 2017	54
<그림4-1>	자원봉사활동 시간 기록 및 관리 : 2017	55
<그림4-2>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인정을 받은 경험 : 2017	58
<그림4-3>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은 자원봉사자 : 남녀, 성·연령 비교	61
<그림4-4>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은 자원봉사자 : 소득, 학력, 혼인상태 비교	62
<그림4-5>	자원봉사자 인정 유형에 대한 자원봉사자 선호도 : 2017	62
<그림5-1>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 2014, 2017	65
<그림5-2>	자원봉사 활동 인정 방안에 대한 지지도 : 2017	66
<그림5-3>	자원봉사 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 (찬성 비율)	66
<그림5-4>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찬성 비율)	67
<그림5-5>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이슈 : 2017	68
<그림5-6>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2017	71
<그림5-7>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비교 : 1999-2017	73
<그림5-8>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 : 2017	74
<그림5-9>	비자원봉사자의 선호 프로그램별 비중 : 2017	76
<그림5-10>	비자원봉사자의 선호 기관별 비중 : 2017	78
<그림6-1>	한국인의 단체소속 회원활동 : 2014, 2017	81
<그림6-2>	통계청 조사의 한국인의 단체소속 : 2003-2015	82
<그림6-3>	단체소속 참여율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83
<그림6-4>	대통령선거 투표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87
<그림6-5>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자의 기부와 자원봉사	87
<그림6-6>	타인에 대한 신뢰 : 2017	89
<그림6-7>	타인을 신뢰한다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89
<그림6-8>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 2014, 2017	91
<그림6-9>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사회기관 신뢰도 비교 : 2017	92
<그림6-10>	귀하의 거주지가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 : 2017	94
<그림6-11>	나의 거주지는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이다	95
<그림7-1>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96
<그림7-2>	자선적 기부 참여율 추이 : 2002-2017	96
<그림7-3>	기부 참여율(자선+종교) : 2014, 2017	97
<그림7-4>	남녀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97
<그림7-5>	남녀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98
<그림7-6>	연령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98
<그림7-7>	연령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99
<그림7-8>	교육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100
<그림7-9>	교육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100
<그림7-10>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101

<그림7-11>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8-2017	102
<그림7-12> 직업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103
<그림7-13> 종교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103
<그림7-14> 종교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104
<그림7-15> 자선적 기부 참여율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104
<그림7-16> 자원봉사자의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105
<그림7-17> 자선적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106
<그림7-18> 자선적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2008-2017	106
<그림7-19> 자선적 기부금액 : 2014, 2017	108
<그림7-20> 자선단체와 종교단체 평균 기부금액(만원) : 2014, 2017	108
<그림7-21> 물품기부와 금전기부 평균 기부금액(만원) : 2017	109
<그림7-22>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금액(만원)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109
<그림7-23>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금액(원) 비교 : 2002-2017	110
<그림7-24> 자선적 기부자의 정기성 : 2017	111
<그림7-25> 자선적 기부자의 정기성 비교 : 2002-2017	111
<그림7-26> 자선적 기부 횟수 : 2017	112
<그림7-27> 종교기부와 자선기부 평균 기부 횟수 : 2017	112
<그림7-28>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 횟수 비교 : 2002-2017	113
<그림7-29> 기부 활성화 방안 : 2017	113
<그림8-1> 한국인 이웃돕기 참여율 : 2014, 2017	116
<그림8-2> 한국인의 이웃돕기 활동 10대 유형 : 2014, 2017	116
<그림8-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이웃돕기 참여율 : 2017	118
<그림8-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이웃돕기 참여율 : 1999-2008	118
<그림8-5> 이웃돕기 참여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017	119
<그림8-6> 이웃돕기와 친사회적 활동 경험과의 상관성	120
<그림9-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 비교	122
<그림10-1> 한국인의 물질, 인적, 사회자본의 세계적 위상 : 2013	128
<그림10-2> 자원봉사와 인간개발 : OECD	130
<그림10-3>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과 나눔지수 : OECD	131
<그림10-4> 나눔지수와 타인신뢰 관계 및 정부신뢰	132
<그림10-5> 자원봉사와 타인신뢰 : OECD 34개국, 2014-2015	133
<그림10-6>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 OECD 34개국, 2014-2015	134
<그림10-7> 중앙정부 신뢰도와 자원봉사 : OECD 34개국, 2014-2015	134
<그림10-8> 자원봉사와 이주자에 대한 관용 : OECD 34개국, 2012	135
<그림10-9> OECD 34개국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 2007, 2012, 2015	136
<그림10-10>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2015	137
<그림11-1> 한국 자원봉사 참여정체의 주요요인들	146
<그림11-2> 한국 자원봉사 발전지수 : 1999-2017	152

I.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이번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3년마다 “전국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를 진행해온 연구기관((사)한국자원봉사문화)의 경험을 토대로 자원봉사 참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2)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과 참여율, 자원봉사 쟁점사항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내용

1) 자원봉사활동 기본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분석

- 1999년 이후 전국 자원봉사실태조사 연구 자료 분석
-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실태조사 및 기본 현황 분석
-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2011, ILO) 분석
- Community Life Survey(Cabinet Office, UK) 등 해외 실태조사 항목 적용 가능성 분석
- 자원봉사 선진국(영국·미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례 조사
- OECD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분석틀 활용
- OECD의 ‘웰빙’ 자료(How's Life) 활용, 주관적 웰빙과 자원봉사 비교
- Gallup International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국제조사 자료 활용

2) 자원봉사 현황과 주요 이슈에 관한 국민 의식 파악

- 일반 국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상세 실태 분석
- 자원봉사와 시민참여, 정부와 사회기관 신뢰도 분석
- 자원봉사 쟁점 사항인 자원봉사 인정보상 등에 대한 인식 파악

-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인정과 인센티브, 선호 프로그램 및 선호 활동기관 의견 파악

3) 자원봉사활동 실태 분석에 기반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

- OECD 선진국(영국·미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분석
- 참여율을 제고하는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 연구
-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 발전지수 분석
- 바람직한 전국 차원의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3. 연구조사 방법

- 연구기간 : 2017년 6월-10월
-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500명
- 조사기관 : 전문조사기관 한국갤럽 (7-8월)
- 조사지역 : 전국 광역 시도 및 읍, 면, 동 (제주도 제외)
- 조사방법 :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4. 연구결과 활용

- 기초자료 확보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
- 자원봉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수렴
- 신뢰도 높은 국가보고서로서의 활용
- 자원봉사단체의 기초자료로 활용
- ILO 설문 국제표준안에 맞추어진 자원봉사 실태조사로 외국 자원봉사 조사와 비교연구 가능
- 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표준안에 맞추어진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웰빙 실태조사로 외국 자원봉사 조사와 비교연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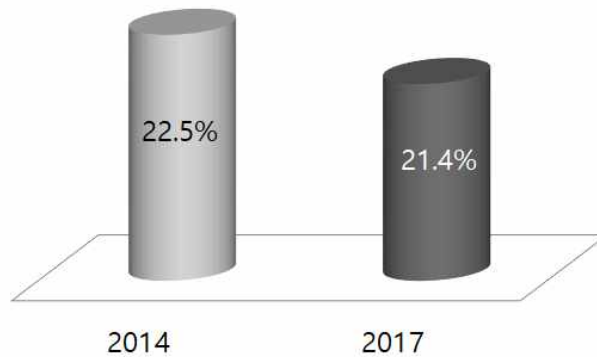
Ⅱ. 자원봉사, 누가 참여하는가?

1.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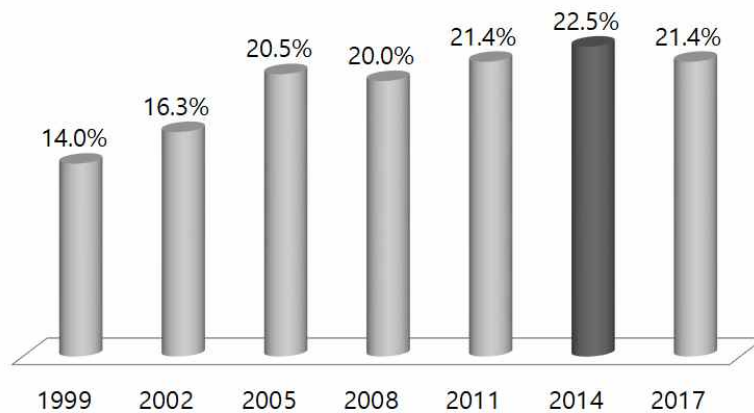
1) 자원봉사 참여율

2017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21.4%이다. 2014년의 22.5% 보다 1.1% 하락하였다.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1,500명 중 32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2005년 이래로 참여율이 21-22%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그림2-1>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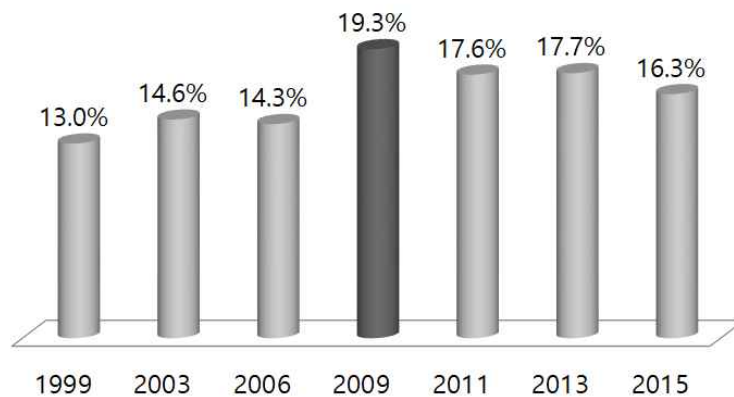
<그림2-2>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 1999-2017



2) 통계청과 World Giving Index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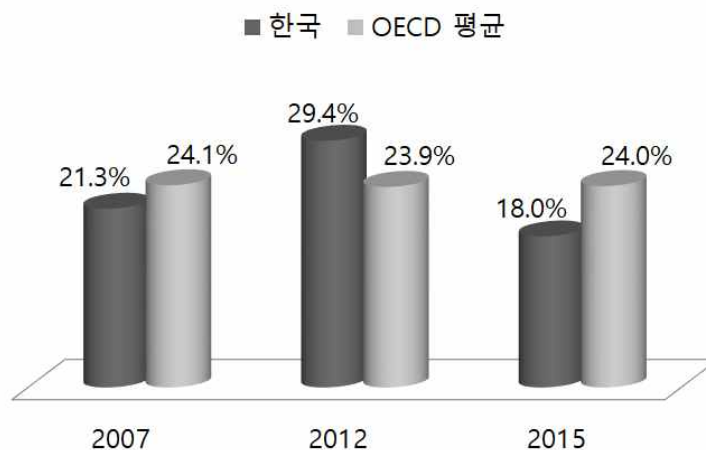
통계청의 전국 <사회조사>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하향 추세를 보여준다. 초기 상승세를 이어가다 2009년 이래 2015년 최근까지 하향 추세가 뚜렷하다.

<그림2-3> 통계청 조사의 자원봉사 참여율 : 1999-2015



또 2015년 World Giving Index 조사에서도 한국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18%로, OECD (32개국) 평균(24%)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7년과 2012년의 참여율 21.3%와 29.4%에 비교하면 심각한 하락세이다.

<그림2-4> 한국과 OECD 32개국 자원봉사 : World Giving Index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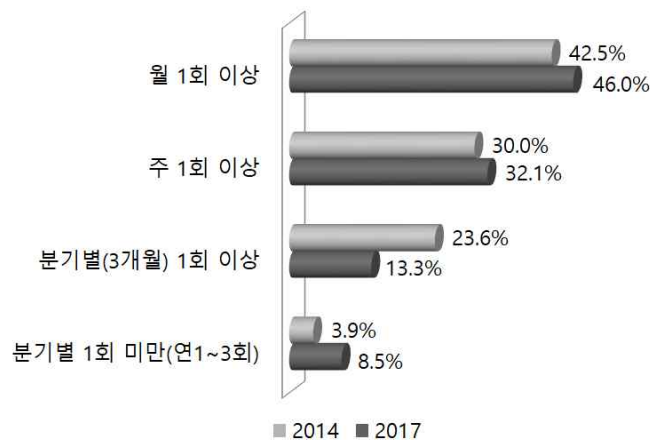


3)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율

2017년에 자원봉사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활동한다”는 51.4%로 2014년 37.7%에 비해 많이 늘었다. 2017년의 정기봉사자 중 주1회 이상 활동 32.1%, 월1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는 46%이다.

2014년의 주1회 활동자 30%, 월1회 활동자 42.5%에 비해 정기 활동자 수가 다소 늘었다. 그런데 이는 201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

<그림2-5>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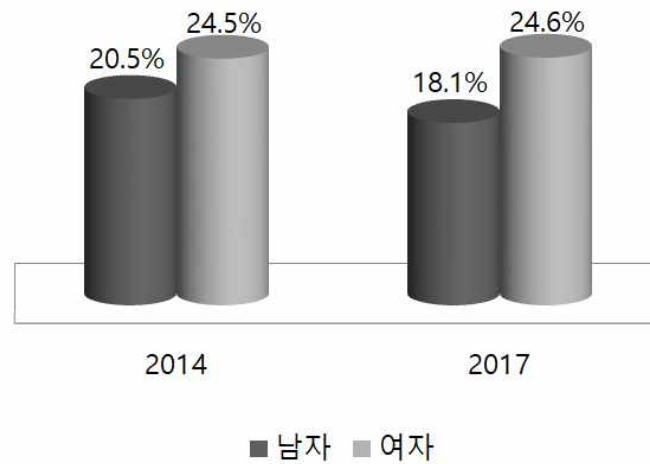
2. 자원봉사자 개인특성별 비교

1) 남녀

(1) 2014년과 2017년

남녀 자원봉사 참여율이 다소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 비교하면 남성 3.2% 줄었고, 여성은 3.2% 늘었다. 남성은 직장 생활, 생계활동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다소 위축된 것 같고, 여성은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이 다소 늘어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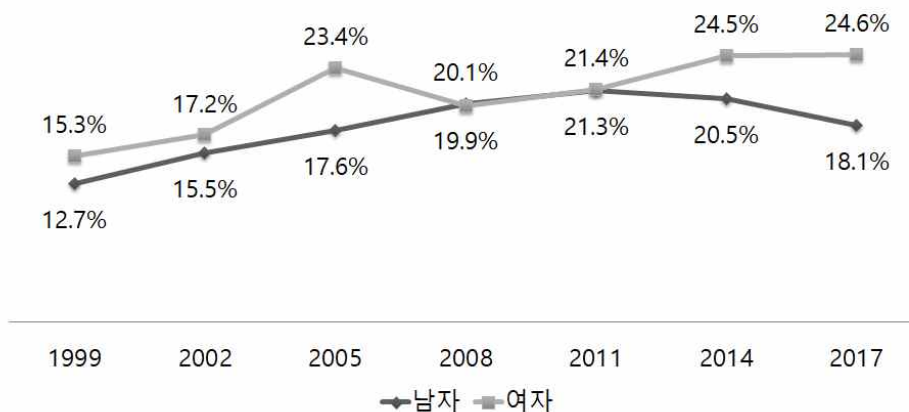
<그림2-6> 남녀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은 1999-2005년 기간에 참여율이 증가하다 차츰 줄어들며, 2008년과 2011년에 남녀 차이가 없는 균등화가 잠시 이뤄지다 2014년부터 다시 여성 상승으로 남녀 간격이 다시 벌어지는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2-7> 남녀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1999-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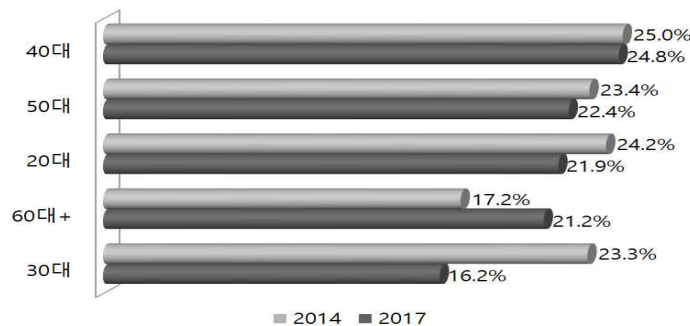
2) 연령

(1) 2014년과 2017년

2017년에도 40대의 참여가 가장 높다. 2014년에 비교하면 특히 30대 참여율이 7% 이상 감소한 것이 특징이며, 60세 이상 노인층 참여가 4% 증가해 21.2%로 전연령층 평균에 근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2011-2014년 기간에 30대의 참여가 크게 늘었고, 60세 이상 고령층 참여가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반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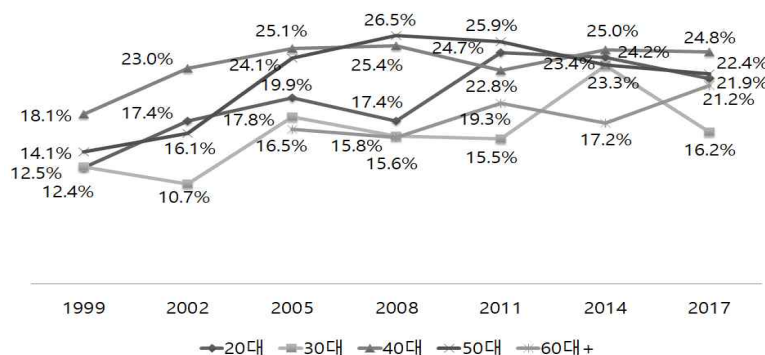
<그림2-8>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1999-2005년까지는 40대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50대 참여율이 앞섰다. 2017년에 와서 20대와 30대 모두가 하락세로, 60대 이상 노인층이 상승세로 변화한 것이 새로운 동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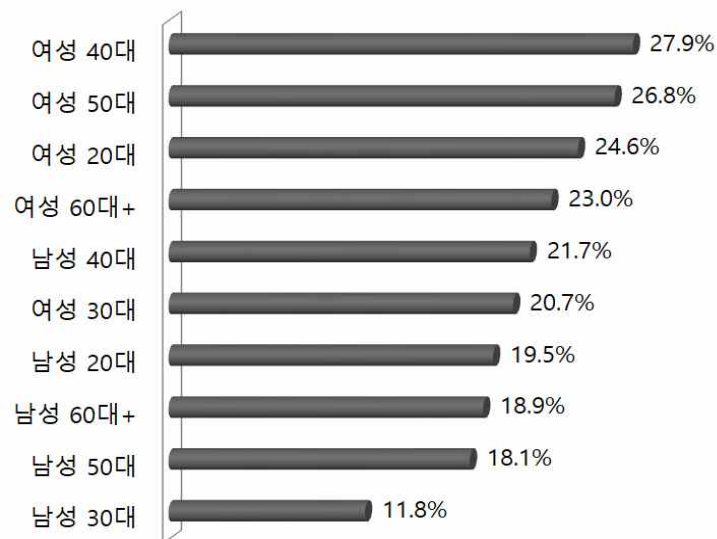
<그림2-9>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1999-2017



3) 성-연령

성-연령을 조합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하다. 분석결과 여성 40대와 여성 50대가 가장 활동적인 특징은 2014년과 동일하지만, 남성 30대와 50대 참여가 가장 낮은 것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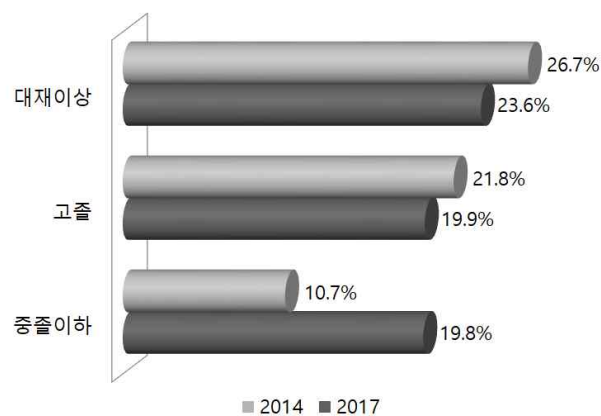
<그림2-10> 성-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7



4) 교육 수준

(1) 2014년과 2017년

<그림2-11> 교육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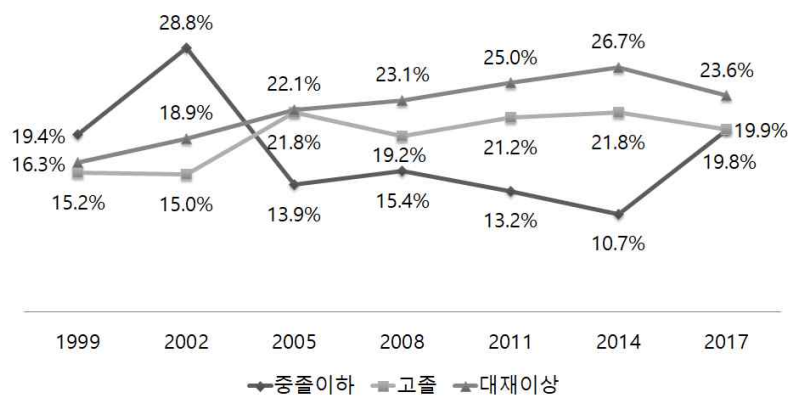


2017년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가 높아지는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졸과 고졸의 참여율이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 2014년까지의 추이와 전혀 다른 변화이다. 2011년과 2014년 저학력층 참여는 각기 13%와 11% 수준에 머물다가 2017년에 20%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저학력층이 많은 노인층 참여의 확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저학력층의 참여는 1999년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학력에 따른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7년에는 오히려 차이가 줄어드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대학생 참여가 많이 줄고, 저학력 노인층 참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2-12> 교육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1999-2017



5)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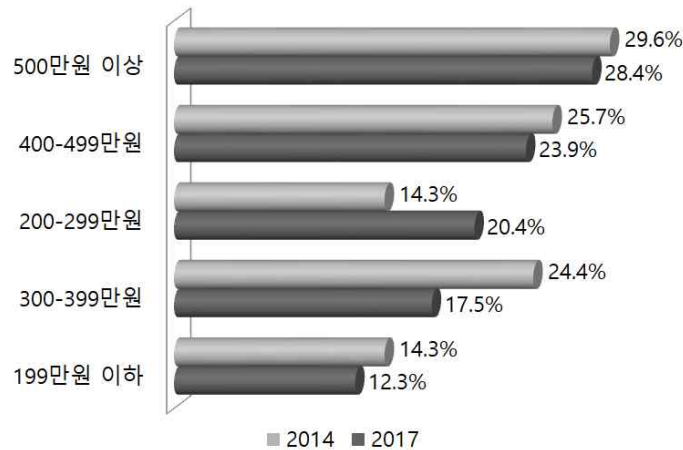
(1) 2014년과 2017년

소득에서도 고소득층 참여가 높고 저소득층 참여는 낮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고소득층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지만,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참여는 다소 줄었다.

2014년에 비교하면 월소득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 참여는 계속 줄고, 중저

소득층의 참여는 늘었지만, 300-399만원 중소득층 참여는 크게 줄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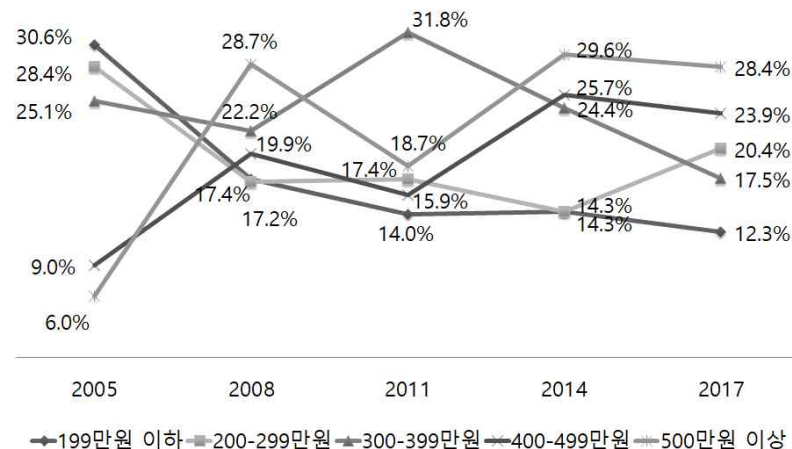
<그림2-13> 소득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2) 2005-2017년 시계열 비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05-2017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참여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줄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월소득 1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참여는 줄고, 월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참여도 줄고 있는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 참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2-14> 소득수준별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2005-2017



6) 직업

(1) 2014년과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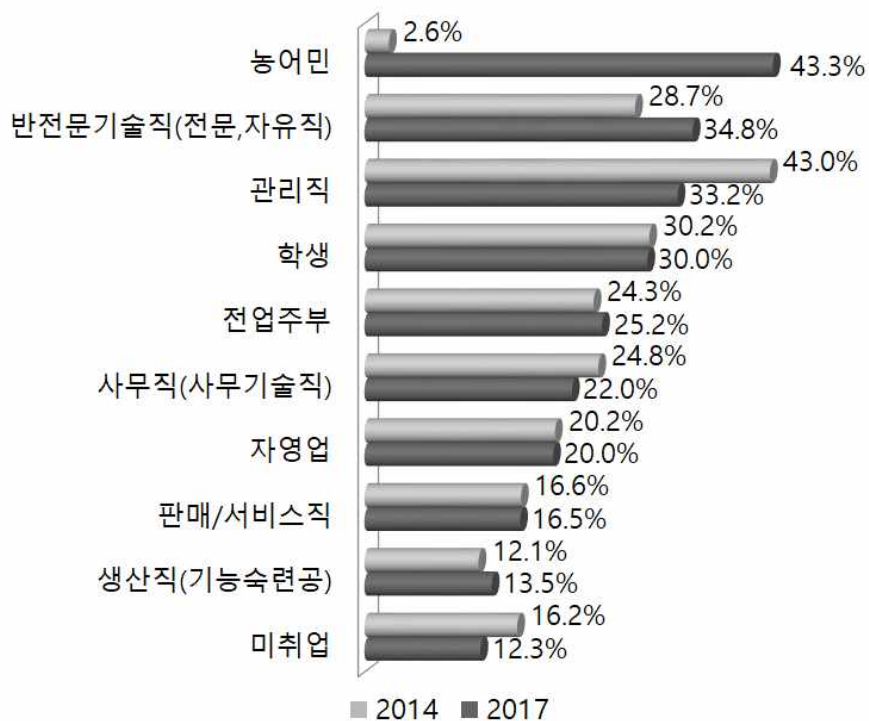
전문/자유직과 관리직의 참여가 가장 높고, 반면에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 참여는 늘지 않고 줄어든 특징이 엿보인다.

직업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특성이 있지만, 계층 간 참여의 불균등이 심화된 추세는 앞서 분석한 교육과 소득수준별 계층 사이의 불균등 추세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전문/자유직과 관리직의 샘플수가 각기 13명과 6명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경우도 참여가 현상유지에 머물고, 전업주부의 경우는 약간 늘면서, 앞서 분석한 여성의 참여 증대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미취업자의 참여가 크게 줄었고, 농어민의 참여가 대폭 증가한 것은 조사대상자 샘플 수(23명)가 작아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2-15> 직업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2) 2005-2017년 시계열 비교

시계열 자료에서도 관리직과 전문/자유직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학생과 전업주부도 안정적인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 침체의 요인 때문인지, 사무직 참여는 다소 줄고 있다. 그런데 직업별로 구분된 작은 규모의 샘플로 대표성이 취약하므로 조사시기별 차이가 적지 않아 다소 부정확하다.

<표2-1> 직업별 자원봉사 참여율 : 2005-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관리직	33.2%	43.0%	33.3%	36.8%	16.7%
학생	30.0	30.2	32.5	21.9	28.1
반전문기술직/전문,자유직	34.8	28.7	30.4	31.4	42.9
사무직(사무/기술직)	22.0	24.8	23.4	21.5	21.0
전업주부	25.2	24.3	19.7	20.2	24.0
자영업	20.0	20.2	18.9	22.3	21.6
판매/서비스직	16.5	16.6	18.1	15.8	13.4
무직	12.3	16.2	25.8	20.6	21.3
생산직(기능숙련공)	13.5	12.1	13.0	9.3	14.3
농어민	43.3	2.6	35.1	23.0	21.1
일반 작업직		-	-	-	6.1

3. 자원봉사 활동기관과 활동분야

1) 자원봉사 활동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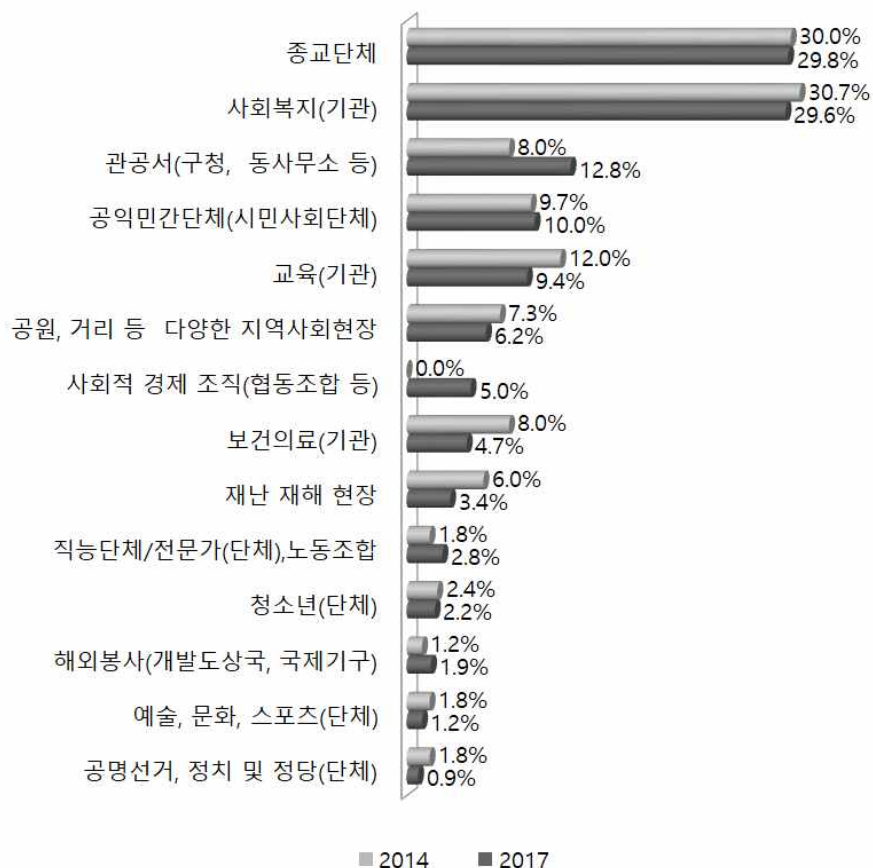
(1) 2014년과 2017년

2017년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많이 이뤄진 활동기관은 종교단체와 사회복지기관으로 각기 29.8%, 2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과 동일한 추세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기관은 9% 이상 크게 줄었고, 종교단체가

4% 늘었다. 그런데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는 2014년에 4.8% 크게 줄다가 2017년에 다시 12.8%로 크게 늘었다. 노인층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 공익민간단체 활동은 2014년에 크게 늘다가 2017년에 현상유지가 되고 있다. 이번에 처음 추가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의 참여율 5%는 상당한 의미를 보여준다.

<그림2-16>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참여율 : 2014, 2017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가장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2008년에 피크를 이룬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뚜렷하다.

종교단체의 경우,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관공서는 큰 폭의 하락과 상승세로 불확실하다. 공익민간단체의 경우, 1999-2002년 기간에 최고 수준 이었다가

이후 2011년까지 하락세로 가다가 2014년에 와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표2-2>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참여율* : 1999-2017

구 분	2017 ¹⁾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종교단체	29.8%	30.0%	25.9%	24.4%	24.5%	26.7%	48.8%
사회복지(기관)	29.6	30.7	38.9	47	39.9	35.6	33.9
관공서 (구청,동사무소 등)	12.8	8.0	12.8	14.6	13.9	22.7	
공익민간(단체)	10.0	9.7	5.9	7.5	8.2	10.5	15.8
교육(기관)	9.4	12.0	10.0	8.1	17.2	7.3	11.2
공원,거리 등 지역사회현장	6.2	7.3	8.7	14.8	-	-	-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5.0	-	-	-	-	-	-
보건의료(기관)	4.7	8.0	6.9	7.3	6.3	2.8	7.9
재난재해현장	3.4	6.0	6.5	5.0	-	-	-
직능단체/전문(단체), 노동조합	2.8	1.8	2.8	0.1	3.0	0.4	3.3
청소년(단체)	2.2	2.4	3.4	4.5	1.2	2.8	3.3
해외봉사(국제기구)	1.9	1.2	1.6	0.1	1.5	1.6	0.5
예술/문화/스포츠	1.2	1.8	1.2	4.5	2.7	3.6	2.3
공명선거, 정치(단체) 및 정당	0.9	1.8	0.6	2.5	1.2	3.2	1.9
환경(단체) ²⁾	-	5.9	5.3	10.6	3.6	6.9	7.4
성인취미단체	-	-	-	-	3.0	1.6	3.7
기업운영민간재단	-	-	-	-	0.9	3.6	1.9

* 중복응답임 ¹⁾ 비율% = 활동경험빈도÷1년간 자원봉사자의 백분율 ²⁾ 2017년부터 보기 삭제

(3)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별 비교 : 2017

자원봉사자 개인특성별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 남성은 공익민간단체, 관공서 참여가 비교적 높고, 여성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로 참여하는 교육기관 참여가 높다.
- 20대는 사회복지기관 참여가 높고, 30대는 학부모로 참여하는 교육기관, 40대는 종교단체와 공익단체 참여가 높으며, 50대와 60대는 종교단체 참여가 높은 편이다.

- 교육수준에서는 저학력층이 사회복지기관과 관공서 참여가 높는데, 저학력층 대부분을 구성하는 60대 이상 노인층의 높은 참여를 보여준다.
- 직업에서 사회복지기관 참여가 높은 직업은 자영업과 서비스와 판매직을 꼽을 수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에서는 60대 이상, 저학력층 참여가 높은 것을 주목해볼 만하다.

<표2-3>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참여율 비교 (성,연령,교육,직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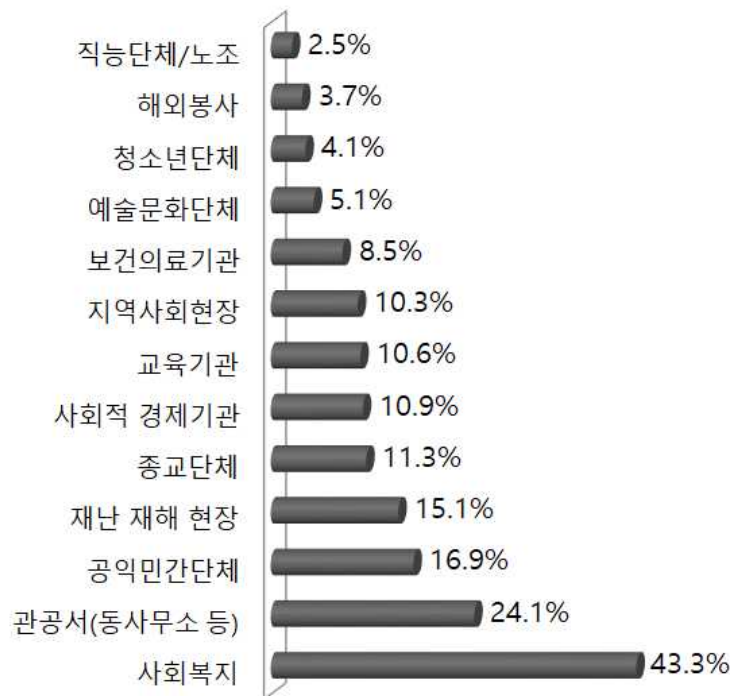
구 분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관공서	공익민간단체	교육기관	지역사회현장	사회적경제조직
전체	29.6%	29.8%	12.8%	10.0%	9.4%	6.2%	5.0%
남자	31.1	23.0	17.0	15.6	5.2	7.4	5.2
여자	28.6	34.8	9.7	5.9	12.4	5.4	4.9
20대	34.0	22.6	13.2	7.5	15.1	1.9	1.9
30대	27.9	20.9	9.2	4.6	20.9	6.9	2.4
40대	32.1	24.4	9.0	14.1	12.8	7.7	6.4
50대	27.9	39.7	10.3	14.7	2.9	4.4	4.4
60세이상	26.7	36.4	20.3	6.4	1.3	8.9	7.6
중졸이하	31.8	25.9	21.1	10.6	0.0	10.6	10.6
고졸	32.1	34.2	12.2	7.6	3.8	4.6	3.1
대재이상	27.0	27.0	11.2	11.8	16.5	6.6	5.3
전문/자유직	28.6	42.9	14.3	14.3	14.3	0.0	0.0
관리직	0.0	0.0	100.0	0.0	0.0	0.0	0.0
반전문/기술직	33.3	11.1	0.0	0.0	22.2	22.2	0.0
사무직	24.2	33.9	12.9	14.5	8.1	8.1	3.2
자영업	37.5	31.2	17.2	12.5	4.7	6.2	6.3
판매직	36.5	26.9	13.7	18.2	4.6	4.6	0.0
서비스직	42.8	22.8	2.9	8.6	2.9	5.7	2.9
생산직	0.0	50.0	0.0	0.0	0.0	20.0	10.0
농어민	30.0	0.0	40.0	10.0	0.0	10.0	50.0
전업주부	23.3	38.9	13.1	4.4	13.1	1.5	2.9
학생	29.2	8.3	8.3	8.3	33.3	4.2	4.2
미취업	28.6	42.9	0.0	14.3	0.0	14.3	0.0

(4) 활동기관 선호도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전체)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비자원봉사자 전체가 선호하는 활동기관은 사회복지

기관과 관공서(동사무소 등)와 공익민간단체가 우선 꼽힌다. 반면에 청소년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직능단체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선호도보다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2-17> 향후 자원봉사 참여시 선호하는 활동 희망처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전체)



2) 자원봉사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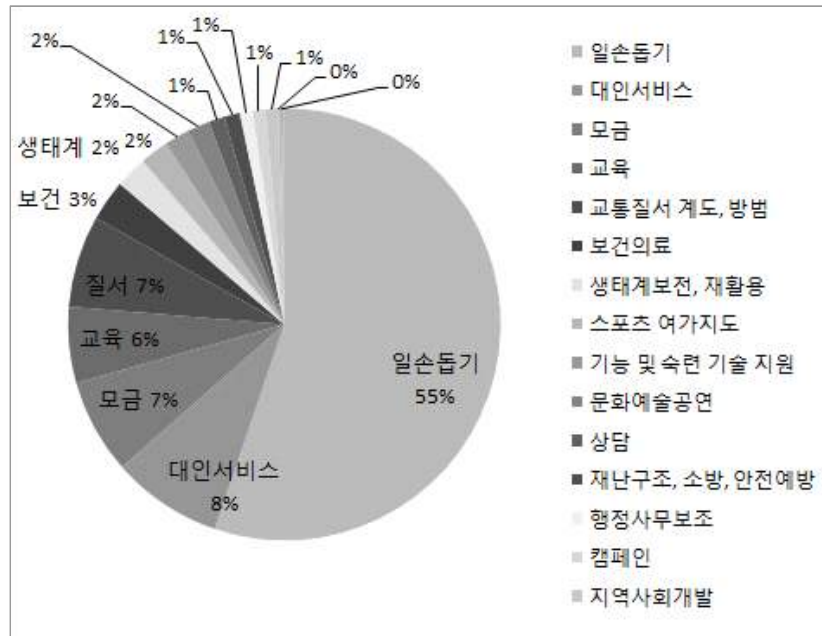
(1) 2014년과 2017년

자원봉사 활동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활동이 이뤄지는 분야는 일손돕기와 대인서비스이다. 반면에 행정사무보조, 캠페인,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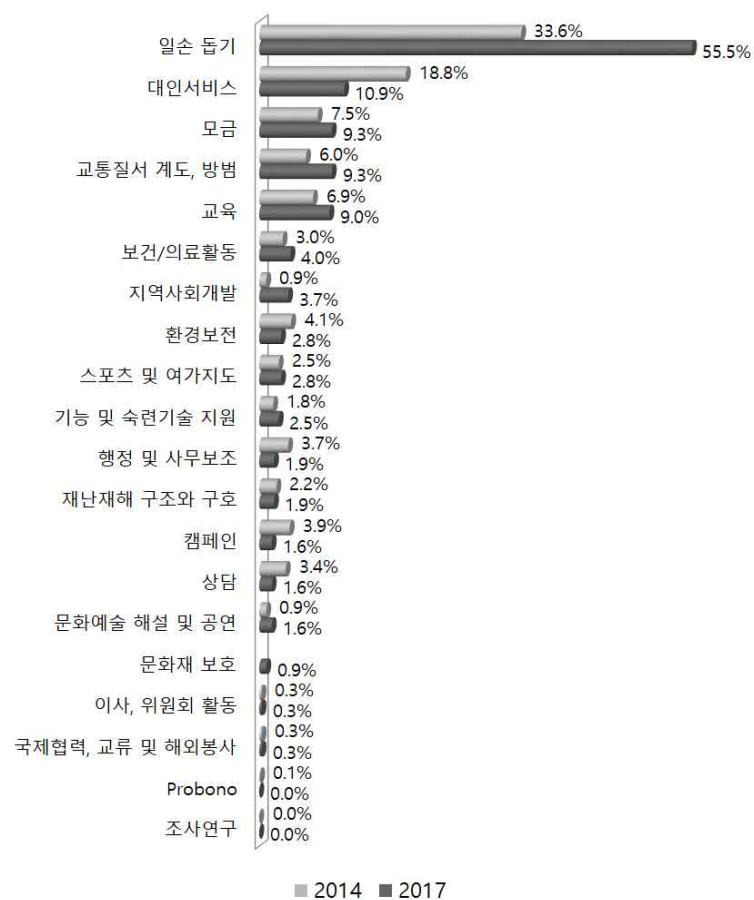
지난 2011-2014년과 비교해보면, 제1, 제2 우선순위는 전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대인서비스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교통질서, 교육, 재난구호, 상담, 모금 등의 우선순위도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2-18> 1년간 주로 한 자원봉사활동 : 2017



<그림2-19> 주된 자원봉사활동 : 2014, 2017



(2) 활동기관별 주로 한 자원봉사활동 : 2017년

위에 제시한 14개 활동기관 중 활동이 많은 상위 10개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18가지를 조합해보면, 자원봉사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된다.

전체적으로 일손돕기가 가장 많다. 그 가운데 종교단체, 복지기관, 공익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재난과 재해 현장 등은 절반 이상이 일손돕기 활동으로 이뤄진다. 각 단체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는 일손돕기, 대인 서비스, 모금이 많고, 복지기관과 관공서는 일손돕기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많다. 그런데 주된 활동 중에서 국제교류는 해외봉사에서만 이뤄지므로 표에 자료가 소개되지 않았고, 이사와 위원회 활동은 매우 저조해 직능단체나 노조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표2-4> 활동기관별 주된 자원봉사활동 : 2017

구 분	종교 단체	복지 기관	관공 서	공익 단체	교육 기관	지역 사회	사회적 경제	보건 기관	재난 현장	직능 노조
일손돕기	56.3	57.9	36.6	56.3	20.0	35.0	56.3	20.0	54.5	22.2
대인서비스	18.8	9.5	4.9	3.1	3.3	5.0	6.2	6.7		11.1
모금	13.4	5.3	7.3	6.3				13.5	9.1	11.1
교육	4.2	7.4	2.4	9.4	36.7		6.2			11.1
교통질서 계도, 방법	5.2	5.3	9.8	9.4	16.7	20.0			9.1	11.1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1.0	1.1		6.3						
캠페인			2.4		3.3	10.0				
행정 사무보조		1.1	4.9					13.3		
상담			2.4		3.3			13.3		
보건, 의료		5.3	2.4	3.1	6.7			20.0		
스포츠, 여가지도		2.1		3.1	3.3	10.0				
재난구조, 소방, 안전예방			4.9	3.1					27.3	
기능 및 숙련 기술 지원		2.1					6.2	13.3		22.2
생태계 보존, 재활용		1.1	4.9		3.3	15.0	6.2			
지역사회개발		1.1	17.1			5.0	12.5			
문화예술해설, 공연	1.0	1.1					6.2			
국제교류										
이사, 위원회										1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2008-2014년 시계열 비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08년의 자료부터 2011, 2014년을 비교해보면, 일손돕기와 대인서비스가 지속적인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한다. 일손돕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대인서비스는 다소 높아진 수준을 보여준다.

<표2-5>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율 추이* : 2008-2014

구 분	2014**	2011**	2008**
일손돕기	33.6%	37.9%	35.4%
대인서비스	18.8	16.9	13.2
모금	7.5	3.5	1.6
교육	6.9	5.8	5.4
교통질서 계도, 방법	6.0	6.2	7.0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4.1	5.2	3.4
캠페인	3.9	1.7	2.5
행정 사무보조	3.7	3.2	3.2
상담	3.4	4.6	3.9
보건, 의료	3.0	2.6	6.1
스포츠, 여가지도	2.5	0.8	1.6
재난구조, 소방, 안전예방	2.2	4.7	4.8
기능 및 숙련 기술 지원	1.8	2.6	0.0
지역사회개발	0.9	2.3	5.2
문화예술해설, 공연	0.9	0.9	0.9
국제교류	0.3	0.5	0.0
위원회	0.3	0.5	1.6
프로보노	0.1	0.0	4.1
기획 홍보		0.0	0.0
법률/건설팅		0.0	0.0
조사연구	0.0	0.3	0.2

* 중복응답임 ** 비율(%) = 1+2순위/1+2순위 합계의 백분율

4. 자원봉사 참여 동기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책임 등 도덕성, 타인을 위한 이타주의, 그리고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 개발 등 도구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주성수 2015).

(사)한국자원봉사문화(前 볼런티어21)와 한국갤럽은 1999년 시작부터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왔다. 올해 2017년과 2014년을 우선 비교한 다음, 1999-2017년 시계열 자료를 정리해본다.

1) 2014년과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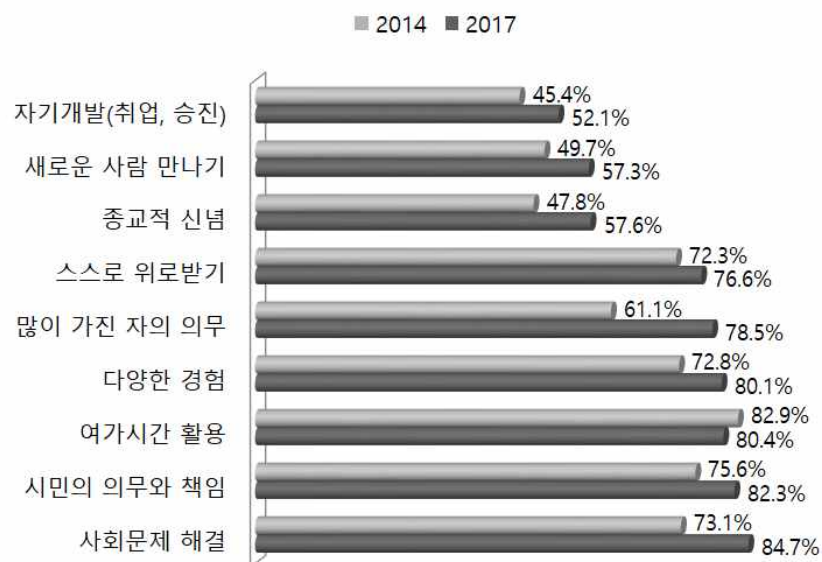
(1) 2017년은 ‘사명감’ 동기 중시

2017년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는 ‘사명감’ 동기가 다시 두드러지게 부각된 특징이 있다. 대통령 탄핵 촛불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듯이 참여동기는 시대 상황에 따라 추이동처럼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2017년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를 비롯해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등이 나란히 1위와 2위로 올라 있다. 이상의 1위와 2위에 오른 사명감 동기들은 2011 → 2014년 감소되었다가 2014 → 2017년 다시 증가세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도구적’ 동기들 또한 전반적으로 늘었다. 다만 여가시간 활용은 83% → 80%로 줄었지만 여전히 상위권 동기로 머물러 있다. 다양한 경험은 73% → 80%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50% → 57%로, 자기개발도 45% → 52%로, 그리고 자기 위로 또한 72% → 77%로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그림2-20>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 2014, 201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 직업별 비교

자원봉사 참여의 주요 동기를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뚜렷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 남녀 차이는 뚜렷하지 않지만 여성은 여가시간 활용, 남성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동기로 제시한다.

- 소득수준에서 저소득층이 모든 동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표2-6>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구 분	사회문제 해결	시민의 의무와 책임	여가시간 활용	다양한 경험
전체	84.7%	82.3%	80.4%	80.1%
남자	85.2	83.7	77.0	77.0
여자	84.4	81.3	82.9	82.3
20대	81.1	73.6	81.1	83.0
30대	81.5	83.8	86.0	93.1
40대	88.5	89.7	83.3	75.6
50대	80.9	82.4	73.5	73.5
60세이상	88.6	79.9	79.9	81.2
중졸이하	92.1	76.5	84.4	81.7
고졸	84.7	85.6	81.7	75.6
대재이상	82.9	80.9	78.3	83.6
199만원이하	77.2	63.9	68.5	73.0
200-299만원	84.0	82.0	72.0	74.0
300-399만원	85.3	88.2	82.3	82.3
400-499만원	83.3	84.6	85.8	82.3
500만원이상	87.3	80.0	81.0	81.1
전문/자유직	71.4	71.4	42.9	57.1
관리직	50.0	50.0	100.0	100.0
반전문/기술직	77.8	88.9	77.8	66.7
사무직	80.6	82.2	82.2	80.7
자영업	84.4	92.2	84.4	81.3
판매직	86.3	77.2	81.8	77.2
서비스직	91.4	85.7	82.9	82.9
생산직	80.0	60.0	80.0	80.0
농어민	100.0	70.0	60.0	80.0
전업주부	88.4	79.9	79.9	77.0
학생	83.3	75.0	75.0	100.0
미취업	71.4	100.0	100.0	57.1

* 중복응답임

(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관한 의견에서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와 구분되는 여러 특징들을 보여준다.

여러 동기들 가운데 여가시간 활용, 사회문제 해결, 시민의 책임과 의무, 다양한 경험에서 뚜렷하게 강한 동기를 보여준다.

2014-2017년을 비교해보면, 자원봉사자의 주요 동기는 여가시간 활용을 제외한 모든 동기에서 뚜렷한 상승을 보여준다. 한편 비자원봉사자의 인식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제외한 모든 동기에서 뚜렷한 상승을 보여준다.

<표2-7> 참여 동기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평가 : 2014, 2017

구 분	2014		2017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여가시간 활용	82.9%	64.2%	80.4%	70.7%
시민의 의무와 책임	75.6	64.4	82.3	75.3
사회문제 해결	73.1	64.9	84.7	75.8
다양한 경험	72.8	65.5	80.1	69.6
스스로 위로받기	72.3	62.0	76.6	67.6
많이 가진 자의 의무	61.1	60.3	78.5	75.5
새로운 사람 만나기	49.7	43.6	57.3	50.3
종교적 신념	47.8	42.9	57.6	39.7
자기개발(취업, 승진)	45.4	42.4	52.1	44.8

2) 1999-2008년 시계열 비교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간 참여 동기에 관한 문항들이 다소 변경되면서 2011-2014년, 2002-2008년, 그리고 1999년 등으로 구분하는 별도의 비교만이 가능하다.

우선 2002-2008년 기간의 세 차례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의견일치는 없는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경우 여가시간 활용과 많이 가진 자의 의무를, 그리고

비자원봉사자의 경우 사회 도덕성과 많이 가진 자의 의무를 주요 동기로 꼽았다. 1999년의 조사에서도 여가시간 활용과 많이 가진 자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동기로 꼽힌 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표2-8> 참여 동기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평가 : 2002-2008

구 분	2008		2005		2002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여가시간 활용	36.4%	28.0%	28.7%	21.6%	35.2%	27.9%
다양한 경험	34.9	25.0	33.8	21.3	25.5	24.0
많이 가진 자의 의무	34.2	29.5	39.0	24.5	31.2	27.9
친구, 직장동료 요청	32.7	22.3	39.0	24.0	33.2	23.5
받은 혜택의 사회환원	27.9	24.6	30.5	26.0	27.1	22.1
사회문제 해결	26.4	20.2	32.9	21.5	27.5	21.6
종교적 신념	24.4	15.7	28.1	13.9	25.9	13.5
사회에 도덕성 강조	21.9	21.6	32.9	32	29.1	30.8
시민의 의무와 책임	20.4	21.2	26.9	17.3	24.7	20.1
스스로 위로받기	14.8	12.0	13.3	8.8	10.1	10.0
고용주나 직장 장려	12.1	13.5	10.9	9.1	5.7	5.0
자기개발	11.8	11.6	9.4	7.8	6.9	8.1
부모나 친척이 권유	7.3	8.2	4.5	5.6	34.0	21.6

<표2-9>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 1999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많이 가진 자의 의무	35.8%	30.7%
의미 있는 여가로	34.0	21.6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해결	33.5	35.6
사회 환원	31.2	26.8
사회도덕성 강조	24.2	17.9
친구/동료 요청	20.9	16.3
세금/기타비용 줄이기	5.1	4.4
고용주 장려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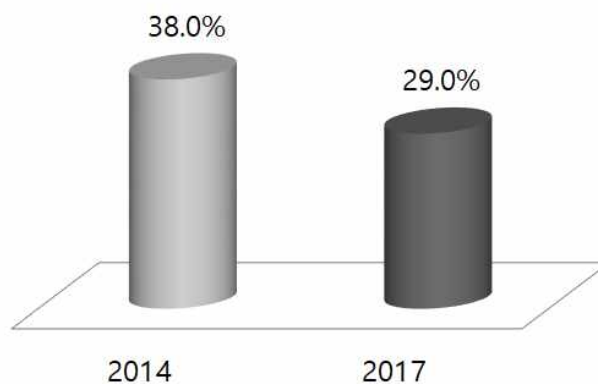
* 중복응답임

3) 가족의 영향과 자원봉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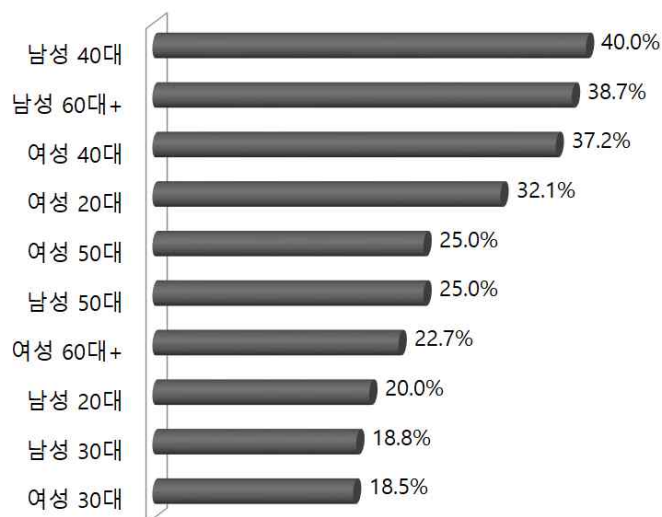
(1) 2017년

2017년 조사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가족에서 더 많은 자원봉사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하는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29.0%에 달한다. 그런데 이는 2014년 38%에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기록이다.

<그림2-21> 가족 자원봉사 경험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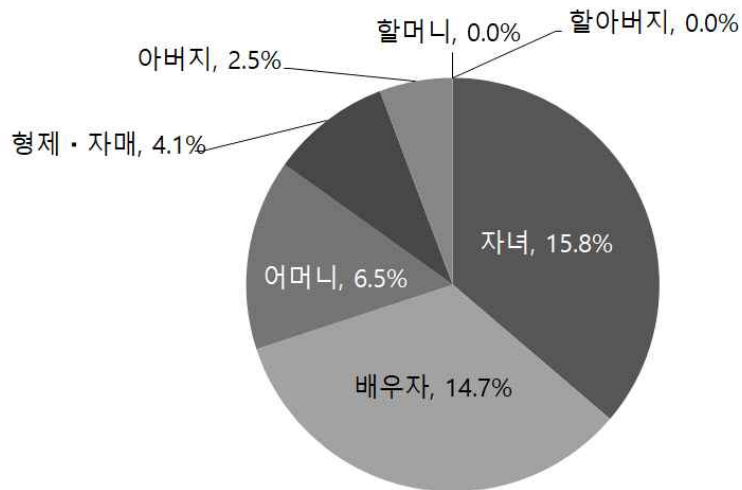


<그림2-22> 가족 자원봉사 참여율 성·연령별 비교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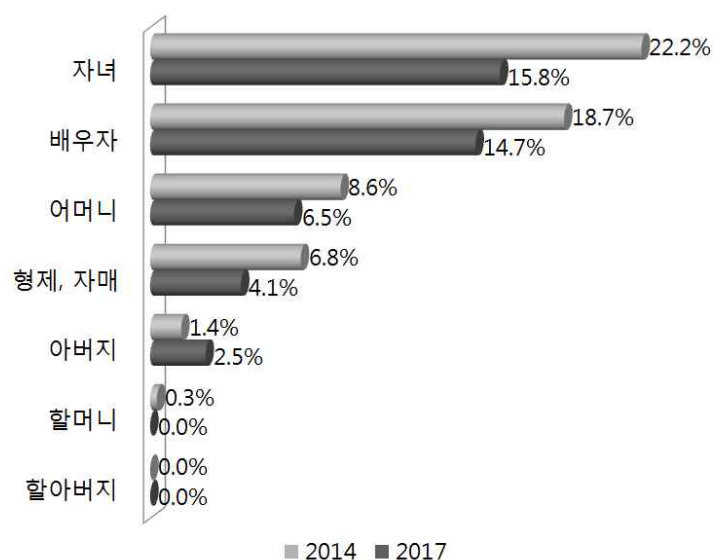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지, 제1, 제2 우선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순서이다. 다음으로 어머니, 형제자매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2-23>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 : 2017



2014년과 비교해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가 크게 줄었다. 자녀나 배우자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었고,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활동했다는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었다.

<그림2-24>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 : 2014, 2017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시계열 자료에서는 조사 항목별 차이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 <표 2-10>에서 2008-2017년 비교가 가능한데, 2017년에 가족 중 자원봉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가족 중 자녀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배우자, 어머니, 형제와 자매 등이다.

<표2-10> 가족 중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나 : 1999-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자녀	15.8%	22.2%	22.1%	19.8%	-	-	-
배우자	14.7	18.7	15.6	19.6	-	-	-
어머니	6.5	8.6	11.5	7.8	6.9	6.1	3.7
형제·자매	4.1	6.8	11.2	9.8	-	-	-
아버지	2.5	1.4	5.3	2	12.1	13	14.4

* 중복응답임. 2008년 조사부터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대신 본 설문으로 조사됨

5. 자원봉사 참여경로와 참여요청

1) 자원봉사 참여경로

설문조사에서 참여경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님이 하였던 자원봉사활동을 처음에 어떤 경로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1) 2014년과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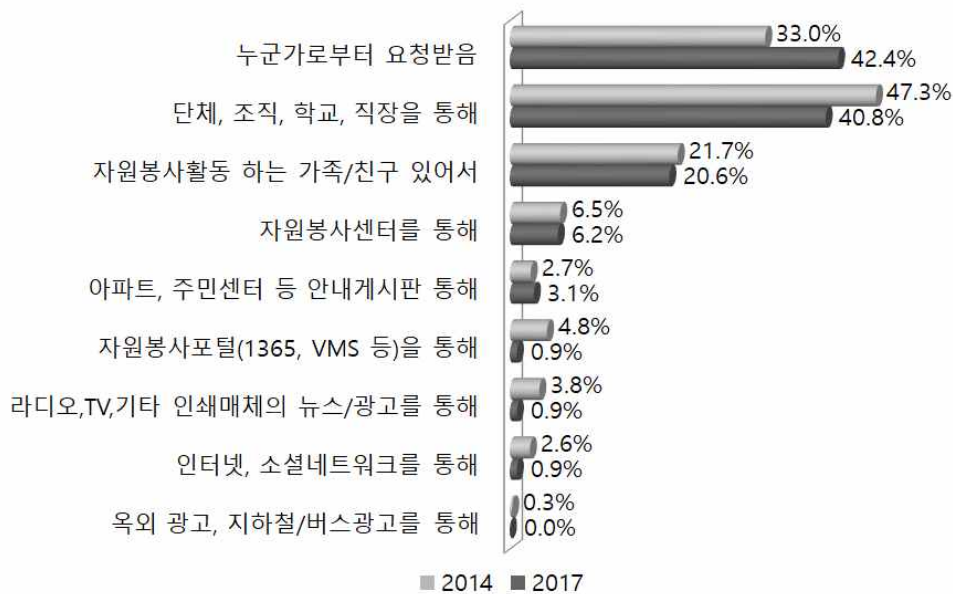
2017년의 특징은 ‘누군가의 요청’이 42.4%로 가장 많아, 2014년에 비해 10% 가량 늘었다. 또 자원봉사는 조직(단체)을 통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참여경로 또한 ‘소속된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 또한 40.8%로 많았다.

2011년과 2014년에 비교하면 ‘단체/조직/직장’을 통한 참여경로가 다소 줄었다. 반면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누군가의 요청’은 더욱 중요한 참여경

로가 되고 있다. 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비중도 20.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에도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참여경로는 2011년과 2014년과 2017년 계속 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원봉사포털(1365, VMS) 또한 참여경로로서 영향력은 거의 없을 정도로 0.9%에 지나지 않아, 2011년 6.2%, 2014년 4.8%에 비교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림2-25> 자원봉사 처음 참여경로 : 2014, 2017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단체/조직/직장’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어 왔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요청’이 제1 순위로 올라섰다.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향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2005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6.2%라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참여경로로서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표2-11> 자원봉사자의 참여경로* : 1999-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단체,조직,직장	40.8%	47.3%	53.0%	34.2%	54.4%	49.0%	54.9%
누군가로부터 요청받음	42.4	33	26.5	34.9	32.3	23.5	20.5
자원봉사활동 하는 가족/친구 있어서	20.6	21.7	21.8	10.6	10	9.7	7.4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	0.9	8.0	-	-	-	-	-
자원봉사센터	6.2	6.5	6.2	3.0	1.2	-	-
라디오,TV,기타인쇄매체	0.9	3.8	3.4	2.3	0.6	2.8	1.9
아파트, 주민센터 등 안내게시판	3.1	2.7	3.1	-	-	-	-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0.9	2.6	3.1	2.5	-	-	-
건물옥외,지하철,버스광고물	-	0.3	0	-	-	-	-
자원봉사의 도움 받은 가족/친구 있어서	-	-	5	2.8	1.8	1.6	-
스스로 참여	-	-	-	23.4	18.1	21.5	25.1

* 중복응답임

- 1) '자원봉사센터를 통해'는 2005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됨
- 2) '인터넷을 통해'는 2008년에 새로 추가됨→'인터넷을 통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는 2014년 새로 합쳐짐
- 3) 소셜네트워크, 아파트 안내게시판, 옥외광고물 은 2011년에 새로이 추가
- 4) '자원봉사포털을 통해'는 2014년에 새로 추가됨

(3) 성, 연령, 직업별 비교

자원봉사자의 개인 특성별로 다양한 참여경로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단체/조직/직장을 통한 참여경로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고, 직업에서는 전문/자유직과 관리직과 사무직이 직장을 통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어민을 비롯한 판매/서비스/생산직이 낮은 비중을 보여준다.

- 누군가의 요청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고, 연령에서도 고령층이 누군가 요청으로 많이 참여한다. 직업별로는 농어민과 반전문 기술직이 많은 편이다.

- 가족이나 친구의 봉사활동 영향은 30대, 판매직에서 높다.

- 자원봉사센터의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20대와 50대가, 그리고 농어민과 미취업자가 비교적 높다.

<표2-12> 자원봉사 참여경로 비교 (성,연령,직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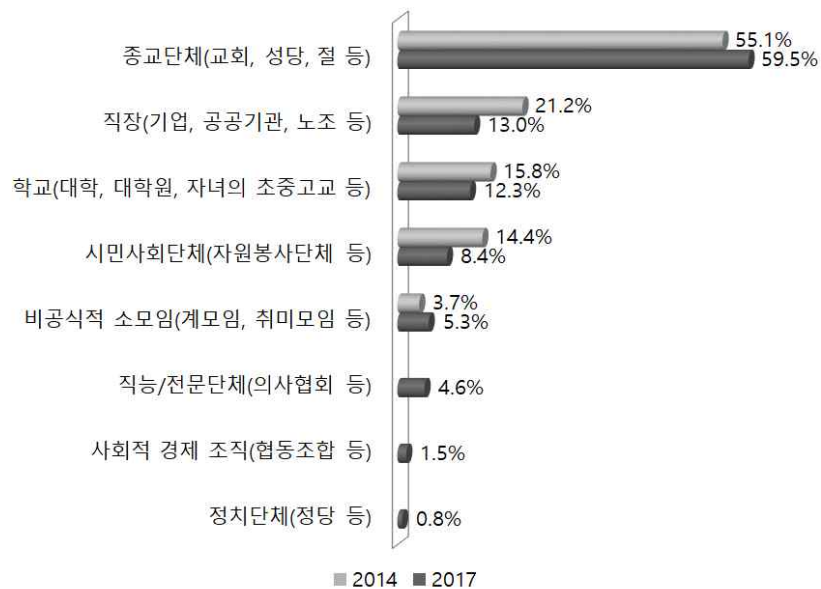
구 분	누군가의 요청	소속단체/ 조직/직장	가족/친구 봉사활동	자원봉사 센터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전체	42.4%	40.8%	20.6%	6.2%	3.1%
남자	49.6	35.6	21.5	8.1	3.0
여자	37.2	44.5	19.9	4.8	3.2
20대	37.7	39.6	22.6	7.5	1.9
30대	44.2	41.9	25.5	4.6	0
40대	43.6	42.3	21.8	5.1	5.1
50대	39.7	42.6	25.0	7.4	2.9
60세 이상	45.8	37.7	11.4	6.4	3.8
남자 20대	44.0	32.0	32.0	4.0	0
남자 30대	43.8	25.0	37.5	12.5	0
남자 40대	45.7	45.7	22.9	5.7	8.6
남자 50대	57.1	42.9	7.1	10.7	3.6
남자 60세+	54.8	25.8	16.1	9.7	0
여자 20대	32.1	46.4	14.3	10.7	3.6
여자 30대	44.5	51.8	18.5	0	0
여자 40대	41.9	39.5	20.9	4.7	2.3
여자 50대	27.5	42.5	37.5	5.0	2.5
여자 60세+	39.9	45.4	8.4	4.2	6.3
전문/자유직	0	100	0	0	0
관리직	50.0	50.0	0	0	0
반전문/기술직	66.7	33.3	11.1	0	0
사무직	35.4	54.9	22.5	6.4	1.6
자영업	46.9	34.4	26.6	7.8	4.7
판매직	41.2	31.5	41.0	9.1	0
서비스직	37.2	31.4	25.7	2.9	8.6
생산직	50.0	30.0	20.0	0	10.0
농어민	70.0	0	0	20.0	10.0
전업주부	40.8	46.2	16.1	4.4	1.5
학생	50.0	37.5	8.3	8.3	0
미취업	42.9	28.6	14.3	14.3	0

2) 참여경로 단체별 비교

2017년에도 단체 중에서 종교단체가 가장 중요한 참여경로로 조사되었다. 종교단체는 모든 단체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직장(기업, 공공기관, 노조)은 참여경로의 영향력이 2014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위축을 반영하는 것 같다(주성수 2016). 자녀의 학교 영향력과 사회단체나 협회 그리고 비공식적인 소모임의 영향력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도 1.5%로 미미하며, 정치단체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2-26> 참여경로 단체별 참여율 비교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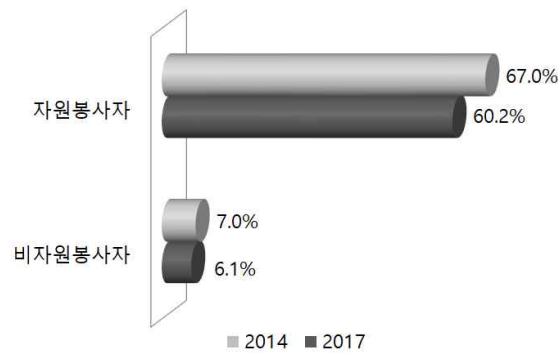
3) 자원봉사 참여요청

자원봉사 참여요청은 2017년에는 가장 중요한 참여 배경으로 부각된다. 자원봉사를 요청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반대로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분석이 이번 2017년에도 확인되고 있다.

(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011년과 2014년과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참여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7% 줄었고, 비자원봉사자 중에도 참여요청이 다소 줄었다.

<그림2-27>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요청경험 : 2014, 2017



(2) 성, 연령, 직업별 비교 : 2017

자원봉사 요청에서도 개인 특성별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다.

-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요청을 받고,
- 연령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요청을 받으며,
- 직업에서는 자영업,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학생보다는 전문/자유직, 관리직, 농어민, 생산직이 더 많은 요청을 받는다.

<표2-13> 자원봉사 참여요청 비교 (성,연령,직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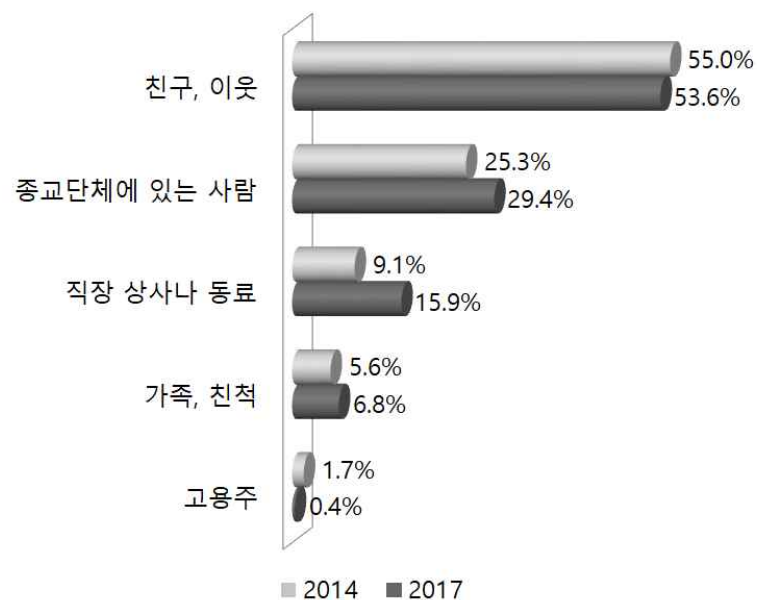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체	60.2%	6.1%
남자	57.0	5.9
여자	62.4	6.3
20대	52.8	4.8
30대	65.3	3.1
40대	61.5	6.8
50대	63.2	8.5
60세이상	58.3	6.8
전문/자유직	71.4	0.0
관리직	50.0	0.0
반전문/기술직	66.7	8.3
사무직	66.2	6.4
자영업	65.6	5.9
판매직	49.9	8.0
서비스직	54.3	7.0
생산직	60.0	4.7
농어민	40.0	0.0
전업주부	58.1	5.9
학생	58.3	3.6
미취업	57.1	6.0

4) 자원봉사 요청자

(1) 2014년과 2017년

2017년에도 ‘친구나 이웃’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2014년에 비교해보면 친구나 이웃의 요청은 줄고, 종교단체나 직장 상사나 동료의 참여요청은 늘었다.

<그림2-28> 자원봉사활동 요청자별 참여율 : 2014, 2017



(2) 1999-2008년 시계열 비교

자원봉사 요청에 관한 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1년과 2014년은 그 전의 항목들과 차이가 있어, 아래에서는 1999-2008년 기간의 요청자 자료를 별도로 비교해볼 만하다. 1999-2008년 기간에는 요청자와 단체들을 혼합해 질문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9-2008년 기간에도 요청자로 친구가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종교단체 직원이나 회원, 직장 직원, 학교 등이다.

<표2-14> 자원봉사활동 요청자 : 1999-2008

	2008	2005	2002	1999
친구	34.5%	43.9%	43.0%	25.0%
종교단체 직원·회원	14.4	25.2	19.0	22.7
직장 직원	13.7	8.4	5.2	11.4
관공서	12.2	4.7	-	-
학교	11.5	22.4	10.3	11.4
이웃	9.4	5.6	5.2	6.8
가족이나 친척	7.9	6.5	6.9	6.8
고용주	3.6	-	-	2.3
기타	1.4	0.9	13.8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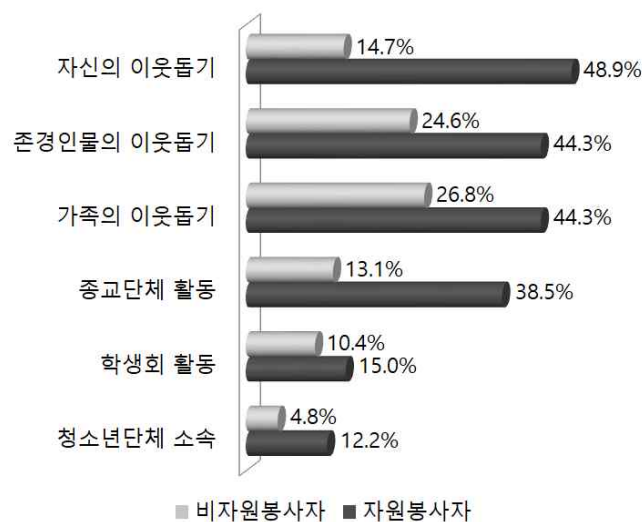
5) 친사회적 경험

(1) 2014년과 2017년

개인의 여러 경험 중 ‘친사회적’(pro-social)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해 (사)한국자원봉사문화(前 볼런티어21)는 1999년부터 친사회적 경험과 자원봉사의 상관성을 검증해왔는데, 2014년과 2017년 조사에도 둘 다 상당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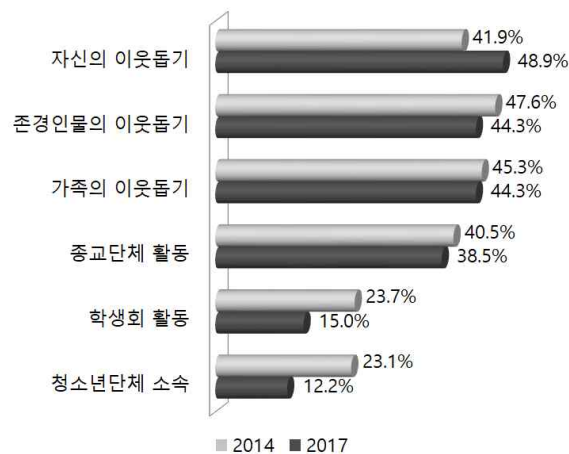
<그림2-29> 친사회적 경험과 자원봉사와의 상관성 : 2017



‘친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2011년과 비교해 2014년부터 이번 2017년까지, 존경인물의 이웃돕기부터 대부분의 경험에서 친사회적 활동의 경험이 많이 위축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림2-30> 자원봉사자의 친사회적 경험 : 2014, 2017



(2) 1999-2011년 시계열 비교

친사회적 경험이 위축된 추이는 1999-2011년 시계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위의 2014-2017년 자료와 비교되는 1)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 2) 가족의 이웃돕기, 3) 자신의 이웃돕기, 4) 종교단체 활동, 5) 학생회 활동, 6) 청소년단체 소속 활동 모든 경험에서 자원봉사자의 친사회적 경험이 상당 수준 위축되었다.

<표2-15> 자원봉사자의 친사회적 경험 : 1999-2011

구 분	2011		2008		2005		2002		1999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친척/친구 관계 경험										
친구/친척의 아픔과 죽음	44.1	37.5	45.2	47.5	65.3	61.9	64.4	59.0	70.2	64.1
타인 도움 받은 경험	36.8	25.7	33.9	30.7	45.6	35.4	52.2	34.2	48.8	40.5
가족의 이웃돕기 본 경험	57.7	37.8	55.5	39.3	66.8	46.6	68.4	50.4	67.4	50.7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 돕기를 본 경험	57.5	34.4	54.0	32.6	61.6	38.8	68.4	42.0	68.4	42.9
단체경험										
학생회 활동	24.6	12.6	23.9	13.7	28.1	17.7	35.6	19.1	34.0	18.8
종교단체 활동	42.3	20.9	44.0	18.8	44.7	23.3	49.8	20.9	59.5	17.5
청소년 단체소속	20.6	10.8	26.1	10.3	26.3	15.2	36.4	16.6	39.1	14.6

* 과거의 경험은 13개 문항으로 질문한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임

6) 친교활동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친교활동이 비교적 많은 가운데, 공익적인 ‘친사회적’ 활동은 더욱 뚜렷하게 비교가 될 정도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99-2011년에 가장 가까운 부모, 친척과의 저녁부터 가장 먼 소셜네트워크 활동까지 모든 친교활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표2-16>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의 친교활동* : 1999-2011

구 분	2011		2008		2005		2002		1999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부모.친척과 저녁	95.9	93	96	93.9	97.6	96.4	96.4	95.8	94.4	94.2
친구들과 저녁	92.9	89.3	90.5	86.2	88.5	85.7	91.1	86.5	84.2	71.5
이웃과 저녁	86.9	81.4	88.2	79.5	85.8	78.9	88.7	83.5	78.1	79.6
직장/사회단체 친구와 교제	67.6	52.3	70.1	53.6	68.6	58.7	70.4	56	78.1	53.6
봉사/서비스기관 친구와 교제	66.1	6.8	62.6	8.2	65.3	8.6	68.4	14.2	63.3	25.2
종교기관 친구와 교제	57.2	63.8	56.3	31.6	55.6	32	62.3	36.5	67.9	9.4
운동/취미활동 친구와 교제	55.2	36.3	66.1	45.4	65.6	45.4	61.9	46.2	59.5	38.6
소셜네트워크활동(페이스북 등)	21.8	15.3								

* 사교활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일주일에 1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등이 모두 포함됨

6. 자원봉사 활동시간과 기간

1) 자원봉사 활동시간

(1) 2017년

2017년 자원봉사자의 ‘지난 1년간’ 활동시간은 1회당 평균 3.4시간이며, 1인당 연 평균 35.2시간 활동하였다. 활동 횟수는 연평균 10.5회이다. 가장 많은 활동이 이뤄진 종교단체의 참여횟수는 평균 16.4회로 회당 3.1시간 활동이 이뤄졌다. 평균횟수는 공익민간단체가 17회로 가장 많으며, 평균시간은 재난재해 현장이 평균 4.7시간으로 가장 길다.

<표2-17> 1년간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활동시간* : 2017

구 분	활동 경험*	평균 횟수	1회당 평균 시간 ¹⁾	1인당 1년간 평균시간 ²⁾	총 활동 시간 ³⁾
종교단체	29.8%	16.4회	3.1시간	50.8시간	4880.6시간
사회복지(기관)	29.6	10.5	3.7	38.9	3690.8
관공서	12.8	11.8	3.2	37.8	1548.2
공익민간(단체)	10.0	17.2	3.0	51.6	1651.2
교육(기관)	9.4	15.4	3.0	46.2	1386.0
지역사회 현장	6.2	6.3	3.3	20.8	415.8
사회적 경제 조직	5.0	10.3	3.3	34.0	543.8
보건의료(기관)	4.7	13.4	4.5	60.3	904.5
재난재해현장	3.4	1.9	4.7	8.9	98.2
직능/전문가(단체), 노동조합	2.8	8.6	2.6	22.4	201.2
청소년(단체)	2.2	10.3	3.1	31.9	223.5
해외봉사	1.9	11.5	4.0	46.0	276.0
예술/문화/스포츠(단체)	1.2	9.3	3.3	30.7	122.8
공명선거,정치(단체) 및 정당	0.9	4.7	2.7	12.7	38.1
평 균	8.6	10.5	3.4	35.2	15,980.7

* 중복응답, 활동경험빈도÷1년 자원봉사자수의 백분율

¹⁾ 기관별 1회당 평균활동시간

²⁾ 기관별 평균횟수×1회당 평균활동시간

³⁾ 기관별 평균횟수×1회당 평균활동시간×활동경험빈도

2017년을 2014년과 비교해보면, ‘지난 1년간’ 활동 횟수는 두 배 가량 늘었으며, 1회당 평균 활동시간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활동시간은 조금 늘었다.

<표2-18> 1년간 자원봉사 활동기관과 활동시간 : 2014, 2017

구 분	2017				2014			
	활동 경험*	평균 횟수	1회당 평균 시간 ¹⁾	총 활동 시간 ²⁾	활동 경험*	평균 횟수	1회당 평균 시간 ¹⁾	총 활동 시간 ²⁾
종교단체	29.8%	16.4회	3.1시간	4880.6시간	30.0%	17.0회	3.5시간	6,009.5 시간
사회복지(기관)	29.6	10.5	3.7	3690.8	30.7	8.2	4.4	3,752.3
관공서	12.8	11.8	3.2	1548.2	8.0	7.8	3.7	779.2

공익민간(단체)	10.0	17.2	3.0	1651.2	9.7	4.8	4.1	649.4
교육(기관)	9.4	15.4	3.0	1386.0	12.0	5.1	3.0	612.0
지역사회 현장	6.2	6.3	3.3	415.8	7.3	5.8	4.5	652.5
사회적 경제 조직	5.0	10.3	3.3	543.8	-	-	-	-
보건의료(기관)	4.7	13.4	4.5	904.5	8.0	5.9	3.8	605.3
재난재해현장	3.4	1.9	4.7	98.2	6.0	1.7	11.8	401.2
직능/전문가(단체), 노동조합	2.8	8.6	2.6	201.2	1.8	4.3	4.0	103.2
청소년(단체)	2.2	10.3	3.1	223.5	2.4	2.3	4.4	81.0
해외봉사	1.9	11.5	4.0	276.0	1.2	1.0	16.2	64.8
예술/문화/스포츠(단체)	1.2	9.3	3.3	122.8	1.8	1.7	4.0	40.8
공명선거, 정치(단체) 및 정당	0.9	4.7	2.7	38.1	1.8	1.8	6.7	72.4
환경(단체)	-	-	-	-	5.9	5.2	4.7	488.8
합 계	119.9	10.54	3.39	15,980.7	126.6	5.19	5.63	14,312.4

* 중복응답임, 활동경험빈도÷1년 자원봉사자수의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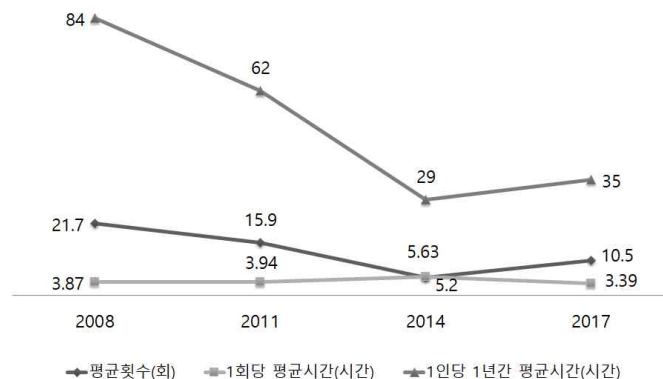
1) 기관별 1회당 평균활동시간

2) 기관별 평균횟수×1회당 평균활동시간×활동경험빈도

(2) 2008-2017년 시계열 비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년간 자원봉사활동 평균횟수를 비교해보면 2014년까지는 평균참여 횟수가 줄어들다가 2017년에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평균 활동시간은 2014년에 가장 높다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31> 자원봉사 활동횟수와 시간 비교 :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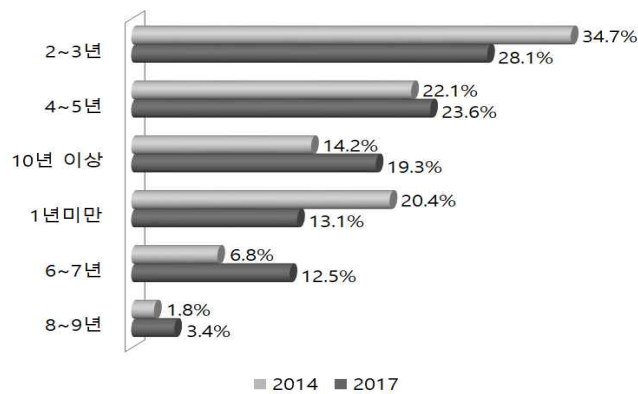


2) 일생동안 자원봉사 활동기간과 활동시간(2014-2017년)

(1) 자원봉사활동 기간

2017년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생동안 수행한 자원봉사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2~3년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고, 4~5년은 23.6%, 10년 이상은 19.3%로 장기 활동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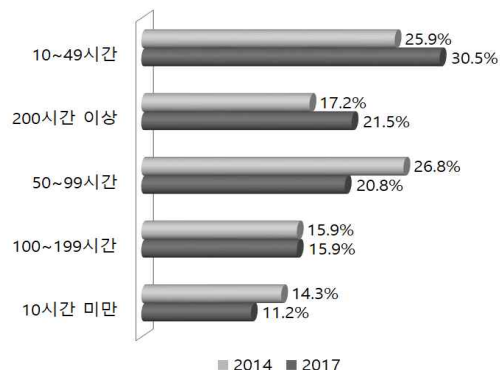
<그림2-32> 자원봉사자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기간 : 2014, 2017



(2) 자원봉사활동 시간

2017년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생동안 수행한 전체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10~49시간 사이가 가장 많았다.

<그림2-33> 자원봉사자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시간 : 2014, 2017



(3)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평생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남정보다 여성이, 5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활동한다.
- 그 밖에 교육과 소득 수준별, 직업별 차이는 분명하지 않는데, 일반적 특성은 100시간 이상 장시간보다 99시간 이하의 단시간 활동이 많다는 점이다.

<표2-19> 자원봉사자의 평생 자원봉사 활동시간(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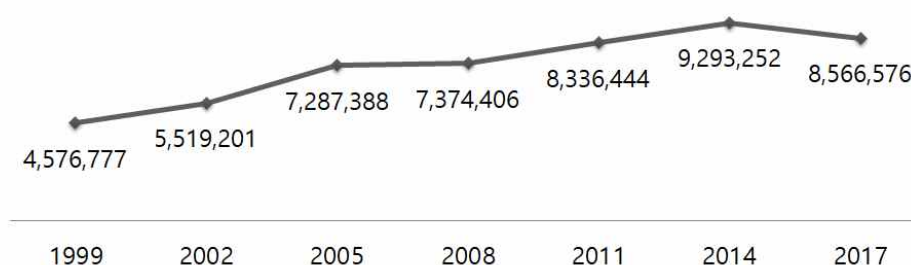
구 분	10시간 미만	10-49 시간	50-99 시간	100-199 시간	200시간 이상
전체	11.2%	30.5%	20.8%	15.9%	21.5%
남자	8.1	31.1	25.9	17.0	17.8
여자	13.5	30.1	17.2	15.1	24.2
20대	17.0	28.3	20.8	20.8	13.2
30대	18.7	25.7	27.9	18.5	9.2
40대	6.4	35.9	25.6	11.5	20.5
50대	10.3	33.8	10.3	16.2	29.4
60세이상	8.9	26.5	21.4	15.3	28.0
중졸이하	7.9	23.9	23.3	13.2	31.7
고졸	15.3	34.2	16.8	14.5	19.1
대재이상	8.6	29.0	23.7	17.7	21.0
199만원이하	4.6	18.3	27.0	18.3	32.0
200-299만원	12.0	32.0	20.0	10.0	26.0
300-399만원	25.1	30.8	14.6	16.2	13.3
400-499만원	6.0	35.6	23.9	13.1	21.4
500만원이상	7.4	27.4	22.1	20.0	23.1
전문/자유직	0.0	14.3	42.9	0.0	42.9
관리직	0.0	0.0	0.0	0.0	100.0
반전문/기술직	0.0	22.2	22.2	33.3	22.2
사무직	9.7	38.8	22.5	17.7	11.3
자영업	10.9	29.7	21.9	14.1	23.4
판매직	22.9	36.5	17.8	4.6	18.2
서비스직	20.1	20.0	20.0	11.4	28.5
생산직	20.0	50.0	20.0	10.0	0.0
농어민	10.0	10.0	20.0	30.0	30.0
전업주부	10.2	34.6	20.3	11.6	23.2
학생	4.2	20.8	16.7	33.3	25.0
미취업	0.0	28.6	14.3	42.9	14.3

7. 자원봉사 인구와 경제적 가치

1) 자원봉사 인구

2017년 자원봉사 인구는 856만 6,576명으로 추산된다.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4,003만 730명)¹⁾에 자원봉사 참여율 21.4%를 적용시킨 수치이다.

<그림2-34> 자원봉사 인구 비교 : 1999-2017



<표2-20> 자원봉사인구 추산 : 1999-2017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1) 자원봉사자 비율	21.4%	22.5%	21.4%	20.2%	20.5%	16.3%	14.0%
2) 자원봉사 인구(명)	8,566,576 ¹⁾	9,293,252	8,336,444	7,374,406	7,287,388	5,519,201	4,576,777

¹⁾ 2017년 자원봉사인구=40,030,730명(2016년 만 20세 이상 인구)×0.214(자원봉사자비율)=8,566,5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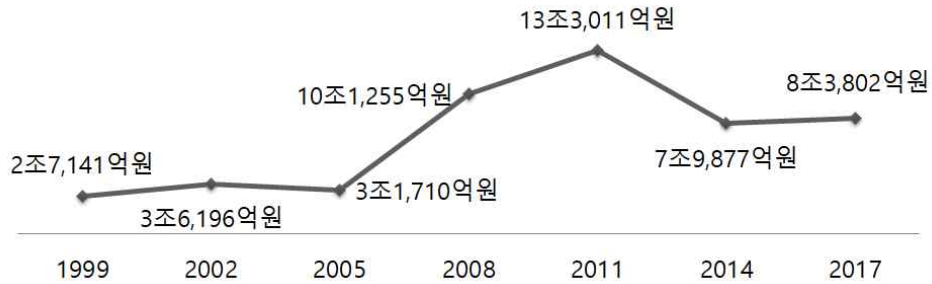
2)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2017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보다는 늘었지만 2011년에 비하면 높지 않다. 금전적 가치로 8조 3,802억원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011년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적 가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시간이 2011년

1)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

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림2-35>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비교 : 1999-2017



<표2-21> 연간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 1999-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1년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활동시간	0.95시간 ¹⁾	0.81시간	1.92시간	2.37시간	1.02시간	1.9시간	2.1시간
전체 자원봉사자의 연간 자원봉사 시간	4억2432만 8209시간 ²⁾	3억9248만 5629시간	8억3455만 1405시간	9억1147만 6582시간	3억8756만 3699 시간	5억3237만 6609시간	4억9892만 시간
전체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의 연간 금전적 가치	8조 3802억원 ³⁾	7조 9877억원	13조 3011억원	10조 1255억원	3조 1710억원	3조 6196억원	2조 7141억원
GDP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0.51% (1,637.4조원 -2016년) ⁴⁾	0.56% (1,428.3조원 -2014년)	1.13% (1,172.800조 원-2010년)	1.27% (798.057조원 -2007년)	0.46% (693.995조원 -2004년)	0.6% (600.866조원 -2001년)	0.56% (487.184조원 -1998년)

<2017년>

- ¹⁾ 1년 자원봉사자의 연간 총활동시간 = 15,980시간
 1년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활동시간 = 15,980시간÷321명÷52.14주 = 0.95시간
- ²⁾ 연간 자원봉사자 추정치 = 8,566,576명
 0.95시간 × 8,566,576명 × 52.14주 = 424,328,209시간
- ³⁾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19,749.5원) × 424,328,209시간 = 8,380,269,963,645.5원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월 평균임금(3,406,787원)/월평균 근로시간 수(172.5시간)=19,749.5원
 (2016년 기준, 고용노동통계)
- ※ 월 평균임금 출처 :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 국가통계포털(KOSIS)
- ⁴⁾ 국내총생산 출처 : 2016년 국내총생산(e-나라지표: www.index.go.kr)

Ⅲ.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1. 자원봉사활동 정신적 보람

1)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보람

2008년 조사부터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보람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관련된 8가지 문항 모두가 2014년에 비해 3-6% 가량 크게 높아진 게 2017년의 특징이다. 정신적 보람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원봉사의 질적 개선이 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보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문항들 중 2017년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94.7%)와 ‘개인적 성취감을 주었다’(94.1%)가 가장 많았다. 자원봉사는 정신적 보람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기본철학이 잘 실천되는 것 같은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3-1>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적 보람 : 2014, 201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표3-1> 자원봉사활동 정신적 보람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구 분	자신이 필요한 사람 이라는 느낌	개인적 성취감	삶의 경험을 넓혀줌	봉사활동은 즐기는 활동	확신감 (자신감)을 줌
전체	94.7%	94.1%	92.8%	92.8%	90.7%
남자	94.1	92.6	94.1	91.1	88.1
여자	95.2	95.2	91.9	94.1	92.5
20대	86.8	84.9	90.6	90.6	75.5
30대	97.7	95.4	90.8	93.1	93.1
40대	97.4	97.4	91.0	92.3	96.2
50대	94.1	95.6	95.6	89.7	94.1
60세이상	96.2	95.0	94.9	97.5	91.2
중졸이하	94.7	100.0	94.7	97.4	100.0
고졸	96.2	93.2	93.9	90.8	90.9
대재이상	93.4	93.4	91.5	93.4	88.2
199만원이하	95.4	90.9	90.9	95.4	90.9
200-299만원	96.0	90.0	88.0	86.0	90.0
300-399만원	92.6	94.1	95.6	92.6	91.2
400-499만원	96.4	94.2	91.7	95.2	90.6
500만원이상	93.7	96.8	94.7	93.7	90.5
전문/자유직	85.7	71.4	85.7	85.7	85.7
관리직	100.0	100.0	100.0	100.0	50.0
반전문/기술직	100.0	88.9	100.0	88.9	88.9
사무직	93.6	95.2	88.7	85.5	90.3
자영업	98.4	95.3	100.0	98.4	96.9
판매직	95.4	95.4	100.0	95.4	86.3
서비스직	94.3	97.1	91.4	94.3	91.4
생산직	80.0	80.0	70.0	90.0	90.0
농어민	100.0	100.0	100.0	100.0	90.0
전업주부	95.6	95.8	91.3	92.7	92.9
학생	87.5	95.8	95.8	95.8	79.2
미취업	100.0	71.4	71.4	85.7	85.7

* 중복응답임. 각 이유의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률을 합산한 수치임

자원봉사자의 정체성 주요 이유 다섯 가지를 자원봉사자의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별로 비교해보면 2017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정신적 보람을 보여준다. 다섯 가지 이유 중 '삶의 경험을 넓혀줌'에서만 남성의 정신적 보람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 60대 이상 노인층이 봉사활동을 즐기며, 30대와 40대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보람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삶의 경험’에서는 50대 장년층이, ‘개인적 성취감’에서는 40대가 가장 높은 정신적 보람 점수를 보여준다.

- 소득수준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지만, 학력에서 고학력층이 확신감(자신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3) 활동기관별 정신적 보람 비교

한편 활동기관별로 정신적 보람을 살펴보면, 정신적 보람의 8가지 지표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거의 95%를 넘는 수준이라, ‘매우 만족’을 표시한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비교해보면, 관공서와 공익시민단체 활동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장 강하게 나타난 정신적 보람의 활동기관으로는

- 즐기는 봉사활동의 보람은 공익시민단체에서,
- 개인적 성취감 보람은 지역사회현장에서,
- 경험을 넓힌 보람은 보건의료, 공익시민단체, 지역사회현장, 관공서 등에서 나타났다.

<표3-2>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정신적 보람

	보건의료 기관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공익시민 단체	지역사회 현장	관공서
“매우 만족” 자원봉사자	26.7%	36.7%	38.3%	42.2%	43.5%	27.3%	50.0%
1. 자원봉사를 즐기며 활동	80	93	94	94	100	90	90
2. 봉사로 개인 적 성취감	87	93	92	96	95	100	90
3. 봉사로 경험 을 넓힘	100	93	91	94	100	100	100
4. 자기중심 사 고에서 벗어남	93	83	94	87	100	91	93
5. 필요한 사람 이라는 느낌	93	93	92	100	100	100	87
6. 확신감, 자신 감을 가짐	80	90	93	96	96	90	83
7. 봉사로 새로 운 기술을 배움	73	73	72	66	74	64	80
8. 봉사로 인간 관계를 넓힘	93	100	94	93	96	10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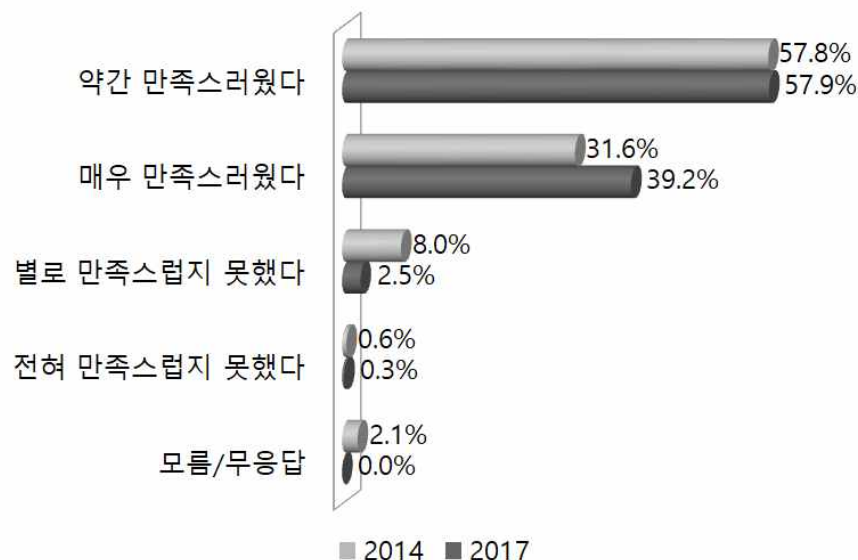
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1) 2014년과 2017년

(1) 자원봉사 만족도 최고 기록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2017년에 ‘매우 만족’ 39.2%, ‘약간 만족’ 57.9%로, 전체 97.2%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4년 ‘매우 만족’ 31.6%, ‘약간 만족’ 57.8%로, 전체 89.4%, 그리고 2011년 94.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중 9개월 이상 대통령탄핵 관련 집회로 어수선한 사회분위 기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앞서 서술한 자원봉사의 정체성 또한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만하다.

<그림3-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2014, 201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 직업별 비교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자원봉사자 특성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떨어진다. ‘매우 만족’에서는 높지만 ‘약간 만족’에서는 낮다.
- 연령별 차이도 거의 없는 가운데, 노인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는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

<표3-3>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만족도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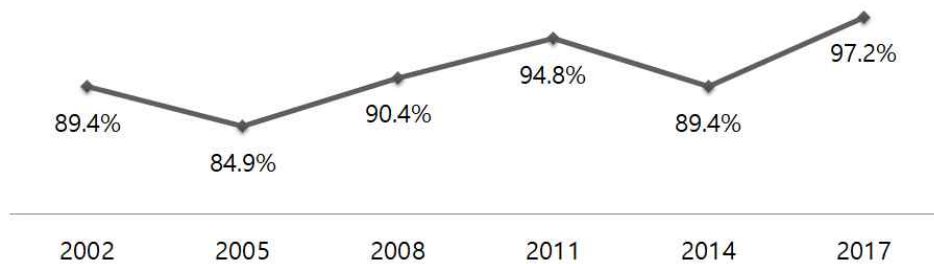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3%	2.5%	57.9%	39.2%
남자	0.7	1.5	58.5	39.3
여자	0	3.2	57.5	39.2
20대	0	1.9	66.0	32.1
30대	0	4.7	55.8	39.5
40대	1.3	2.6	65.4	32.1
50대	0	4.4	57.4	38.2
60세이상	0	1.3	46.8	51.9
중졸이하	0	0	44.7	55.3
고졸	0	3.1	60.3	36.6
대재이상	0.7	2.6	59.2	37.5
199만원이하	0	9.1	31.5	59.3
200-299만원	0	0	58.0	42.0
300-399만원	0	1.5	61.8	36.7
400-499만원	0	3.6	60.8	35.6
500만원이상	1.1	2.1	59.0	37.9
전문/자유직	0	14.3	14.3	71.4
관리직	0	0	0	100
반전문/기술직	0	0	44.4	55.6
사무직	1.6	1.6	64.5	32.3
자영업	0	1.6	54.7	43.7
판매직	0	0	73.1	26.9
서비스직	0	0	60.0	40.0
생산직	0	10.0	90.0	0
농어민	0	0	30.0	70.0
전업주부	0	5.9	53.5	40.6
학생	0	0	66.7	33.3
미취업	0	0	57.1	42.9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다 2017년에 최고로 치솟는 추이를 볼 수 있다. 물론 ‘매우 만족’만을 비교하면 2011년이 43.8%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림3-3>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비교 : 2002-2017



<표3-4>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2002-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매우 만족	39.2	31.6%	43.8%	42.2%	33.5%	35.6%
약간 만족	57.9	57.8	51.0	48.2	51.4	53.8
그저그렇다	-	-	-	8.3	10.9	-
약간불만족	2.5	8.0	3.7	1.3	3.9	10.1
매우불만족	0.3	0.6	0.3	-	0.3	0.4

3.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1)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는 그간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사해왔지만,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들만 조사되었고 2014년 조사부터는 자원봉사활동 과정별로 여러 항목들을 설계해 실시하였다.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요인들을 분석해 자원봉사 관리에 참고하고 있어, 2014년 조사에 영국과 캐나다 조사항목들을 참고하였다(CLG 2010; Volunteering Canada 2010).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조사 설계는 먼저 자원봉사활동 시작부터 활동 과정과 활동 결과로 구분해, 각각 3-4개의 주요 이슈들을 설문으로 물었다.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시작단계부터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응답이 32.4%로 2014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시작단계 중 가장 높은 불만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부터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중고생들의 반강제적 봉사활동과는 무관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이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직장인들도 단체 봉사활동에 다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활동 시작단계에서 제기된 문제 중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10.3%)는 2014년(18%)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단골 불만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활동 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의 불만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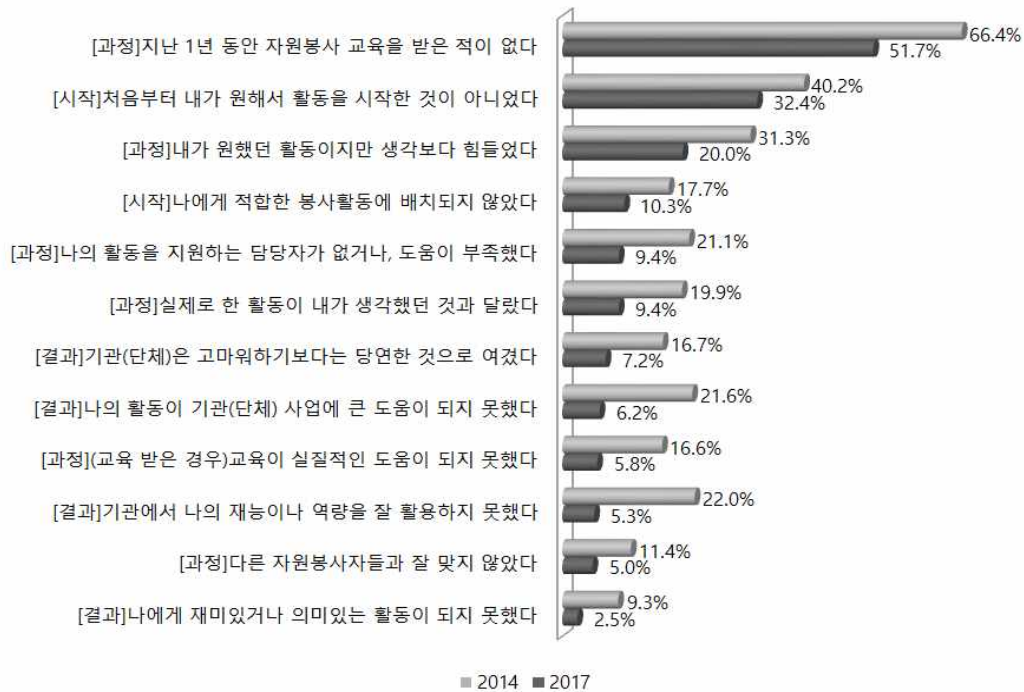
- 내가 원했던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20%)
- 나의 과정을 지원하는 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 되지 않았다(9.4%)
- 실제로 한 활동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9.4%) 등이다.

그리고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도 2014년에 비하면 크게 개선되었지만 다음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기관에서 나의 재능이나 역량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5.3%)
- 나의 활동이 기관(단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6.2%) 등이다.

끝으로, 자원봉사 교육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원봉사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례가 2014년 66%에 이어 2017년에도 51.7%에 달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2014년 17%에서 2017년 5.8%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3-4>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활동시작부터 결과까지) : 2014, 201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자원봉사활동의 불만 요인들 중 다섯 가지 주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다”가 남여 고루, 30대와 40대, 그리고 대재 이상 고학력층에서 많은 것은 직장의 사회봉사의 문제로 보여진다.

- “원했던 활동이었지만 힘들었다”고 답한 자원봉사자 중에는 연령으로 50대, 교육수준으로는 저학력층, 소득수준에서는 월200-299만원의 중저소득층, 그리고 직업에서는 반전문 기술직과 학생이 가장 많았다.

- “내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자원봉사자 중에는 남녀 차이는 없고, 연령에서는 40대와 60대 이상, 저학력층이 높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이 다소 높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 지난 1년 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비교적 심각한 계층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40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3-5> 자원봉사활동 주요 불만족 이유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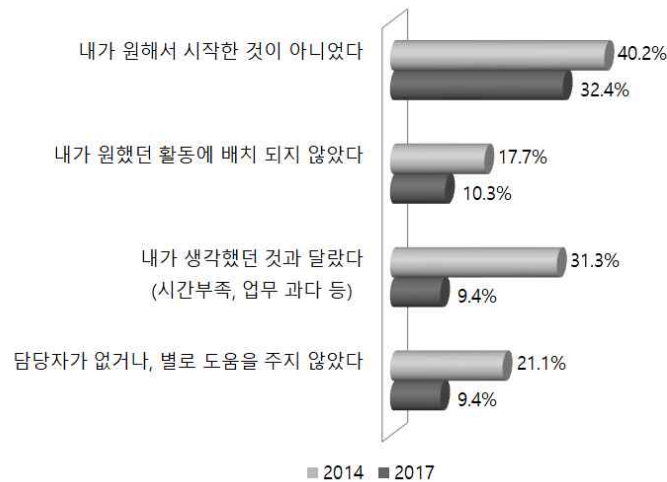
구 분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다	원했던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내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활동과 달랐다	담당자가 없거나 도움이 부족했다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교육을 못받았다
전체	32.4%	20.0%	10.3%	9.4%	9.4%	51.7%
남자	33.3	21.5	10.4	8.9	10.4	50.4
여자	31.7	18.9	10.2	9.7	8.6	52.7
20대	28.3	22.6	3.8	11.3	7.5	47.2
30대	41.8	23.5	4.7	16.4	9.4	46.7
40대	41.0	14.1	16.7	10.3	17.9	56.4
50대	25.0	26.5	4.4	8.8	8.8	52.9
60세이상	27.9	16.5	16.5	3.8	2.5	51.9
중졸이하	34.2	21.2	21.1	8.0	10.6	52.7
고졸	31.4	20.7	11.5	10.7	8.4	54.2
대재이상	32.9	19.1	6.6	8.5	9.9	49.4
199만원이하	45.2	22.8	9.1	4.6	4.6	49.8
200-299만원	22.0	28.0	24.0	14.0	14.0	47.9
300-399만원	33.9	14.8	7.4	8.8	7.4	56.1
400-499만원	38.2	22.7	6.0	12.0	7.2	60.7
500만원이상	28.4	16.9	9.5	6.3	10.5	42.1
전문/자유직	14.3	28.6	0.0	14.3	14.3	42.9
관리직	50.0	0.0	50.0	0.0	0.0	0.0
반전문/기술직	55.6	33.3	0.0	11.1	11.1	55.6
사무직	35.5	16.2	9.7	11.3	14.6	58.1
자영업	36.0	20.3	12.5	10.9	6.2	50.0
판매직	27.3	18.4	9.3	18.4	4.6	41.0
서비스직	31.5	20.1	11.4	5.7	14.3	57.2
생산직	50.0	20.0	10.0	0.0	10.0	70.0
농어민	20.0	10.0	30.0	0.0	0.0	50.0
전업주부	30.4	19.0	8.7	10.2	7.3	50.7
학생	16.7	29.2	8.3	4.2	8.3	41.7
미취업	42.9	28.6	0.0	0.0	14.3	57.1

* 중복응답임

3)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자원봉사활동의 불만 요인들은 2002년 조사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간 여러 차례 조사 항목들이 바뀌면서 일관된 시계열 비교는 어렵지만 일부 항목들에 대해 간단한 시계열 비교를 참고해볼 수 있다.

<그림3-5>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 2014, 2017



(1) 2011년 조사

2011년에도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불만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인데, 이 항목은 2014년 조사에서는 다섯 번째로 우선순위가 밀려난다. 다른 세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2,3,4위 우선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표3-6>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 : 2011

구 분	2011
처음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3.3%
실제로 한 자원봉사활동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시간부족, 업무 과다 등)	25.0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6.7
내가 원했던 자원봉사활동에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8.3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의 사명과 사업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8.3

(2) 2002-2008년 조사

자원봉사활동의 불만 요인들에 대해 2002-2008년 조사에서는 <표3-7>과 같이 네 가지 항목들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상이했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는데, 이는 2014년에는 5번째로 중요한 요

인이며 또 그 비중도 2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부터 새로 추가한 항목인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면서 불만 요인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표3-7>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 : 2002-2008

구 분	2008	2005	2002
생각했던 것과 상이(시간부족, 업무과다 등)	42.1%	52.0%	42.3%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	18.4	24.0	11.5
구체적 설명 부재(기초교육, 재교육 등)	10.5	8.0	11.5
활동기관(단체)과의 기본적인 의견 차이	10.5	18.0	15.4

(3) 자원봉사 교육 불만 : 2005-2017년

자원봉사 교육은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준비과정이지만 자원봉사자 중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된다. 2017년에는 2005-201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표3-8> 자원봉사교육 경험 : 2005-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없 다	51.7%	66.4%	78.0%	69.1%	78.9%
있 다	48.3	33.6	22.0	30.9	21.1

자원봉사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2005-2017년 기간 시계열로 비교해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2005, 2008, 2011년 지속적으로 90% 이상이던 수준이 2014년 83%에서 2017년 다시 94%로 최고에 달했다.

<표3-9> 자원봉사교육의 도움 정도 : 2005-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매우 도움	94.2	83.4%	45.0%	43.9%	41.4%
약간 도움			51.0	47.2	48.6
그저 그렇다	-	-	-	4.9	8.6
별로 도움안됨	5.8	16.6	4.0	1.6	1.4
전혀 도움안됨			-	0.8	-

4)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비교

한편 자원봉사 활동기관별로 불만족 이유 12가지를 비교해보면, 항목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항목별로 불만족이 가장 높은 활동기관으로는,

-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관공서,
- 적합한 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불만은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
- 자원봉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불만은 지역사회 현장,
- 자원봉사교육을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됐다는 불만은 보건의료기관,
- 내가 생각했던 활동이 아니었다는 불만은 사회복지기관과 관공서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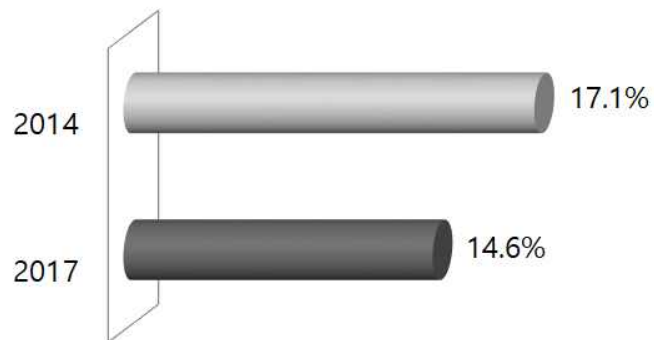
<표3-10>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불만요인

	보건 의료 기관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사회 복지	공익 시민 단체	지역 사회 현장	관공 서
1. 내가 원해서 시작한게 아님	40%	37%	33%	30%	13%	36%	47%
2. 적합한 활동에 배치 안됨	7	13	8	13	4	0	10
3. 자원봉사자 교육을 안받음	47	43	54	49	52	73	37
4. 교육이 도움되지 않음	12	6	7	7	0	0	0
5. 내가 생각했던 활동이 아님	7	7	7	13	8	0	13
6. 생각보다 힘든 활동이었음	33	27	21	16	17	9	20
7. 담당자가 도움이 안됨	7	7	12	11	13	0	7
8. 다른 봉사자와 맞지 않음	7	3	7	1	9	9	3
9. 기관이 고마워하지 않음	7	7	8	7	13	0	10
10.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음	0	10	4	6	9	9	3
11. 내 재능과 역량 활용 못함	7	13	5	1	9	0	7
12. 재미도 의미도 없었음	7	7	2	1	0	0	3

5) 자원봉사활동의 중단경험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했거나 더 많이 하지 못한 경험은 14.6%로 2014년 17%, 2011년 23%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림3-6> 자원봉사활동 중단 경험이 있다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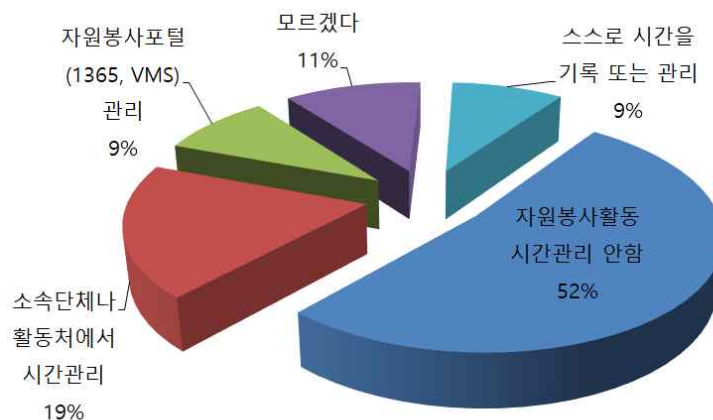
Ⅳ.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인센티브

1. 자원봉사 시간관리

1) 활동 시간관리를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더 많다

자원봉사활동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시간 관리를 안한다는 사람이 2017년 52%로, 2014년 48%보다 늘었고, 시간관리를 하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관리한다는 사람은 9.3%로 2014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자원봉사활동처, 소속단체, 포털에서 관리한다 27.7%로 2014년과 같은 수준이다.

<그림4-1> 자원봉사활동 시간 기록 및 관리 : 2017



자신이 아닌 다른 곳, 즉 활동처, 소속단체, 포털에서 시간관리를 한다는 27.7%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활동처나 소속단체가 66.3%로 가장 많고, 1365, VMS 등의 자원봉사 포털이 31.5%로 2014년에 비해 25% 가량 줄었다. 전체 100% 비중으로 추산하면, 자원봉사 포털이 8.7% ($27.7\% \times 31.5\%$), 활동처나 소속단체는 18.6% ($27.7\% \times 66.3\%$)이다.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별 비교

시간관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개인특성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관리는 직장이나 대학 등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4-1>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구 분	활동시간 관리 안한다	활동처/소속단체/ 포털에서 관리	스스로 활동시간 관리
전체	52.0%	27.7%	9.3%
남자	51.9	28.1	8.9
여자	52.1	27.4	9.7
20대	47.2	35.8	11.3
30대	48.9	30.1	6.9
40대	47.4	33.3	11.5
50대	52.9	22.1	11.8
60세이상	60.6	20.3	5.1
중졸이하	55.0	21.1	2.6
고졸	57.2	23.7	9.2
대재이상	46.7	32.9	11.2
199만원미만	72.6	18.3	0.0
200-299만원	52.1	28.0	10.0
300-399만원	60.2	20.6	7.4
400-499만원	49.9	32.2	7.1
500만원이상	44.2	31.5	13.7
전문/자유직	57.1	14.3	14.3
관리직	50.0	50.0	0.0
반전문/기술직	22.2	77.8	0.0
사무직	50.0	25.8	9.7
자영업	48.5	25.0	12.5
판매직	59.0	31.9	9.1
서비스직	60.0	20.0	8.6
생산직	60.0	10.0	10.0
농어민	60.0	0.0	10.0
전업주부	54.9	27.6	8.7
학생	29.2	58.3	8.3
미취업	100.0	0.0	0.0

- 성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시간관리를 안하는 편이며,
- 연령에서는 20대(주로 대학생)가 시간관리를 하는 편이고, 60대 이상은 비교적 시간관리를 하지 않는다.
-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이 시간관리를 비교적 잘 하지만, 시간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 한편 자원봉사 포털에서 시간관리를 받는 자원봉사자 중에는 20대, 대재이상의 고학력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2. 자원봉사자 인정

1) 자원봉사자 인정 경험

(1) 인정 유형별 경험 : 2017년

자원봉사자 인정은 201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설계되어 조사되었다.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전국의 자원봉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정과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인정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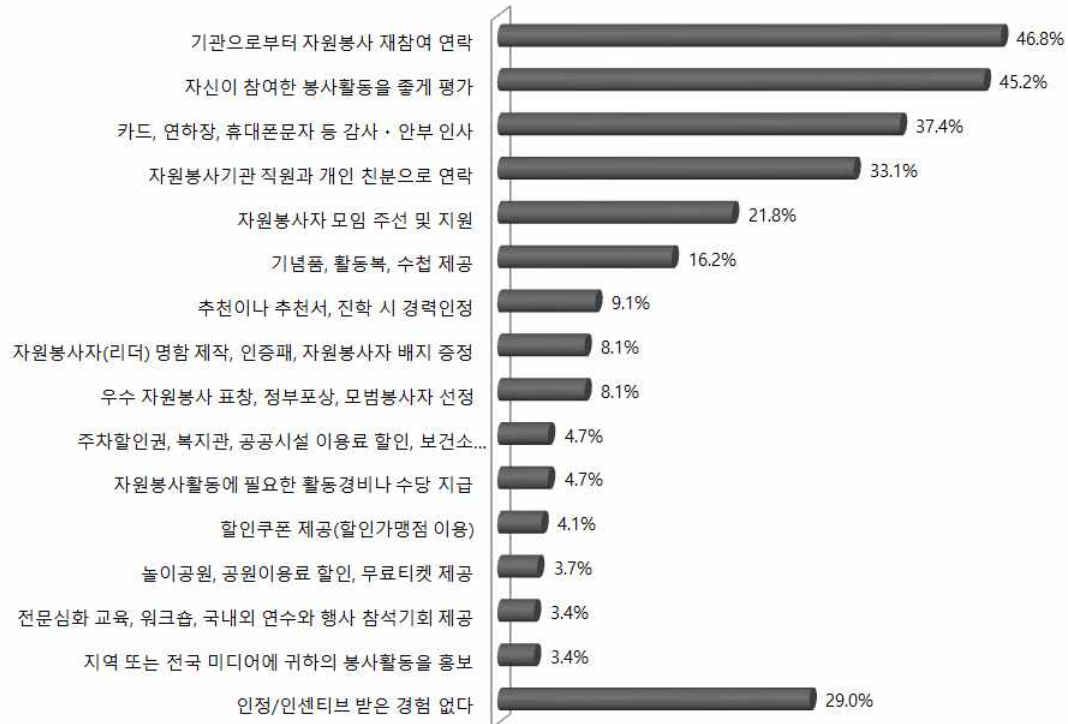
자원봉사자 인정에 관한 기초 자료의 확보 차원에서 자원봉사 실태뿐 아니라 다양한 인정방안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국민의 의식을 수렴해 자원봉사 진흥정책에 반영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자원봉사자 인정 실태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중 활동의 인정이나 인센티브 ‘경험이 없다’는 자원봉사자가 29%에 달한다.

자원봉사자 인정의 유형을 공식적 인정, 비공식적 인정, 인센티브로 세 분류해 보면(주성수 2013, 2016), 가장 많은 인정은 공식적 인정보다는 비공식적 인정이다. 1) 카드, 연하장, 휴대폰문자 등 감사나 안부 인사, 2) 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 재참여 연락, 3) 자신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좋게 평가 등이다.

<그림4-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인센티브 15개 유형 가운데, 물질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경험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3년 전 201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발전의 중요한 지표항목이 된다. 물질적 인센티브 중 주차할인권, 복지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이 가장 많은 4.7%(2014년 6.5%)에 불과하며, 할인가맹점 할인쿠폰 제공 4.1%(2014년 5.4%), 놀이공원, 공원이용료 할인 3.7%(2014년 5.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필요한 경비나 수당 지급 경험자는 4.7%로, 2014년 3.9%에 비해 조금 늘었다.

<그림4-2>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인정을 받은 경험 : 201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다양한 인정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정방안에 대해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기관에서 자원봉사 재참여 연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신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좋게 평가하면 상당한 인정방안이 된다.
- 카드, 연하장, 휴대폰 문자 등 감사안부를 전하는 비공식적인 인정은 남녀, 연령, 학력, 소득 구분 없이 많은 계층들이 고루 경험한 인정 사례이다.
-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상급학교 진학시 경력 인정 등은 청년층에서 일반적인 인정 방안으로 정착되어 있다.
-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인센티브는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경험한 인정 사례가 된다.

<표4-2> 자원봉사활동 인정 경험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구 분	기관에서 자원봉사 재참여 연락	자신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좋게 평가	카드, 휴대폰문자 감사·안부 인사	자원봉사기 관 직원과 친분으로 연락	자원봉사자 모임 주선 및 지원
전체	46.8%	45.2%	37.4%	33.1%	21.8%
남자	45.2	48.1	36.3	35.6	23.7
여자	47.9	43.1	38.2	31.3	20.5
20대	45.3	41.5	34.0	24.5	15.1
30대	41.9	53.5	37.2	35.0	18.7
40대	50.0	41.0	42.3	37.2	28.2
50대	51.5	50.0	39.7	32.4	25.0
60세이상	43.1	43.1	33.1	34.3	19.1
중졸이하	31.5	34.2	23.8	31.7	23.8
고졸	48.1	45.1	35.9	35.2	23.7
대재이상	49.3	48.0	42.1	31.6	19.7
199만원이하	49.8	54.4	32.0	45.6	13.7
200-299만원	40.0	44.0	38.0	32.0	22.0
300-399만원	45.7	42.8	33.9	28.0	19.2
400-499만원	50.1	40.6	35.8	29.8	23.8
500만원이상	47.4	48.4	41.0	36.8	22.1
전문/자유직	85.7	85.7	100.0	71.4	28.6
관리직	50.0	100.0	50.0	50.0	0.0
반전문/기술직	55.6	66.7	44.4	55.6	33.3
사무직	51.6	48.4	40.3	29.0	17.7
자영업	51.6	46.9	39.0	45.3	32.8
판매직	50.1	50.3	31.9	41.2	36.6
서비스직	37.1	37.2	34.3	34.3	17.2
생산직	30.0	30.0	40.0	20.0	0.0
농어민	0.0	0.0	0.0	10.0	10.0
전업주부	52.2	42.1	37.8	27.7	17.5
학생	33.3	45.8	25.0	12.5	20.8
미취업	28.6	57.1	42.9	28.6	14.3

3) 활동기관별 인정과 인센티브 경험

한편 활동기관별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정과 인센티브 경험 15가지 여부를 비교해보면 다소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기관과 관공서가 다른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인정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활동비나 수당 제공은 예측대로 관공서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15가지 다양한 경험별로 가장 적극적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문자 등 감사 인사는 보건의료기관,
- 자원봉사 재참여 연락은 공익시민단체,
- 자신의 활동을 좋게 평가하는 인정은 지역사회 현장,
- 기념품, 수첩 등 제공은 교육기관 등으로 나타난다.

<표4-3> 활동기관별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인센티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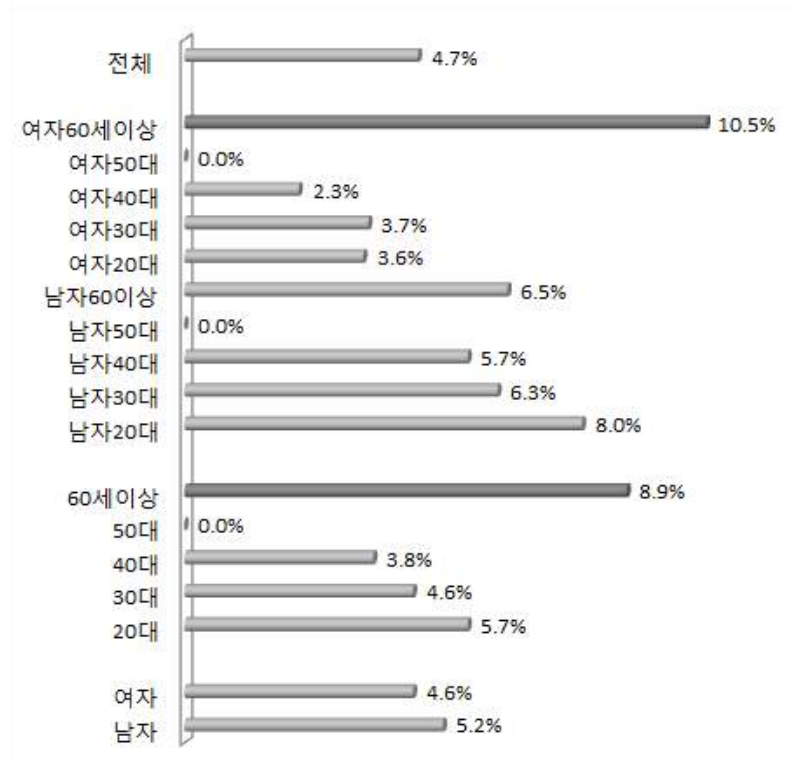
	보건의료 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사회복지	공익시민 단체	지역사회 현장	관공서
1. 문자 등 감사인사	60%	33%	41%	34%	39%	27%	37%
2. 자원봉사 재참여 연락	53	50	53	41	56	27	50
3. 자신의 활동 을 좋게 평가	53	53	47	37	52	54	53
4. 기념품, 수첩 등 제공	7	23	9	17	22	9	7
5. 기관 직원과 개인 친분 연락	47	23	36	29	30	27	43
6. 자원봉사자 모임 주선	27	10	21	23	26	9	43
7. 주차, 이용료 할인	20	13	2	5	0	0	7
8. 할인 쿠폰 제공	13	3	2	5	9	9	0
9. 놀이공원 이 용료, 쿠폰제공	7	3	5	4	0	9	0
10. 활동경비나 수당 제공	7	7	2	6	4	0	13
11. 우수봉사 표창	0	10	5	6	17	18	10
12. 명함제작, 인증패	0	10	2	12	9	0	17
13.추천서, 경력 인정서	20	20	6	8	0	0	17
14. 전문교육, 워크숍 참석	0	7	1	4	4	0	7
15. 미디어 활용 홍보	7	3	0	4	4	9	7

4) 활동비나 수당을 받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중 4.7%만이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적은 수이지만, 자원봉사 활동에서 수당 지급 문제는 심각한 사회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남녀 차이는 크지 않다.
- 6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여성 60대 이상이 1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남자 20대가 남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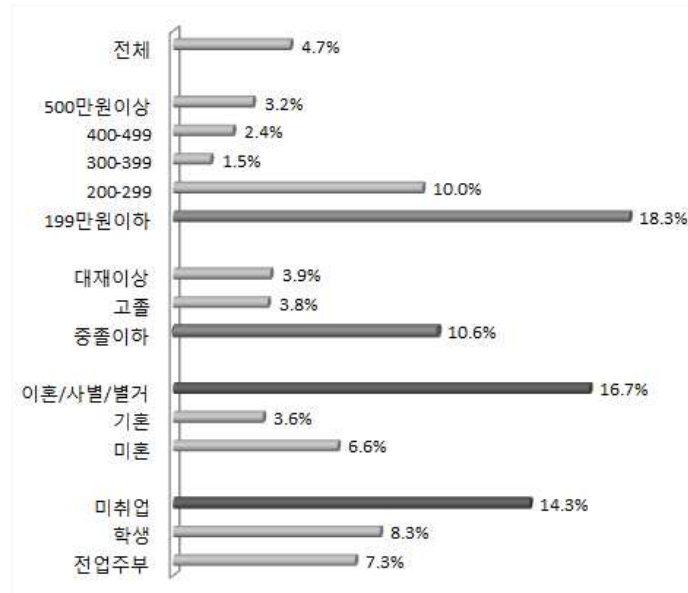
<그림4-3>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은 자원봉사자 : 남녀, 성·연령 비교



나아가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평균의 두 배가 넘고,
- 독신으로 이혼/사별/별거 상태가
- 미취업 상태로 은퇴자, 실업자 등이다.

<그림4-4>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은 자원봉사자 : 소득, 학력, 혼인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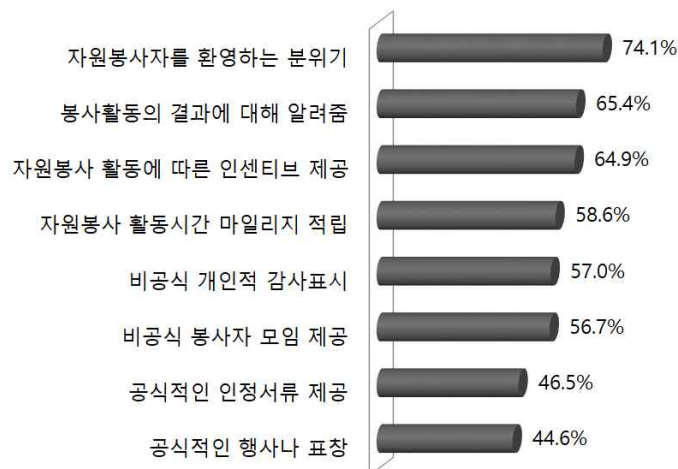


5) 자원봉사활동 인정유형별 중요성

자원봉사자 인정유형별로 자원봉사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공식적 인정보다는 비공식적 인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공식적 축하, 행사, 그리고 인정서류 제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 비공식적인 개인적 감사표시, 봉사자 모임 제공,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그림4-5> 자원봉사자 인정 유형에 대한 자원봉사자 선호도 : 2017



<표4-4> 자원봉사자 인정 유형에 대한 자원봉사자 개인특성별 선호도 차이

구 분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	봉사활동 결과 정보제공	비공식 봉사모임 조직	공식적 인정서류 제공	비공식 개인적 감사표시	공식적 축하, 행사
전체	74.1%	65.4%	56.7%	46.5%	57.0%	44.6%
남자	69.6	64.4	56.3	45.2	59.3	42.2
여자	77.4	66.1	57.0	47.4	55.3	46.3
20대	75.5	73.6	49.1	60.4	52.8	56.6
30대	67.5	65.3	58.3	51.2	55.8	44.3
40대	74.4	64.1	66.7	43.6	59.0	41.0
50대	72.1	66.2	57.4	39.7	54.4	44.1
60세 이상	78.4	60.7	50.6	43.1	60.7	40.5
중졸이하	73.6	57.7	52.7	42.1	63.0	39.5
고졸	77.1	63.4	54.2	42.0	57.3	40.4
대재이상	71.7	69.1	59.9	51.3	55.2	49.4
199만원이하	58.9	63.5	40.7	41.1	45.2	32.0
200-299만원	74.0	62.0	44.1	44.0	56.1	34.0
300-399만원	75.0	67.7	52.9	47.1	64.6	45.5
400-499만원	73.8	65.5	69.2	52.5	59.6	47.7
500만원이상	76.8	65.3	57.9	43.1	51.5	48.4
전문/자유직	71.4	57.1	57.1	42.9	28.6	14.3
관리직	100.0	100.0	50.0	100.0	100.0	50.0
반전문/기술직	66.7	77.8	55.6	55.6	55.6	33.3
사무직	72.6	59.7	59.7	48.4	59.6	51.6
자영업	71.9	68.8	61.0	42.2	59.3	42.2
판매직	77.2	59.0	59.4	45.2	59.0	31.5
서비스직	77.2	62.9	48.5	40.0	45.8	45.8
생산직	60.0	80.0	30.0	50.0	60.0	50.0
농어민	60.0	30.0	30.0	30.0	40.0	30.0
전업주부	73.8	62.4	63.8	46.7	63.8	47.9
학생	87.5	91.7	54.2	70.8	54.2	58.3
미취업	85.7	71.4	42.9	14.3	42.9	14.3

V.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식

2017년 전국조사는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알아보는 여러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그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대통령 선거 참여 및 대통령탄핵 관련 집회 참여 활동이 그것이다.

1. 자원봉사의 동기와 인정

1) 2017년은 ‘사명감’ 동기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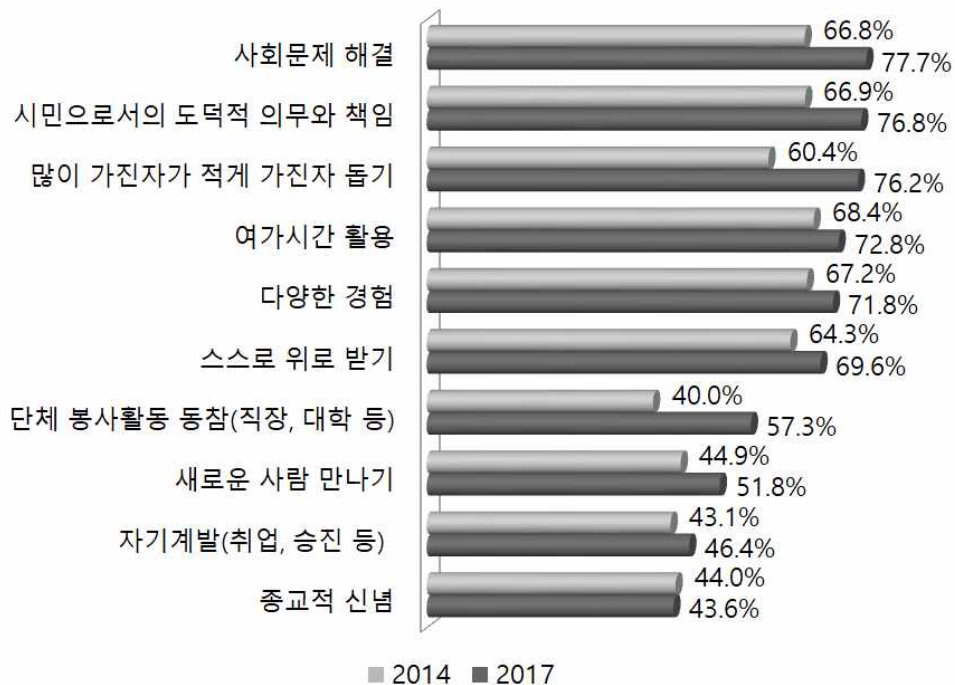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등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는 2017년에는 ‘사명감’ 동기가 다시 두드러지게 부각된 특징이 있다. 대통령 탄핵 촛불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를 비롯해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등이 나란히 1,2,3위로 올라 있다.

이상의 1,2,3위에 오른 사명감 동기들은 2011 → 2014년 감소되었다가 2014 → 2017년 다시 증가세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에 비해 ‘도구적’ 동기들은 4-5% 훨씬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11-2014년에 비교하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가시간 활용은 62% → 68% → 73%로, 다양한 경험은 64% → 67% → 72%로 늘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38% → 45% → 52%로, 자기개발도 37% → 43% → 46%로, 그리고 자기 위로 또한 54% → 64% → 70%로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그림5-1>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 2014, 2017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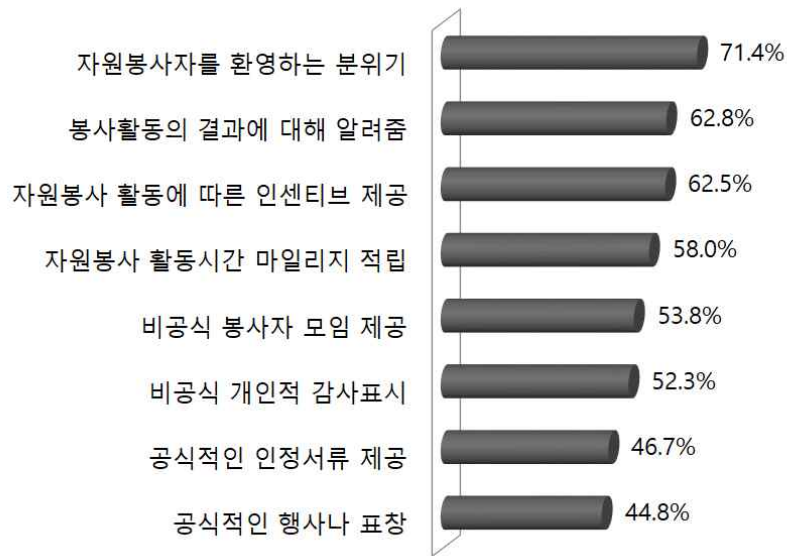
(1) 인정방안에 대한 지지

국민 대다수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인정방안 여덟 가지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인정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인식이다.

이에 비해 공식적인 행사나 표창, 인정 서류 제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식적인 인정이라는 인식도 지배적이다. 이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인정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비롯한 개인적 감사 표시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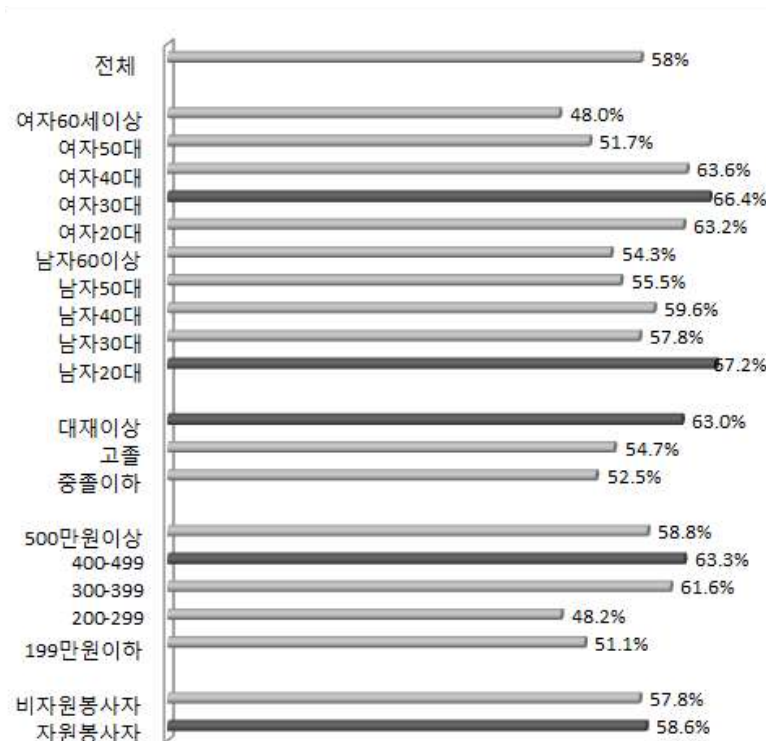
그럼에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가운데 마일리지 적립이나 인센티브 제공이 절반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5-2> 자원봉사 활동 인정 방안에 대한 지지도 : 2017



(2) 자원봉사 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

<그림5-3> 자원봉사 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 (찬성 비율)



위의 여덟 가지 인정방안 중 마일리지 적립 지지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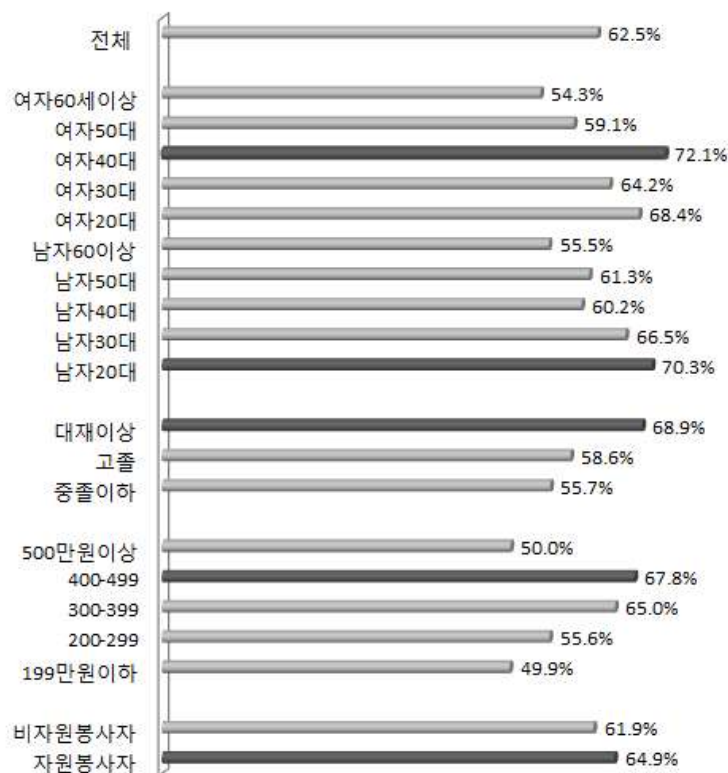
- 연령에서는 여자 30대와 남자 20대가 가장 지지적이다.
- 학력에서는 대재이상 고학력자가 적극 지지층이다.
- 소득 수준에서는 중고소득층(월400-499만원)이 가장 지지한다.
-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보다 마일리지 적립을 더 지지한다.

(3)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서도 국민 62.5%가 지지하였다.

- 여자 40대와 남자 20대가 가장 지지적이다.
- 대재이상 고학력층이 가장 지지하며,
-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더 지지한다.

<그림5-4>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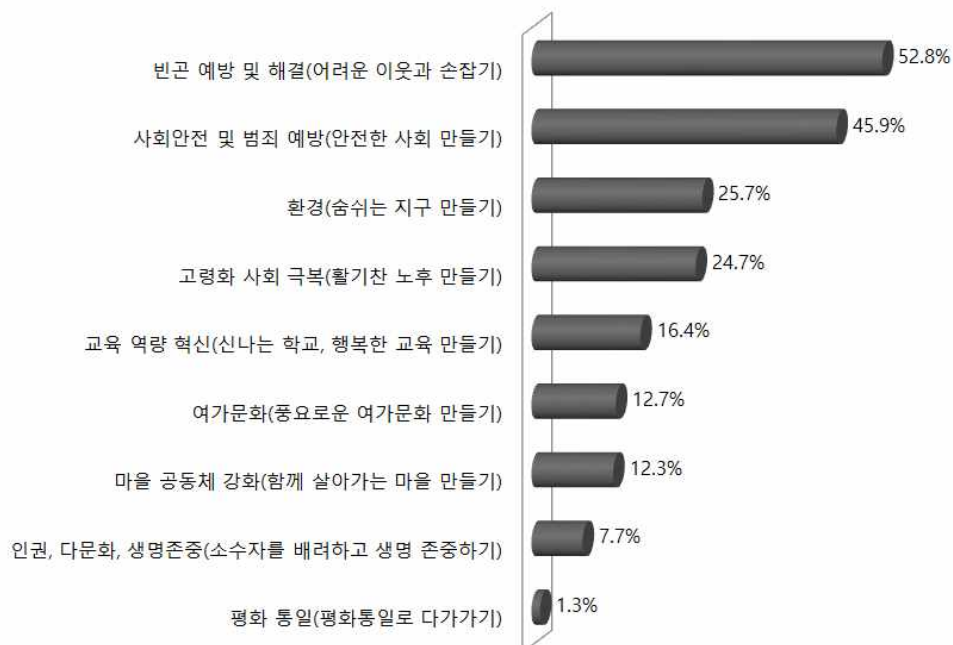
2.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이라는 근거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자원봉사로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로 사회문제의 심각성 해소에 도움을 주거나 문제의 발생에 예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찾게 된다.

1) 자원봉사로 해결할 시급한 사회이슈

이번 2017년 조사에서는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특별한 자원봉사 운동의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이슈는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물었고, 아래와 같은 답을 얻었다. 미리 제시한 9개 이슈들은 UN이 2016-2030년 기간에 글로벌 운동으로 추진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중 일부를 한국 사회의 이슈로 제시하였다.

<그림5-5>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이슈 : 2017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아홉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의견 차이가 없다. ‘환경’에 대해 비자원봉사자가 더 시급한 주요 이슈로 강조한다.

<표5-1>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사회이슈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이슈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빈곤 예방 및 해결	39.0%	36.7%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24.9	23.8
고령화사회 극복	9.7	8.4
환경	9.0	12.9
교육역량 혁신	8.7	7.6
여가문화	2.8	4.0
마을공동체 강화	3.7	3.6
인권, 다문화, 생명존중	1.9	2.5
평화통일	0.0	0.5

3)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사회이슈 전체에 대한 남녀 차이를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차이는 없다.

환경에 대한 이슈는 20대가 가장 많다.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은 30-40대가, 고령화사회 극복은 50-60대 이상에서 관심이 많다.

<표5-2> 자원봉사로 해결해야 할 사회이슈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구 분	빈곤 예방 및 해결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고령화 사회 극복
전체	37.2%	24.0%	12.1%	8.7%
남자	36.9	24.7	12.4	8.3
여자	37.5	23.4	11.8	9.0

20대	36.0	19.8	17.8	2.9
30대	33.1	26.1	10.8	4.5
40대	36.2	30.2	9.8	5.7
50대	38.8	23.0	12.8	10.2
60세이상	40.5	20.9	10.5	16.7
중졸이하	36.3	20.8	13.1	18.3
고졸	38.5	25.6	10.0	9.6
대재이상	36.0	23.5	13.9	4.8
199만원이하	42.5	19.7	10.2	18.6
200-299만원	34.7	24.5	11.8	10.2
300-399만원	38.4	24.7	11.6	7.2
400-499만원	38.2	26.1	12.6	6.8
500만원이상	34.0	23.0	13.4	6.0
전문/자유직	38.5	15.4	30.8	7.7
관리직	50.2	16.6	0.0	0.0
반전문/기술직	48.5	18.2	9.1	6.1
사무직	34.3	23.8	17.0	3.5
자영업	40.6	25.3	10.0	9.1
판매직	37.3	25.2	11.6	10.2
서비스직	39.1	25.5	14.6	7.8
생산직	24.3	37.8	8.1	12.2
농어민	35.0	26.0	13.0	8.7
전업주부	34.9	22.6	9.2	12.5
학생	43.8	15.0	15.0	2.5
미취업	36.8	17.5	5.3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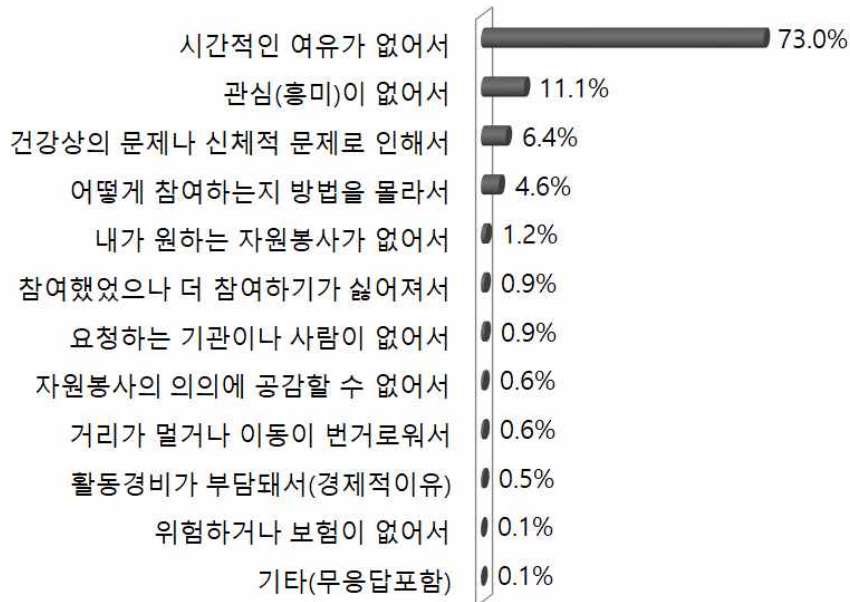
3. 비자원봉사자의 특성과 참여 의향

1) 자원봉사 불참 요인

(1) 2017년의 특징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비자원봉사자의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관심(흥미)이 없어서’, ‘건강 문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몰라서’ 등의 순서이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는 2014년(61.2%)에 비해 12% 더 늘어난 중요 이유로 꼽힌다.

<그림5-6>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2017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네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한 비자원봉사자의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간이 없어서’ 안했다는 사람 중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다. 또 연령별로는 직장생활에 바쁜 30대와 40대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고, 대졸 이상의 학력과 월수입 300만원 이상의 중고소득층에서 많은 편이다.

- ‘관심이 없어서’ 안했다는 사람 중에는 역시 여성보다 남성, 연령은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많다. 또 저학력층과 고소득층이 많은 편이다.

- ‘방법을 몰라서’ 안했다는 사람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또 40대와 저학력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전업주부와 미취업자, 학생 중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안했다는 사람 중에는 여성이, 60세 이상 노인층이 많은 편이고, 특히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이 훨씬 많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

<표5-3> 자원봉사 불참 이유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구 분	시간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건강상 문제로
전체	73.0%	11.1%	4.6%	6.4%
남자	74.3	12.3	3.8	4.1
여자	71.7	9.8	5.4	8.8
20대	73.0	14.8	4.2	1.1
30대	83.7	10.1	2.7	0.0
40대	80.6	7.2	6.8	0.8
50대	75.8	9.7	4.2	6.4
60세이상	56.5	13.7	4.8	19.2
중졸이하	48.3	11.7	6.5	30.8
고졸	75.1	12.0	3.6	4.4
대재이상	78.8	9.9	5.1	0.6
199만원미만	56.7	10.8	3.8	24.7
200-299만원	64.6	15.9	5.6	7.7
300-399만원	77.2	10.3	3.4	4.7
400-499만원	80.2	7.1	6.0	1.5
500만원이상	76.7	12.9	4.2	1.3
전문/자유직	100.0	0.0	0.0	0.0
관리직	100.0	0.0	0.0	0.0
반전문/기술직	70.9	16.6	4.2	4.2
사무직	81.4	8.7	4.1	0.5
자영업	82.8	8.1	4.3	3.2
판매직	80.9	11.9	1.6	2.4
서비스직	76.4	10.2	3.8	3.2
생산직	82.8	9.4	3.1	0.0
농어민	46.5	38.2	0.0	15.3
전업주부	55.4	12.7	7.3	18.2
학생	62.5	23.2	7.1	0.0
미취업	30.0	12.0	8.0	36.0

(3) 1999-2014년 시계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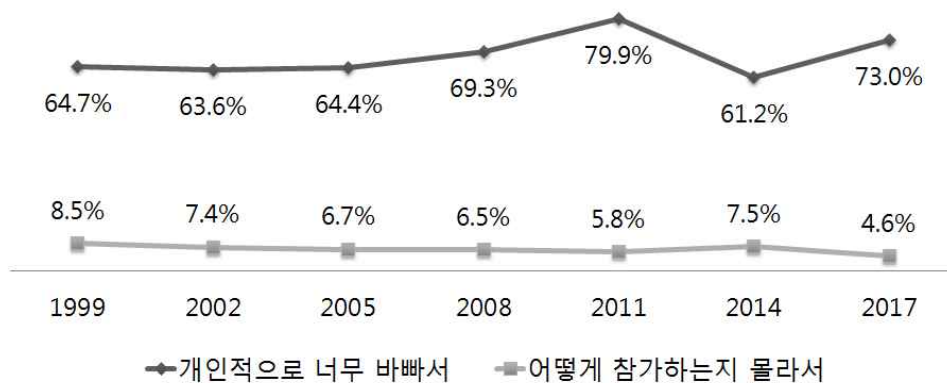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줄곧 조사되었는데, 조사시기별로 문항별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2014년에 새로 추가된 ‘관심(흥미)이 없어서’ 문항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지만, 2011년까지 없었고 대신 ‘흥미가 없어서’ 문항이 있었다.

아래의 <표5-4>를 살펴보면, 여전히 ‘시간이 없어서’는 줄곧 제1의 주요요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건강상 문제로’와 ‘어떻게 참가하지는 몰라서’

문항들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 내가 원하는 자원봉사가 없어서, 자원봉사에 공감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들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이유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추세이다.

<그림5-7>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비교 : 1999-2017



<표5-4>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999-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73.0%	61.2%	79.9%	69.3%	64.4%	63.6%	64.7%
흥미가 없어서	11.1	14.8	-	5.8	5.7	5.1	5.1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4.6	7.5	5.8	6.5	6.7	7.4	8.5
건강상/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6.4	5.1	6.1	7.1	6.8	6.3	5.9
봉사활동 의의를 공감하지 못함	0.6	2.4	0.8	2.5	1.5	2.2	2.4
내가 원하는 자원봉사가 없어서	1.2	2.4	1.7	-	-	-	-
경제적 이유(활동경비가 부담돼서)	0.5	2	2	-	0.2	2	2.6
교통수단이 없어서	0.6	1.9	1.8	0.3	0.2	0.1	0.1
참여했으나 더 참여하기가 싫어져서	0.9	1.2	-	-	-	-	-
요청하는 기관/사람이 없어서	0.9	1	0.8	1.5	0.5	3.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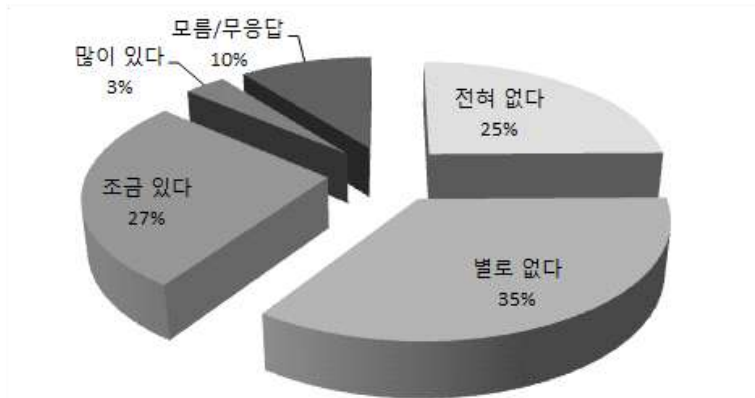
2) 비자원봉사자의 참여 의향

(1) 2014년과 2017년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의사는 적지 않다. 참여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30%이며, 그 중 많이 있다는 사람은 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참여의향이 없다는 비자원봉사자가 다수 60%를 차지한다.

<그림5-8>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 : 2017



(2) 1999-2017년 시계열 비교

2017년 참여의향이 있다는 비자원봉사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 자원봉사의 전망을 어둡게 해준다. 2011년과 2014년에 비교하면 4-5% 가량 줄었다.

참고로 2008년의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사람보다 ‘전혀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2005년보다 더 악화된 것이고, 2011년과 2014년의 참여 의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5-5>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 : 2011, 2014, 2017

구 분	2017	2014	2011
많이 있다	3.3%	4.0%	4.2%
조금 있다	26.8	30.1	31.5
별로 없다	34.6	35.6	29.7
전혀 없다	24.8	21.9	25.3
모르겠다/무응답	10.5	8.4	9.3

(3)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2017년 비참여자 가운데 개인별로 누가 참여 의향이 많은가?

-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강한 의향을 보여준다.

- 연령에서는 노인층이 가장 참여 의향이 낮다.
- 학력이 낮은 저학력층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참여 의향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점차 계층 간 참여 차이를 심화시키는 위험신호로 보여진다.
- 직업에서도 미취업자가 가장 참여 의향이 낮으며,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직도 낮은 편이고, 반면에 전문/자유직, 반전문/기술직 등 소득이나 지위가 비교적 높은 계층의 참여 의향이 높은 편이다.

<표5-6> 자원봉사 참여 의향 : 불참자의 개인 특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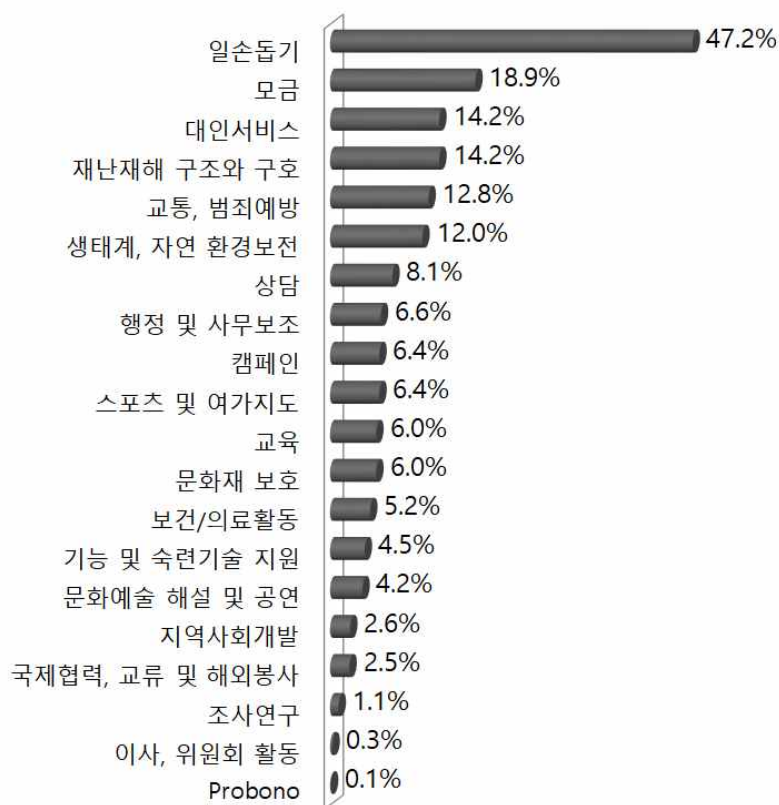
구 분	참여의향 약간 있다	참여의향 많이 있다
전체	26.8%	3.3%
남자	25.4	3.4
여자	28.3	3.2
20대	29.1	4.2
30대	28.1	1.8
40대	32.9	3.0
50대	25.8	4.7
60세 이상	20.1	3.1
중졸이하	15.6	2.7
고졸	25.5	2.9
대재이상	31.6	4.1
199만원이하	22.4	3.9
200-299만원	25.7	4.1
300-399만원	26.8	2.8
400-499만원	28.5	3.0
500만원이상	28.4	3.3
전문/자유직	33.3	16.7
관리직	75.2	0.0
반전문/기술직	25.0	20.8
사무직	31.9	2.7
자영업	24.2	3.1
판매직	27.3	2.4
서비스직	31.8	3.2
생산직	25.0	1.6
농어민	7.6	7.6
전업주부	23.5	3.0
학생	30.4	3.6
미취업	14.0	2.0

3) 비자원봉사자의 선호 프로그램

(1) 활동 프로그램별 선호도

선호 프로그램으로는 일손돕기가 제1순위에 있고, 다음으로 모금, 대인 서비스, 재난 구호 등으로 순위가 올라 있다.

<그림5-9> 비자원봉사자의 선호 프로그램별 비중 : 2017



(2) 성, 연령, 직업별 선호도

비자원봉사자의 개인 특성별 선호도는 비교적 뚜렷하다.

- 남성은 재난·구호, 교통질서와 방법·범죄예방을 선호하고, 여성은 상담, 행정보조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 모금에서는 40대와 50대, 생태계 보호/재활용에서도 40대와 50대가, 그리고 행정 보조에서는 20대와 30대가 선호하는 대조를 보여준다.

<표5-7> 선호 프로그램 : 비자원봉사자의 특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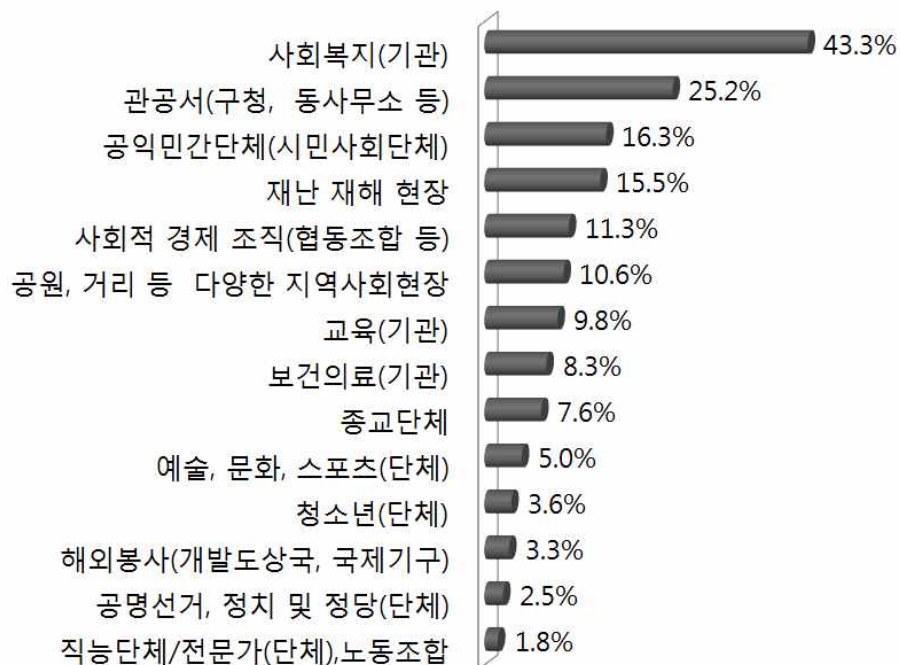
구 분	일손 돕기	모금	재난, 구호	대인 서비스	교통 질서, 범죄 예방	생태계 보호, 재활용	상담	행정 보조
전체	47.2%	18.9%	14.2%	14.2%	12.8%	12.0%	8.1%	6.6%
남자	44.3	17.7	19.4	13.1	18.9	12.6	6.4	4.8
여자	50.3	20.2	8.8	15.4	6.3	11.4	10.0	8.6
20대	36.0	16.9	12.2	13.8	4.8	10.6	7.4	10.6
30대	39.5	18.6	18.2	16.9	13.4	9.8	13.8	10.3
40대	46.8	21.1	20.3	13.1	15.6	13.9	8.9	7.2
50대	54.2	19.1	13.1	12.3	13.6	14.0	8.1	6.4
60세이상	54.8	18.5	8.6	14.9	14.7	11.6	3.8	1.0
남자 20대	35.0	11.7	13.6	14.6	6.8	7.8	5.8	5.8
남자 30대	42.1	17.3	24.9	15.7	18.3	10.8	6.5	5.0
남자 40대	42.9	20.6	25.4	15.1	22.2	15.1	7.9	5.6
남자 50대	49.6	20.5	19.7	9.4	21.3	15.0	7.9	6.3
남자 60세+	49.6	17.3	12.8	11.3	23.3	13.5	3.8	1.5
여자 20대	37.2	23.3	10.5	12.8	2.3	14.0	9.3	16.3
여자 30대	36.5	20.2	10.5	18.3	7.7	8.7	22.1	16.3
여자 40대	51.4	21.6	14.4	10.8	8.1	12.6	9.9	9.0
여자 50대	59.6	17.4	5.5	15.6	4.6	12.8	8.3	6.4
여자 60세+	59.2	19.6	5.0	18.0	7.5	10.0	3.8	0.6
전문/자유직	16.7	33.3	16.7	16.7	0.0	16.7	0.0	16.7
관리직	75.2	24.8	25.5	50.4	50.4	0.0	75.2	49.6
반전문/기술직	45.8	20.8	20.8	0.0	12.5	0.0	8.3	12.5
사무직	36.3	19.1	18.7	12.8	12.3	15.0	15.5	15.0
자영업	50.4	21.1	14.9	14.4	14.4	11.0	7.4	3.9
판매직	60.1	26.5	12.7	17.6	9.6	9.6	8.0	4.8
서비스직	50.9	22.2	12.1	14.7	14.0	12.8	3.2	1.9
생산직	48.5	14.1	31.2	11.0	34.4	15.6	3.1	4.7
농어민	69.4	0.0	15.3	22.9	15.3	15.3	0.0	0.0
전업주부	50.1	15.3	7.8	14.6	5.9	12.2	6.4	4.4
학생	35.7	10.7	8.9	12.5	1.8	8.9	5.4	12.5
미취업	30.0	10.0	8.0	16.0	22.0	12.0	10.0	2.0

4) 자원봉사 활동기관 선호도

(1) 활동기관별 선호도

활동기관별 선호도에서 사회복지 기관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관공서, 공익민간단체, 재난재해 현장이 높은 우선순위에 올랐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10% 이상의 선호를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림5-10> 비자원봉사자의 선호 기관별 비중 : 2017



(2) 성, 연령, 직업별 선호도

비자원봉사자의 개인 특성별로 활동 기관의 선호도 또한 비교적 뚜렷하다.

- 남성, 여성 모두 사회복지기관을 선호하지만, 남성은 재난현장, 지역사회현장을, 여성은 보건의료기관을 비교적 선호한다.

-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복지기관과 관공서를 대체로 선호하지만, 특히, 교육기관, 공익단체에는 30대,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50대, 교육기관에는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표5-8> 선호하는 활동기관 : 비자원봉사자의 특성별 비교

구 분	사회 복지 기관	관공서	공익 시민 단체	재난 재해 현장	사회적 경제 조직	지역 사회 현장	교육 기관	보건 의료 기관
전체	43.3%	25.2%	16.3	15.5%	11.3%	10.6%	9.8%	8.3%
남자	39.9	25.9	18.4	18.7	12.0	11.6	9.7	5.7
여자	46.9	24.5	14.0	12.1	10.5	9.5	9.8	11.0
20대	44.4	17.5	13.2	14.3	6.3	9.0	12.7	7.4
30대	43.0	23.6	19.2	16.9	12.1	9.3	12.5	7.5
40대	44.7	29.1	17.3	17.7	11.0	10.1	11.0	7.2
50대	42.4	27.1	15.3	14.4	13.6	11.4	5.5	11.0
60세이상	42.4	26.8	16.0	14.4	12.3	12.3	8.2	8.2
남자 20대	40.8	17.5	9.7	16.5	5.8	7.8	12.6	6.8
남자 30대	41.1	22.5	20.8	18.2	10.0	8.2	10.0	7.4
남자 40대	40.5	32.5	19.8	23.0	13.5	10.3	11.9	5.6
남자 50대	39.4	25.2	22.8	19.7	18.1	13.4	4.7	6.3
남자 60세+	38.3	30.1	17.3	15.8	11.3	17.3	9.8	3.0
여자 20대	48.8	17.4	17.4	11.6	7.0	10.5	12.8	8.1
여자 30대	45.1	24.9	17.3	15.4	14.4	10.6	15.4	7.7
여자 40대	49.5	25.2	14.4	11.7	8.1	9.9	9.9	9.0
여자 50대	45.9	29.4	6.4	8.3	8.3	9.2	6.4	16.5
여자 60세+	45.8	24.0	14.9	13.3	13.2	8.1	6.9	12.5
전문/자유직	50.0	16.7	0.0	33.3	0.0	0.0	33.3	0.0
관리직	24.8	49.6	75.2	25.5	0.0	25.5	0.0	24.8
반전문/기술직	49.9	20.8	16.6	16.6	8.3	12.5	20.8	4.3
사무직	41.7	26.4	20.0	16.8	11.4	10.9	13.7	7.7
자영업	44.1	23.5	13.3	15.6	15.2	10.5	8.2	8.2
판매직	47.8	24.0	15.3	17.6	11.3	7.2	10.4	5.6
서비스직	45.9	23.6	19.8	19.7	10.2	12.1	8.3	6.4
생산직	39.0	32.8	29.7	21.9	21.9	15.6	4.7	4.7
농어민	38.2	45.9	15.3	15.9	22.9	22.9	7.6	15.3
전업주부	42.1	26.1	12.2	8.8	7.9	9.3	7.3	14.1
학생	48.2	10.7	10.7	14.3	3.6	5.4	14.3	7.1
미취업	30.0	36.0	10.0	8.0	4.0	14.0	8.0	6.0

VI.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1. 한국인의 단체소속 활동

시민사회는 국가(정부)와 시장(기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삶의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기초가 된다.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을 통해, 단체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1) 공익단체의 자원봉사활동

(1) 2014년과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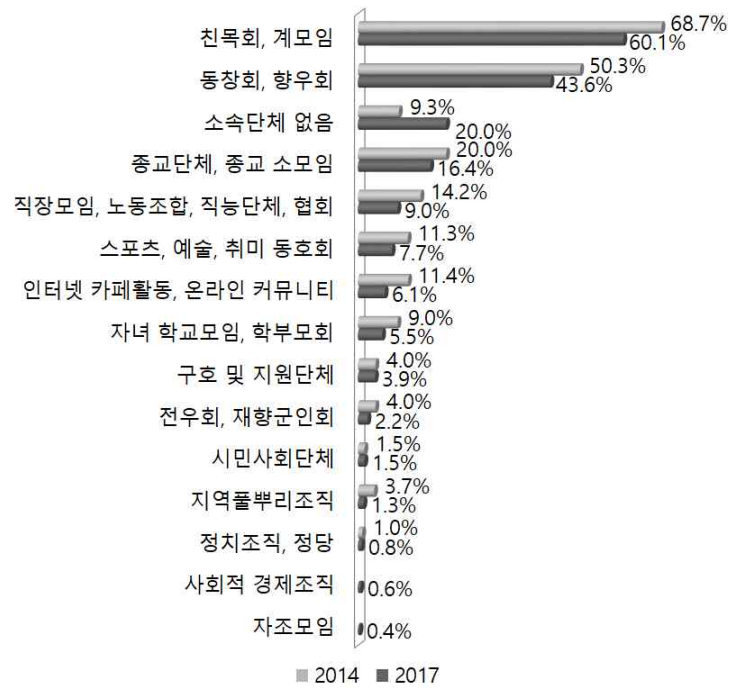
한국인의 시민사회 활동은 단체 활동 측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친목회, 동창회/향우회 등 친목과 사교 활동 그리고 종교단체와 직장을 통한 단체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반면에 자원봉사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공익단체 활동은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가 더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21% 수준에 정체된 것도 한국인의 공익단체 활동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11년, 2014년과 비교해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지역풀뿌리단체 등 공익단체의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많은 종교단체, 구호 및 지원단체 활동, 학부모회 등 학교 소모임 활동도 크게 줄었다.

단체소속이 없는 사람이 2011년 4.9% → 2014년 9.3% → 2017년 20.0%로 크게 늘었다. 단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원봉사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서 기대되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 등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쇠퇴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림6-1> 한국인의 단체소속 회원활동 : 2014, 2017



(2) 1999-2017년 비교

지난 18년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자원봉사와 밀접히 관련된 공익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단체, 구호 및 지원단체, 지역풀뿌리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에 소속된 회원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시민사회의 정체가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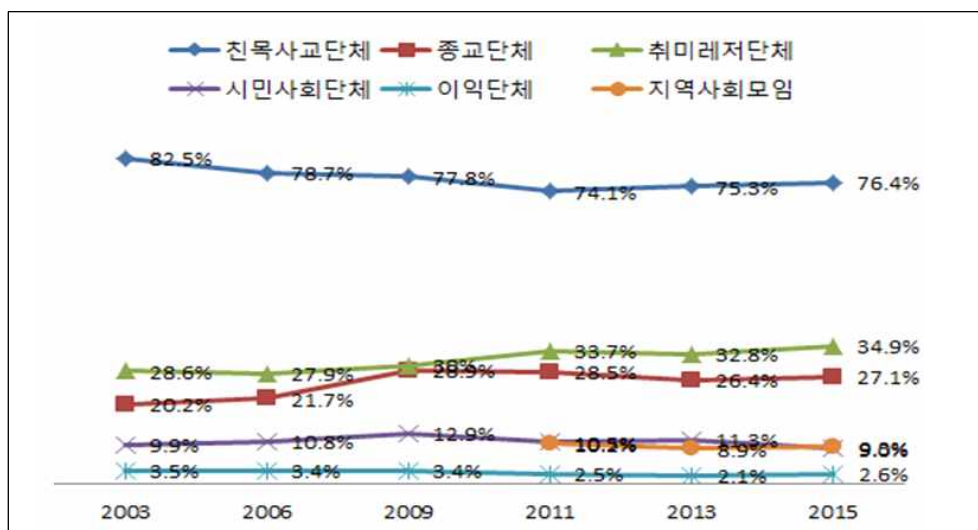
<표6-1> 한국인의 단체소속 회원활동* : 1999-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9
친목회/계모임	60.1%	68.7%	65.7%	68.1%	67.7%	64.8%	51.2%
동창회, 향우회	43.6	50.3	55.3	56.3	58.0	57.5	47.4
종교단체/종교 소모임	16.4	20.0	34.6	36.9	36.3	38.5	40.9
직장모임/노동조합/직능단체	9.0	14.2	20.6	25.1	25.1	24.3	22.8
인터넷 카페활동, 온라인커뮤니티	6.1	11.4	15.5	-	-	-	-

스포츠, 예술, 취미 동호회	7.7	11.3	19.9	30.4	28.7	26.7	22.3
소속단체 없음	20.0	9.3	4.9	-	-	-	-
자녀 학교모임, 학부모회	5.5	9.0	14.0	17.3	20.2	21.9	15.8
전우회, 재향군인회	2.2	4.0	3.1	6.5	5.4	4.5	3.7
구호 및 지원단체	3.9	4.0	18.8	20.9	11.2	41.3	35.3
지역풀뿌리조직	1.3	3.7	7.1	10.8	10.3	20.2	17.2
시민사회단체	1.5	1.5	5.5	5	5.1	8.5	5.6
국민운동단체	-	-	4.6	9.3	9.7	-	-
정치조직, 정당	0.8	1.0	3.4	5.3	2.4	4.0	3.3
자원봉사자 평균 소속 단체	12.72	14.89	19.50	20.85	20.01	22.30	18.96

* 중복응답

<그림6-2> 통계청 조사의 한국인의 단체소속 :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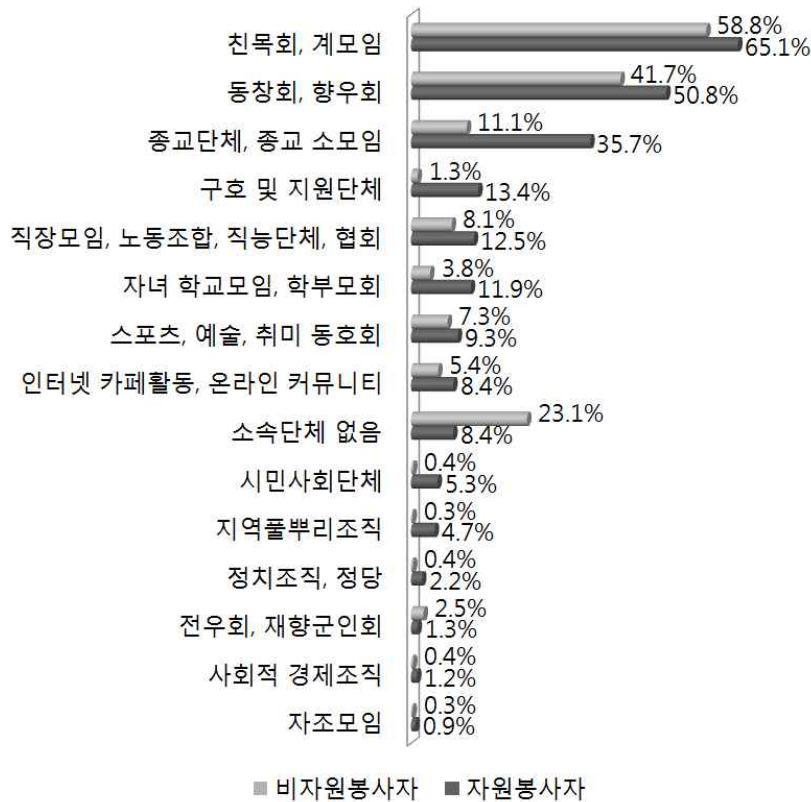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1) 공익단체 소속활동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종교단체, 구호와 지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비자원봉사자는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편

이지만 특히 공익단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그림6-3> 단체소속 참여율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 단체 활동 참여빈도

공익단체 활동을 자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대로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어도 거의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성이 많은 단체 활동에서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더 많이 참여한다는 가설이 사실인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인 구호 및 지원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역 풀뿌리 조직, 사회적 경제 단체 등 자원봉사와 직접 관련된 조직에서 한 달에 1회 이상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중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표6-2> 단체 활동 참여빈도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017

단체 유형	단체소속자 중 한 달 1회 이상 적극적 참여자 비율(%)		Chi-sq 차이검증 * 유의미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1. 구호 및 지원단체(사회복지관 및 단체, 적십자사, 순수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44.2	20.0	*
2. 각종 친목회 및 계모임	60.2	52.5	
3. 동창회(초·중·고교, 대학 등), 향우회	22.7	22.2	
4. 전우회, 재향군인회	25.0	6.9	*
5. 자녀 학교모임, 학부모회	21.1	31.1	*
6. 직장모임, 노동조합, 혹은 직능단체, 협회	57.5	46.3	
7. 시민사회단체(환경연합, 경실련, YMCA, 여성민우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52.9	40.0	*
8. 종교단체 및 종교에서 시작한 소모임	69.6	57.3	*
9. 스포츠, 예술, 취미 관련 동호회 (각종 여가 문화 모임)	63.3	61.6	
10. 지역풀뿌리조직(지역환경관련모임, 자치위원회, 공동육아 등)	66.7	25.0	*
11. 인터넷 카페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44.4	60.9	*
12.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	50.0	20.0	*
13. 자조 모임	33.3	33.3	

직장, 직능단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다소 많이 참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스포츠, 예술, 취미동호회 활동의 증대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준다. 동호회를 통한 자원봉사 기회 확대라는 밝은 측면도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이 취미활동으로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그런데 <표6-2>에서는 스포츠 등 동호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다소 많이 참여하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스포츠와 취미 동호회

활동으로 다소 확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온라인 카페 활동도 봉사활동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거나 참여를 꺼리는 부정적인 변화도 있다. <표 6-2>에서는 실제로 온라인에서 자주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적게 참여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3) 단체소속활동 :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 남성은 스포츠와 취미 동호회, 여성은 종교단체와 자녀학교모임에 활동적인 커다란 차이가 있다.
- 종교단체와 지역풀뿌리조직 활동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참여가 많다.

<표6-3> 주요 단체 참여율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종교단체	스포츠, 취미 동호회	구호 및 지원단체	자녀학교 모임	지역 풀뿌리 조직	시민사회 단체
전체	16.4%	7.7%	3.9%	5.5%	1.3%	1.5%
남자	11.3	10.1	3.8	0.9	1.3	1.5
여자	21.4	5.4	4.0	10.1	1.2	1.5
20대	11.6	6.6	4.1	0.4	0.0	0.4
30대	12.0	9.0	3.7	9.8	0.0	1.5
40대	15.6	12.1	4.8	13.0	2.2	2.2
50대	18.8	6.9	3.0	4.6	2.0	1.3
60세이상	21.5	4.6	3.8	0.3	1.6	1.6
중졸이하	17.3	3.7	2.6	0.5	2.1	3.1
고졸	16.3	5.8	2.4	5.2	1.4	1.1
대재이상	16.3	11.0	5.7	7.5	0.9	1.4
199만원미만	18.1	5.6	5.1	1.7	1.1	2.3
200-299만원	15.9	10.6	4.9	2.9	3.7	2.4
300-399만원	12.3	7.0	1.3	5.2	0.3	0.5
400-499만원	16.8	8.0	3.7	7.4	1.4	1.7
500만원이상	20.3	7.5	5.7	8.1	0.3	1.2

2.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시민참여의 유형은 다양하다. 투표와 같은 일상생활의 하나로 참여하는 활동이 있고, 대통령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에 따르는 비일상적인 참여가 있다.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참여하고, 온라인 게시판에 참여하며, 어려운 사람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미리내²⁾’에 동참한다. 개인 홀로 참여하거나 단체에 참여하거나 집단행동에 참여한다. 개인의 이해와 욕구 충족의 동기에서 참여하고, 국익이나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참여한다.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인 참여, 타인의 요청에 응하는 참여, 법을 준수하는 강제성 참여 등 시민참여는 다양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참여가 있고, 정치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참여가 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선택하는 참여,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참여,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참여, 환경단체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참여, 사회복지관의 무보수 운영위원으로 봉사하는 참여, 노숙자들의 자활공동체를 돕는 참여, 암극복을 위한 자조모임의 참여, 부모의 공동육아 참여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고 다양한 참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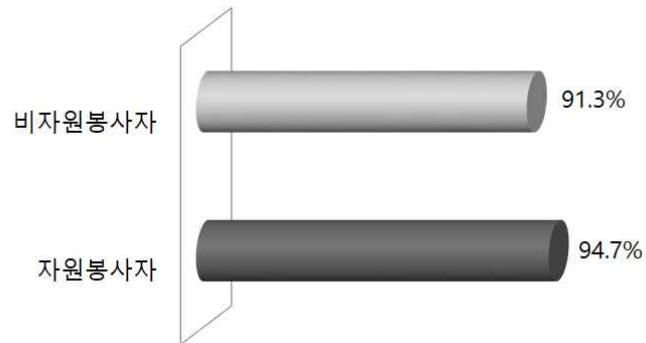
1)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이번 2017년 조사는 마침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대통령선거 참여를 설문문항에 포함시켰다. 5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자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투표참여가 높다는 다른 국가들의 분석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2) 서스펜디드 커피의 나눔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국내 나눔 실천 운동. 손님의 자발적인 기부로 남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

<그림6-4> 대통령선거 투표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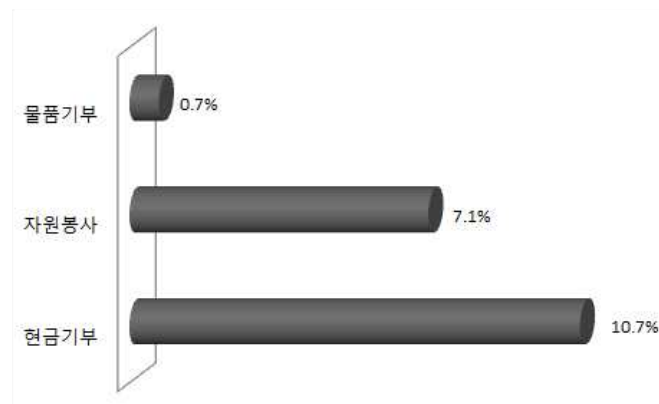


2) 대통령탄핵 집회 관련 참여활동

2016년 10월 마지막 주부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진행되었던 대통령탄핵 관련 집회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뉘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단순한 집회 참여뿐 아니라 행사준비와 진행과 마무리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한 물품이나 현금으로 기부하는 참여자가 되었다.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참여자 중 기부(현금, 물품)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현금기부가 가장 많은 10.7%, 자원봉사는 7.1%가 참여했다.

<그림6-5>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자의 기부와 자원봉사



3. 신뢰, 관용,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생산되는 가치는 소외층 보호, 환경보전 등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 등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학자들이 검증해왔다. 개인 차원에서는 민주적 시민성의 개발, 공동체 차원에서는 신뢰와 유대 등 사회자본의 축적 효과가 자원봉사의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은 “조정화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들을 의미한다.”(Putnam 1993). 여기에서 “신뢰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자본은 ‘도덕적 자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자원이며,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고갈되는 자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한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은 다른 전통적인 자본이 사적재화(private good)인 것과는 달리 공공재화(public good)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신뢰와 유대, 관용 등의 사회자본을 많이 생산해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에 대한 신뢰나 공동체 유대에 협력적이고, 또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사회나 국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나 관용 그리고 공동체 유대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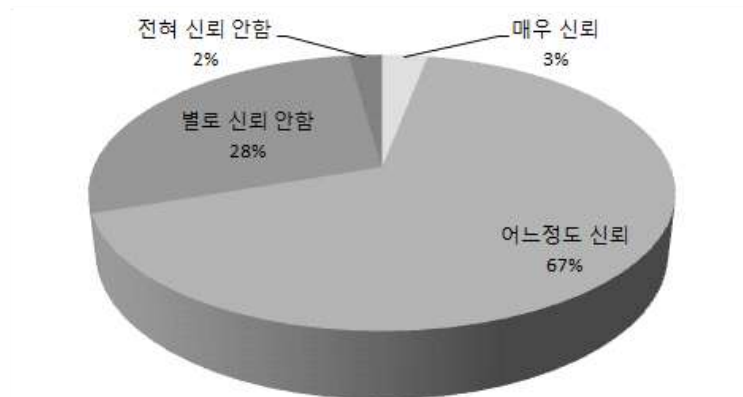
1)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자원봉사

(1) 타인에 대한 신뢰도 69.7%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가 된다. 그런데 최근까지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OECD 2010).

2014년 조사에서 처음 설문으로 포함된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2017년에는 한국인 69.7%가 타인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2014년 66%에서 다소 개선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서구인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중 매우 강한 신뢰도는 3%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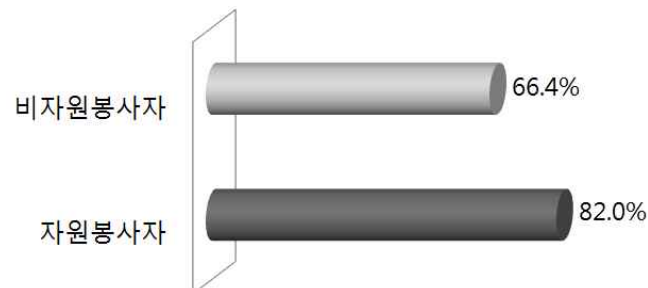
<그림6-6> 타인에 대한 신뢰 : 2017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과 2017년 조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자원봉사자가 82%로 비자원봉사자 66.4%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림6-7> 타인을 신뢰한다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표6-4> 타인에 대한 신뢰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2017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6%	2.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17.4	31.0
어느 정도 신뢰한다	75.1	64.4
매우 신뢰한다	6.9	2.0

chi-square 차이검증 : 유의수준 $p < 0.000$

(3)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 남녀 차이는 없고, 연령별 차이도 거의 없다.
- 교육수준별 차이도 소득수준별 차이도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이 개인특성별 차이가 없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 구분 없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에서처럼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따라 타인 신뢰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은 타인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인 신뢰가 늘어난다는 자원봉사의 효과로도 볼 수 있다.

2)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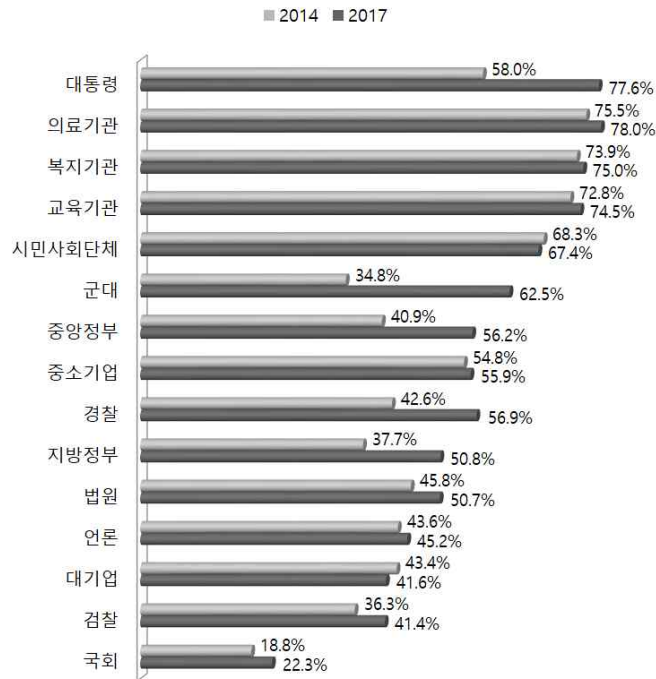
(1) 사회기관 신뢰도 : 2014년과 2017년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는 기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공익 민간기관들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국민의 높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NGO)들이 68% 이상의 비교적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받는 사회기관들이다. 반면에 정부기관들의 경우, 대통령 78%, 중앙정부 56%로 언론이나 대기업보다 높은 신뢰를 받지만, 검찰, 국회는 가장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6-8>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 2014, 2017



<표6-5>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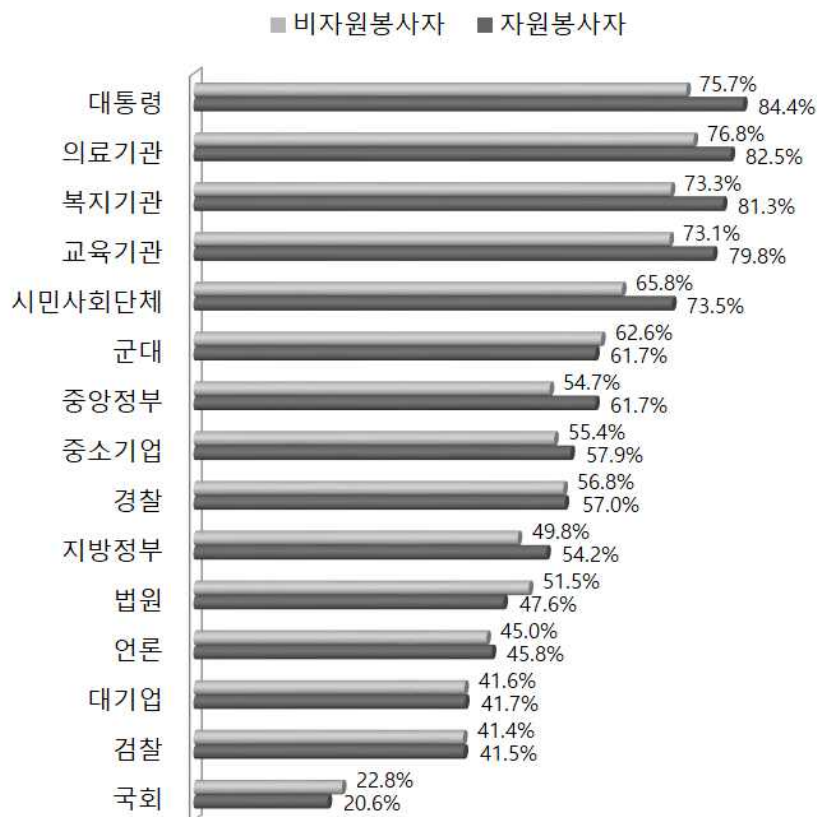
항 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대통령	1.1	21.4	62.8	14.8
중앙정부	4.9	38.8	51.6	4.6
지방정부	7.2	42.0	47.3	3.5
법원	9.1	40.2	47.5	3.2
검찰	12.3	46.3	38.7	2.7
국회	26.3	51.4	20.1	2.2
대기업	10.0	48.4	38.1	3.5
중소기업	4.3	39.8	52.3	3.6
언론	10.1	44.6	40.0	5.2
경찰	4.6	38.5	50.3	6.6
군대	4.0	33.5	56.0	6.4
교육기관(초·중·고교, 대학)	1.4	24.1	61.8	12.7
의료기관	1.8	20.2	67.5	10.5
복지기관	1.7	23.3	64.0	11.0
시민사회단체(NGO)	2.7	29.9	58.4	9.0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과 2011년의 조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일부 사회기관들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다른 사회기관들의 경우,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자원봉사자로부터 오히려 더 높은 불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2017년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최고의 신뢰도 기록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로부터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들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이며, 반면에 군대, 경찰, 법원, 검찰, 국회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낮게 신뢰하는 사회기관들이다.

<그림6-9>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사회기관 신뢰도 비교 : 2017



(3) 성,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 직업별 비교

-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 연령에서도 청년층보다 60세 이상 노인층이 신뢰도가 높다.
- 저학력층이 타인신뢰, 중앙정부, 국회, 대기업, 언론에 대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표6-6> 신뢰도 비교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타인신뢰	중앙정부	국회	대기업	언론	시민단체
전체	69.7%	56.2%	22.3%	41.6%	45.2%	67.4%
남자	68.9	55.0	21.2	39.6	43.1	65.1
여자	70.5	57.4	23.5	43.6	47.3	69.7
20대	61.2	56.2	17.4	36.4	43.4	68.6
30대	68.7	55.7	22.8	39.9	41.4	63.7
40대	71.7	55.6	23.2	43.2	44.1	67.0
50대	72.7	56.9	24.7	41.1	47.7	64.8
60세 이상	71.8	56.6	22.7	45.3	48.0	71.7
중졸이하	76.6	59.7	31.0	42.4	51.9	74.3
고졸	67.9	55.3	21.8	42.2	45.4	66.4
대재이상	69.2	56.2	20.3	40.7	43.2	66.5
199만원이하	74.7	49.8	34.5	41.3	47.4	70.1
200-299만원	67.7	56.3	24.9	38.4	41.7	69.0
300-399만원	68.0	54.1	18.6	37.4	43.3	62.9
400-499만원	68.7	53.1	18.3	45.8	47.6	69.2
500만원이상	71.4	64.8	22.4	44.5	46.0	67.7
전문/자유직	84.6	69.2	0.0	15.4	38.5	69.2
관리직	83.4	83.4	16.6	16.6	16.6	49.8
반전문/기술직	81.7	54.5	24.3	54.5	48.5	63.7
사무직	67.8	57.4	24.1	44.7	44.7	64.1
자영업	69.1	54.8	21.3	42.8	45.6	64.6
판매직	68.7	57.1	18.3	38.8	33.4	61.2
서비스직	71.4	58.4	21.4	38.5	45.8	70.3
생산직	67.5	50.0	17.6	39.2	48.7	67.6
농어민	91.3	56.7	39.0	52.0	30.3	78.0
전업주부	71.9	57.5	25.7	44.0	52.5	71.9
학생	56.3	48.8	13.8	30.0	43.8	73.8
미취업	70.2	56.1	33.3	42.1	45.6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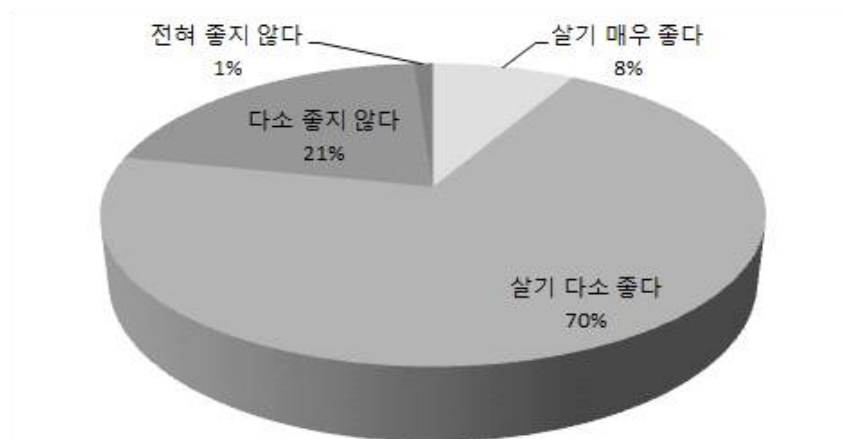
3) 타국 이주자에 대한 관용

다문화사회로 진입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타국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OECD(2012, 2014, 2016)의 국제비교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1)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

2017년 조사에서도 OECD에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지표가 되는 문항으로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고, 조사결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78%에 달해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72%에서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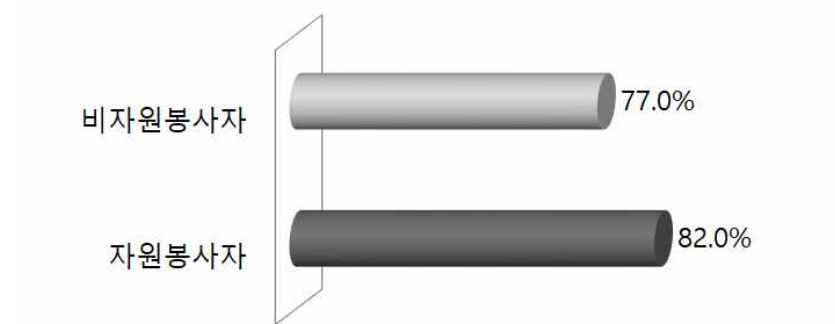
<그림6-10> 귀하의 거주지가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 : 2017



(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조사결과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11> 나의 거주지는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이다



<표6-7>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혀 좋지 않다	0.9%	1.1%
별로 좋지 않다	17.1	21.5
다소 좋다	69.5	70.2
매우 좋다	12.4	7.2

chi-square 차이검증 : 유의수준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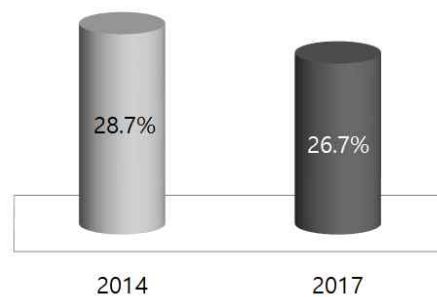
VII. 기 부

1. 자선적 기부 참여율

1) 2014년과 2017년

2017 ‘자선적 기부’³⁾ 참여율은 26.7%이다. 3년 전의 28.7%보다 2% 낮아졌다. 2017년 조사대상자 1,500명 중 400명이 지난 1년간 자선적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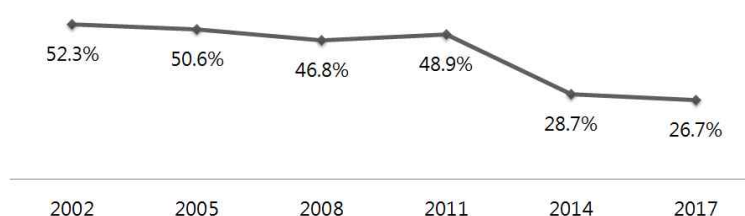
<그림7-1>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기부 참여율은 2002년 52.3%, 2005년 50.6%, 2008년 46.8%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1년 48.9%로 약간 상승, 다시 2014년 28.7%로 급격히 줄어든 후, 2017년 26.7%로 약간 감소되었다.

<그림7-2> 자선적 기부 참여율 추이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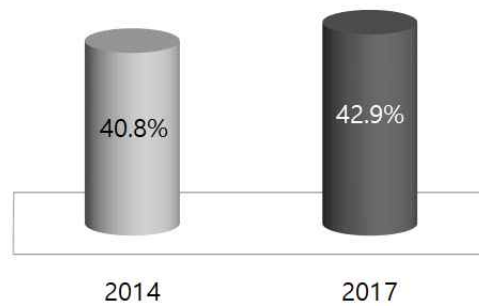


3) 자선적 기부는 종교단체의 헌금 및 시주를 제외한 기부를 말함

3) 종교기부 포함

자선적 기부와 종교적 기부를 합산하면, 2014년 40.8%에 비해 약간 늘었다. 자선적 기부가 감소한 반면, 종교적 기부는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림7-3> 기부 참여율(자선+종교)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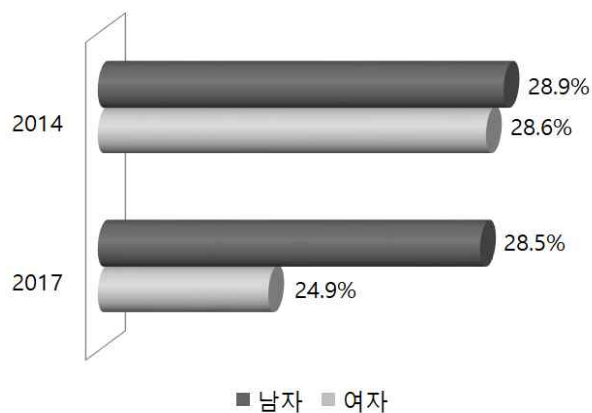
2. 자선적 기부자의 특성

1) 남녀

(1) 2014년과 2017년

2014년에는 남녀의 기부참여율이 비슷했던 반면, 2017년에는 여성의 기부참여율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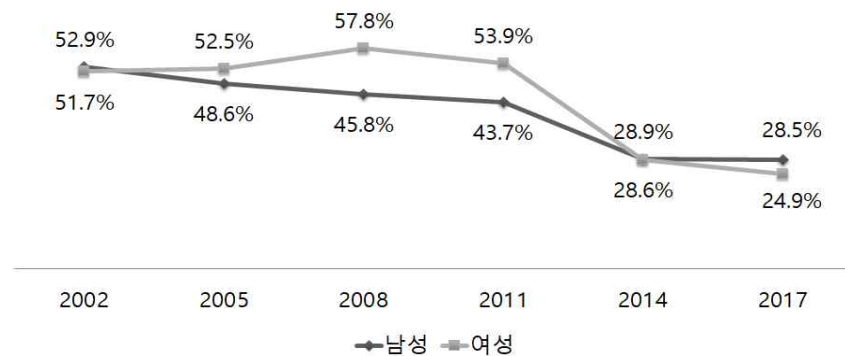
<그림7-4> 남녀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여성의 기부 참여율은 2008년 이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남정보다 낮아졌다.

<그림7-5> 남녀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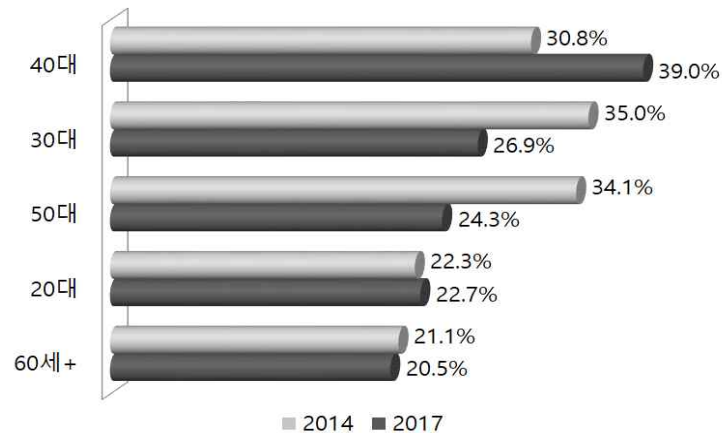


2) 연령

(1) 2014년과 2017년

2017년에는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 50대의 기부참여율은 2014년에 비하여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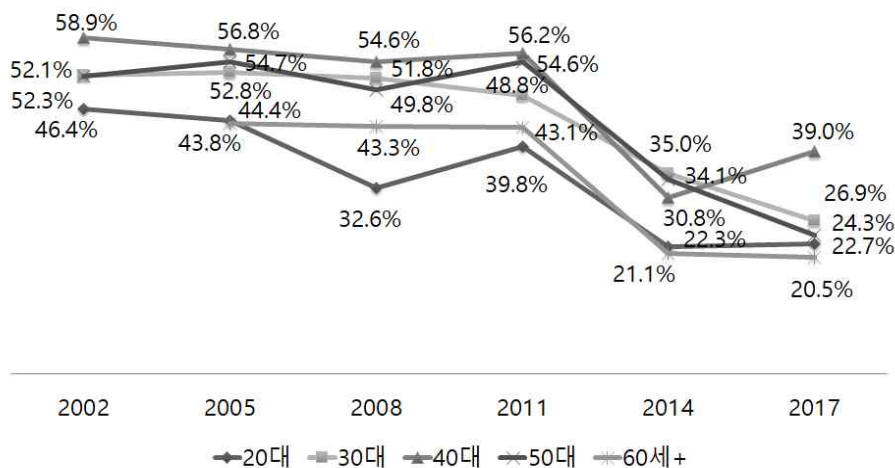
<그림7-6> 연령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전반적으로 기부 참여율이 유지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떨어진 후 감소 추세다. 40대의 기부 참여율은 2017년에 다시 크게 증가했다. 30대와 50대가 뒤를 이어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인다.

<그림7-7> 연령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표7-1> 연령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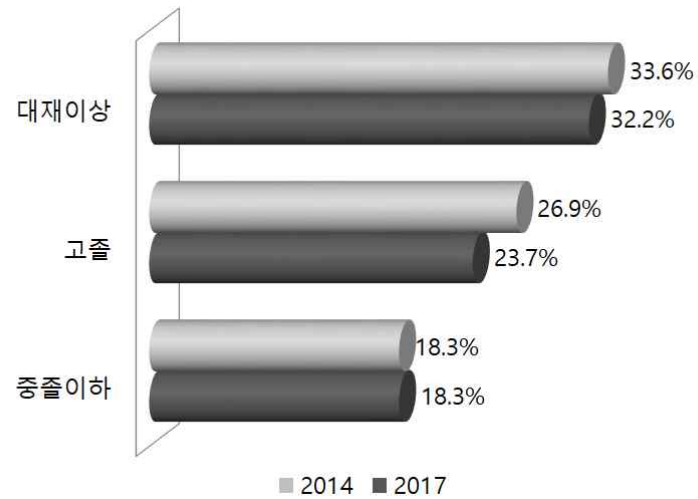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20대	22.7%	22.3%	39.8%	32.6%	44.4%	46.4%
30대	26.9	35.0	48.8	51.8	52.8	52.3
40대	39.0	30.8	56.2	54.6	56.8	58.9
50대	24.3	34.1	54.6	49.8	54.7	
60세 이상	20.5	21.1	43.1	43.3	43.8	52.1

3) 교육 수준

(1) 2014년과 2017년

2017년 중학교 졸업 이하만 기부참여율이 유지됐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이 높은 양상을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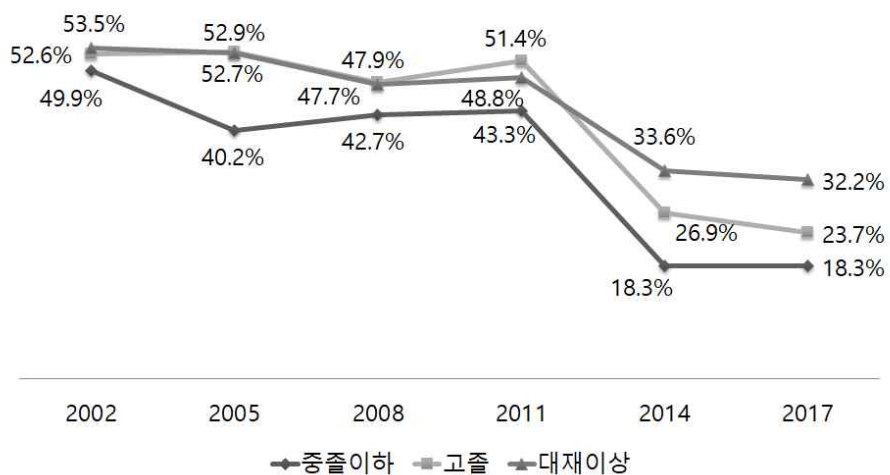
<그림7-8> 교육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의 기부 참여가 높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확인된다. 단, 2011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자보다 더 많이 참여한 특징이 있다.

<그림7-9> 교육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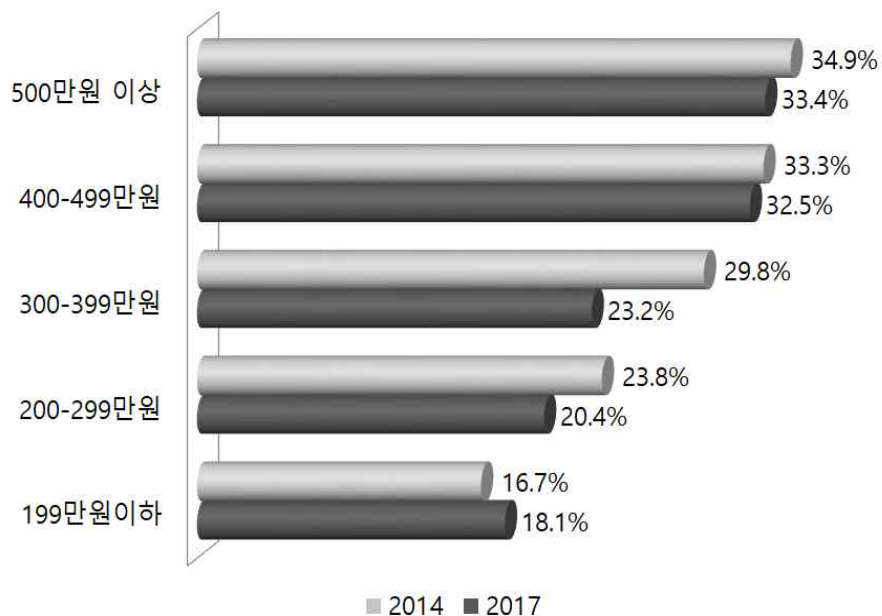


4) 소득 수준

(1) 2014년과 2017년

고소득층의 기부참여가 높고 저소득층의 참여는 낮다.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기부참여율을 보였다. 월소득 200만원 이상의 기부 참여율이 모두 감소한 반면, 199만원 이하의 약간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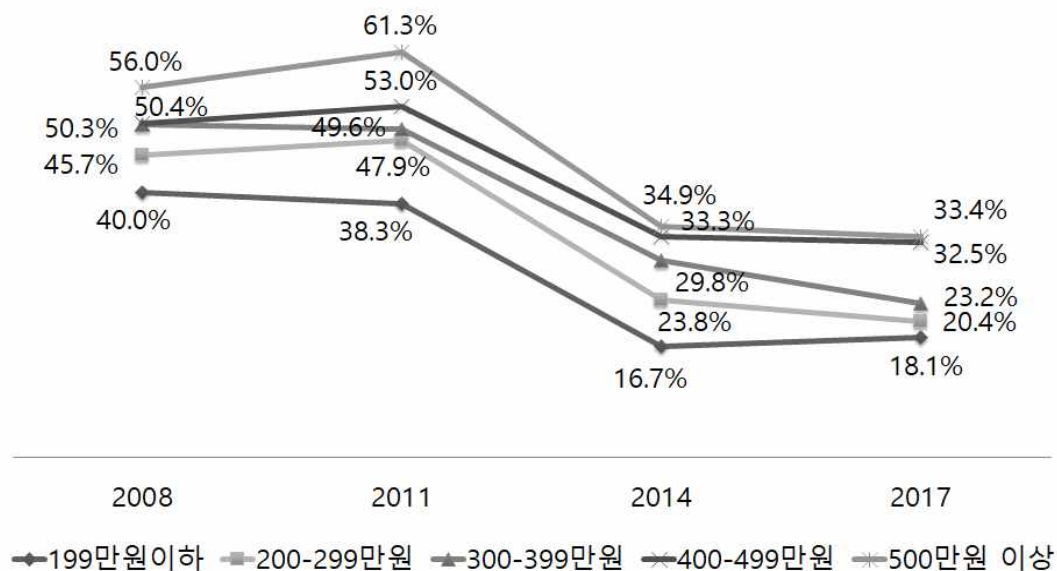
<그림7-10>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기부참여율은 소득수준과 비례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참여가 높고, 낮을수록 기부참여도 낮았다. 단,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참여율이 2008년, 2011년에는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거의 비슷해졌다.

<그림7-11>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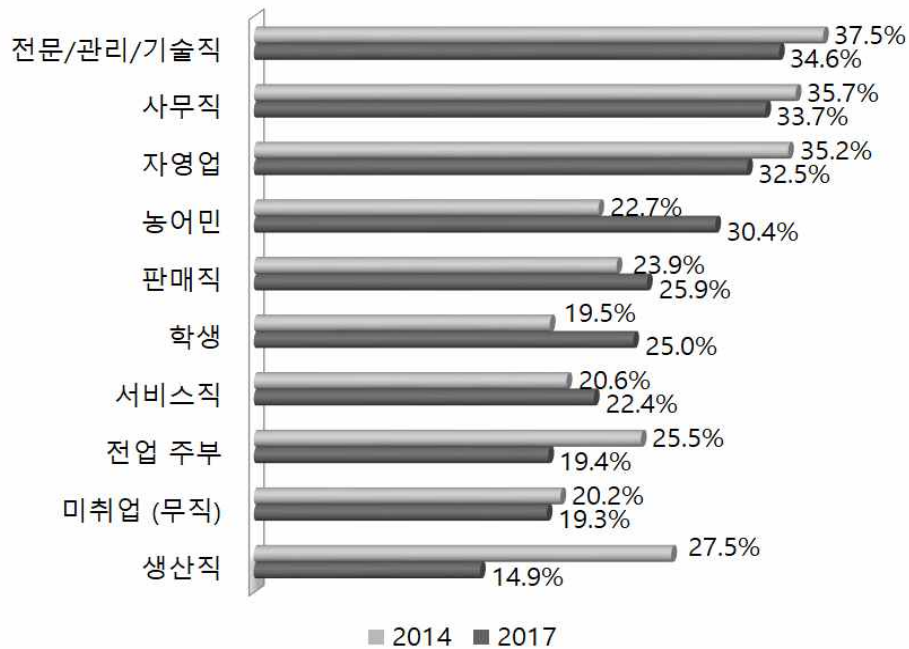
<표7-2> 소득수준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199만원 이하	18.1%	16.7%	38.3%	40.0%	46.0%	52.7%
200-299만원	20.4	23.8	47.9	45.7	49.8	55.8
300-399만원	23.2	29.8	49.6	50.3	56.2	
400-499만원	32.5	33.3	53.0	50.4		60.3
500만원 이상	33.4	34.9	61.3	56.0		

5) 직업

급여, 지위가 높은 직업군인 전문/관리/기술직, 사무직 등의 기부 참여율은 여전히 높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단, 농어민, 판매직, 서비스직, 학생의 기부 참여율은 높아졌고, 전업주부, 생산직 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림7-12> 직업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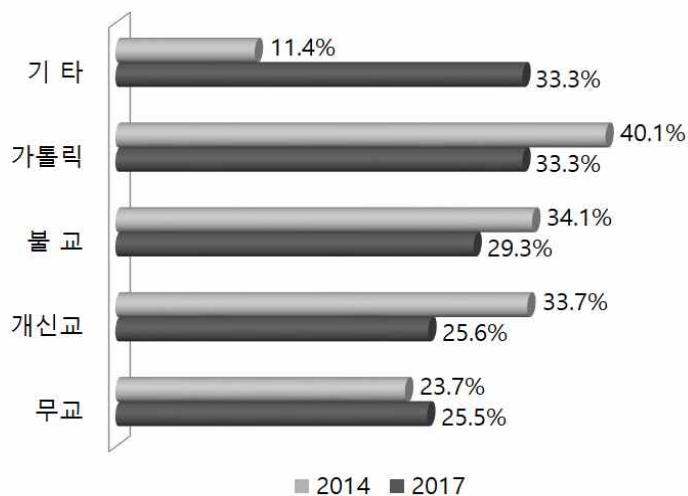


6) 종교특성

(1) 2014년과 2017년

2017년에도 가톨릭이 가장 높은 기부참여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4년과 비교해 보면 개신교, 가톨릭, 불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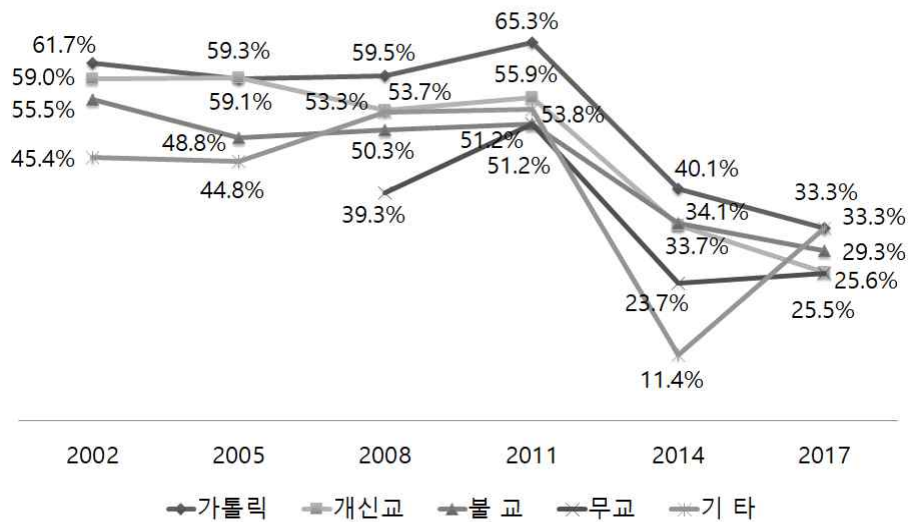
<그림7-13> 종교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 2014,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2002년부터 가톨릭의 기부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개신교가 높은 참여를 보여 왔으나, 2014년 이후 불교가 약간 앞섰다.

<그림7-14> 종교별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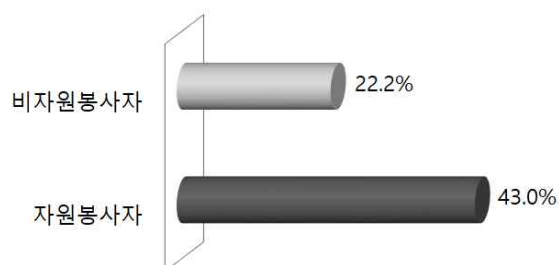


7) 자원봉사자의 자선적 기부 참여

(1) 2017년의 특징

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는 활성화되어 있다.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 ‘마음의 습관’(habit of the heart)을 반영해준다.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이 기부에 동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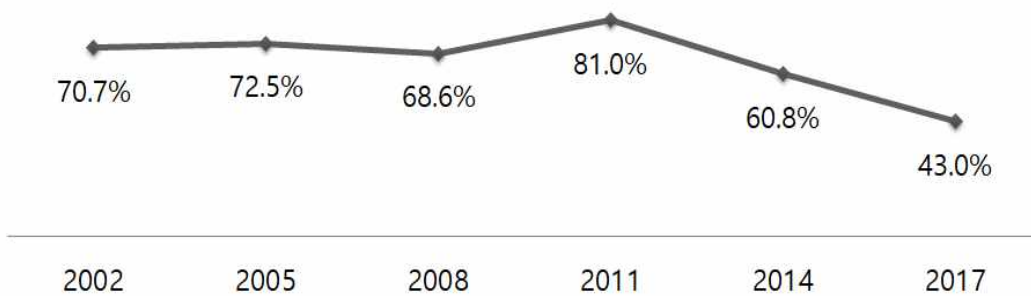
<그림7-15> 자선적 기부 참여율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지난 2002-2008년 자원봉사자의 기부참여는 70% 안팎으로 안정화되다가 2011년 81%로 한 차례 상승한 뒤, 2014년 이후 연 20% 가량 하락하고 있다.

<그림7-16> 자원봉사자의 자선적 기부 참여율 비교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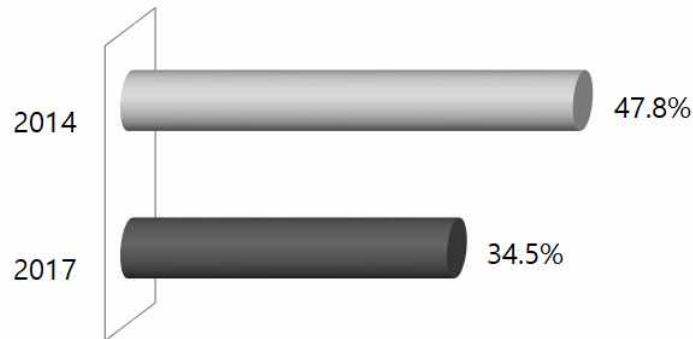
8)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

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율에 비해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높지 않다.

(1) 2014년과 2017년

자선적 기부자의 자원봉사는 많지 않다. 기부 참여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7년 34.5%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7.8%에 비하면 13.3% 낮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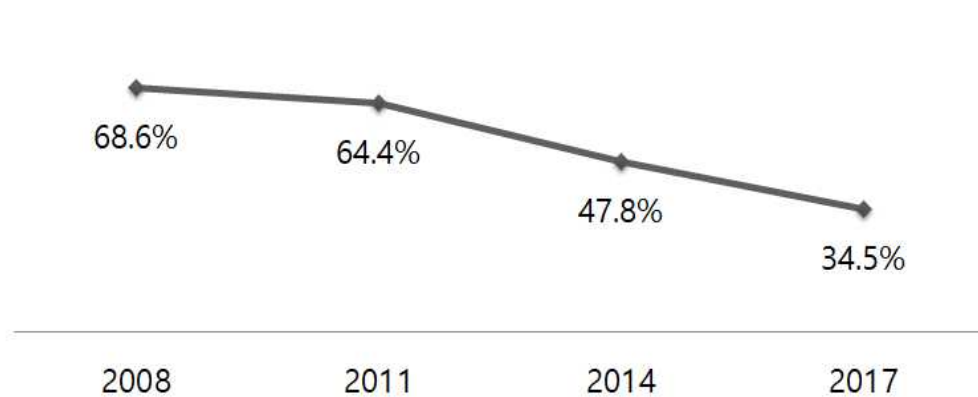
<그림7-17> 자선적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 2014, 2017



(2) 2008-2017년 시계열 비교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7-18> 자선적 기부자의 자원봉사 참여율 비교 : 2008-2017



9) 종합 요약 : 자선적 기부자의 개인적 특성(2002-2017)

이상과 같이 자선적 기부자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7-3>과 같다.

<표7-3> 지난 1년간 자선기부자의 개인적 특성 : 2002-2017

구분	2017	2014	2011	2008	2005	2002
전체	26.7%	28.7%	48.9%	46.8%	50.6%	52.3%
남자	28.5	28.9	43.7	45.8	48.6	52.9
여자	24.9	28.6	53.9	47.8	52.5	51.7
20대	22.7	22.3	39.8	32.6	44.4	46.4
30대	26.9	35.0	48.8	51.8	52.8	52.3
40대	39.0	30.8	56.2	-	-	-
50대	24.3	34.1	54.6	49.8	54.7	52.1
60세이상	20.5	21.1	43.1	43.3	43.8	
중졸이하	18.3	18.3	43.3	42.7	40.2	49.9
고졸	23.8	26.9	51.4	47.9	52.9	52.6
대재이상	32.2	33.6	48.8	47.7	52.7	53.5
전문/관리/기술직	34.6	37.5	51.1	58	50.5	43.5
사무직	33.7	35.7	54.4	55.3	55	51.5
자영업	32.5	35.2	51.7	53.3	55.4	60.8
판매직	25.9	23.9	43.4	40.7		
서비스직	22.4	20.6	51.2	48.1	48.8	48.7
생산직	14.9	27.5	40.5	35.1	39.4	50
농어민	30.3	22.7	62.1	44.6	48.7	58
전업주부	19.4	25.5	49.1	47.3	51.3	56.1
학생	25.0	19.5	40.2	26.6	37.5	44
미취업	19.3	20.2	30	33.3	47.2	34.6
199만원이하	18.1	16.7	38.3	40.0	46.0	52.7
200-299만원	20.4	23.8	47.9	45.7	49.8	55.8
300-399만원	23.2	29.8	49.6	50.3		
400-499만원	32.5	33.3	53.0	50.4	56.2	60.3
500만원이상	33.5	34.9	61.3	56.0		
불교	29.4	34.1	51.2	50.3	48.8	55.5
개신교	25.6	33.7	55.9	53.7	59.3	59
가톨릭	33.4	40.1	65.3	59.5	59.1	61.7
기타	33.3	11.4	53.8	53.3		
무교	25.5	23.7	41.2	39.3	44.8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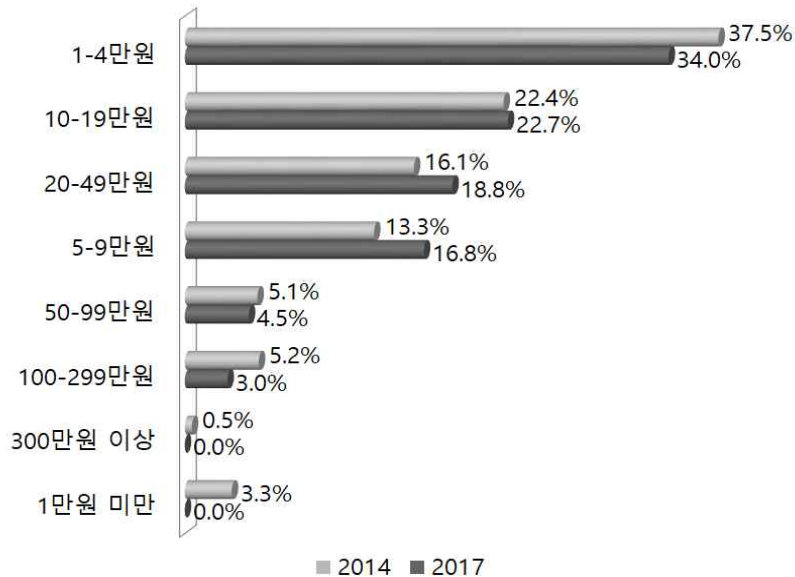
3. 자선적 기부금액

1) 2014년과 2017년

2014년에 이어 2017년의 자선적 기부금액에서도 1-4만원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2014년에 비해 1-4만원 소액과 5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는 감소했다. 반면 10만원-50만원에 해당되는 중액 기부는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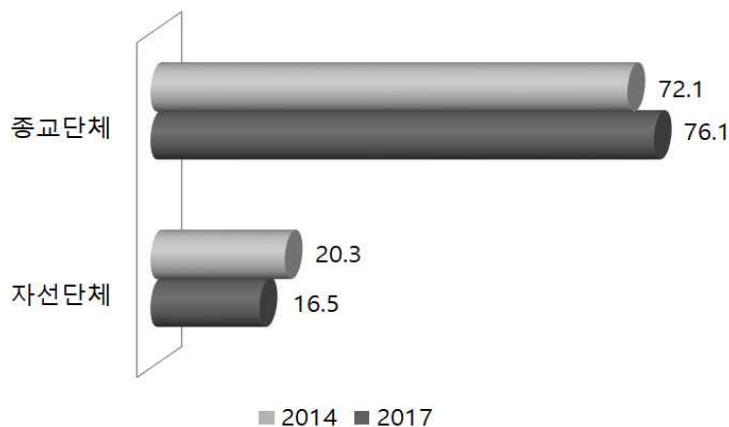
<그림7-19> 자선적 기부금액 : 2014, 2017



2) 종교기부와 비교 : 2014, 2017

2017년의 자선적 기부금액(16만5천원)은 종교적 기부금액(76만원)에 비해 네 배 이상 적다. 2014년에 비해 자선적 기부금액은 줄어든 반면, 종교적 기부금액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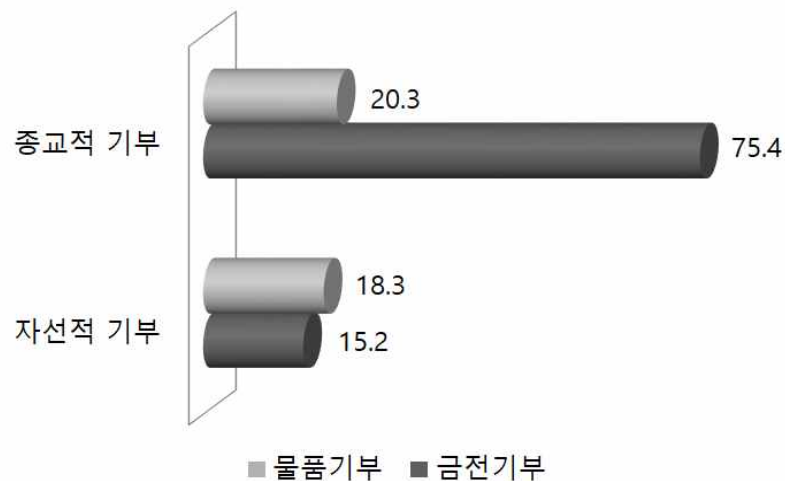
<그림7-20> 자선단체와 종교단체 평균 기부금액(만원) : 2014, 2017



3) 물품기부와 금전기부 비교 : 2017

자선적 기부의 금전기부(15만2천원)는 물품기부(18만3천원)보다 낮다. 반면 종교적 기부의 금전기부(75만4천원)는 물품기부(20만3천원)보다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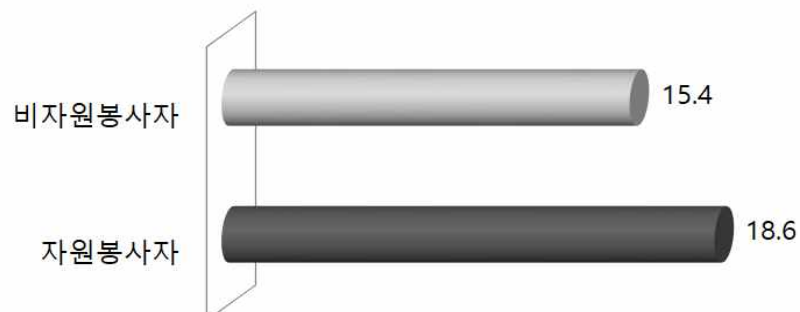
<그림7-21> 물품기부와 금전기부 평균 기부금액(만원) : 2017



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 2017

2017년 자원봉사자의 평균 기부금액(18만 6천원)은 비자원봉사자의 평균 기부금액(15만 4천원)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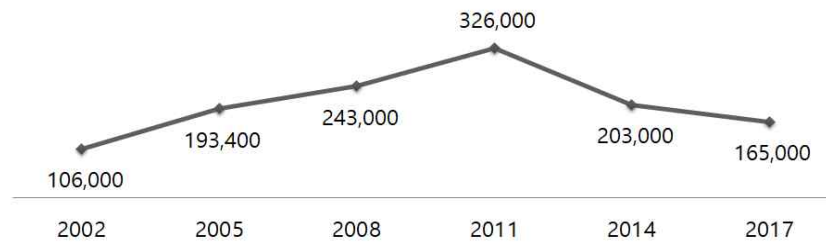
<그림7-22>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금액(만원)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5)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자선적 기부의 평균 기부금액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017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7-23>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금액(원) 비교 : 2002-2017



<표7-4> 개인 특성별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금액 : 2005-2017

구 분	2017	2014	2011	2008	2005
평균	16.5만원	20.3만원	32.6만원	24.3만원	19.3만원
남성	17.9	22.4	42.6	27.6	24.5
여성	14.9	18.2	24.6	21.4	14.6
20대	11.2	14.0	18.9	9.6	8.9
30대	24.0	17.0	38.9	19.4	17.5
40대	15.6	27.9	38.8	29.9	26.4
50대	20.4	17.9	39.7	40.1	27.5
60세이상	11.1	22.7	18.2	19.8	16.2
중졸이하	9.8	28.8	15.7	13.5	9.6
고졸	13.4	15.4	36.6	29.1	18.9
대재이상	20.0	22.7	34.8	24.2	25.9
199만원이하	13.7	12	19	14.8	13.9(100-199만원) 15.2(99만원이하)
200-299만원	11.6	14.9	21	19.5	16.7
300-399만원	12.8	15.9	36.7	26.2	21.7
400-499만원	15.3	21.9	35.6	36.2	26.1
500만원이상	23.8	29.7	53.9	35.7	38.3
불교	21.2	13.4	25	21	20.1
개신교	18.1	23.9	45.3	42.9	23.2
가톨릭	16.2	21.3	35.3	36.2	17.8
무교	14.3	21.8	28.3	10.6	16.6
기타	26.5	1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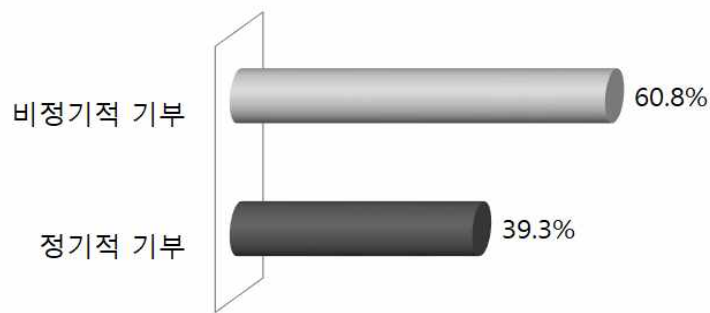
4. 자선적 기부자의 정기성, 기부횟수

1) 정기성

(1) 2017년

2017년 자선적 기부자 중 비정기적 기부자가 정기적 기부자에 비해 훨씬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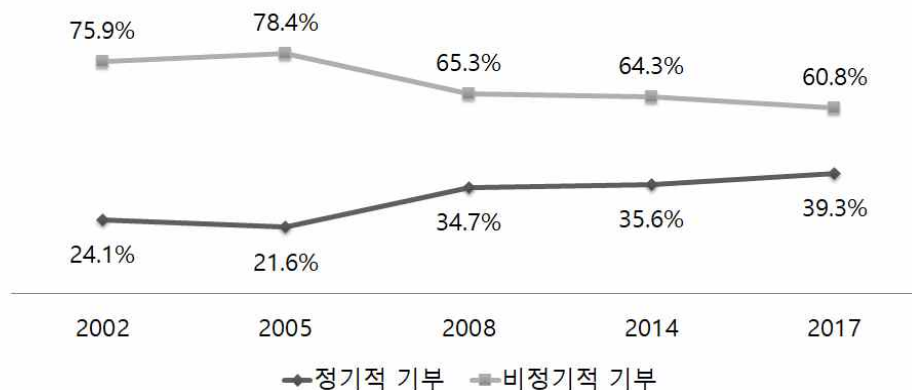
<그림7-24> 자선적 기부자의 정기성 : 2017



(2)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비정기적 기부는 점차 줄고, 정기적 기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림7-25> 자선적 기부자의 정기성 비교 : 200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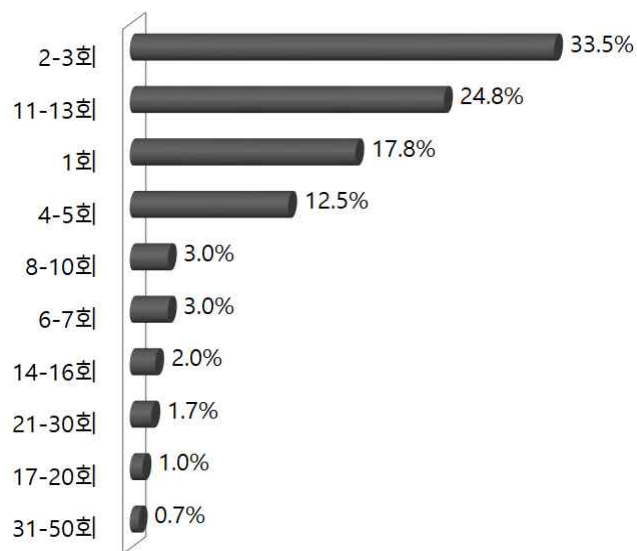


2) 기부횟수

(1) 2017년

2017년 자선적 기부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11-13회 24.8%, 1회 17.8%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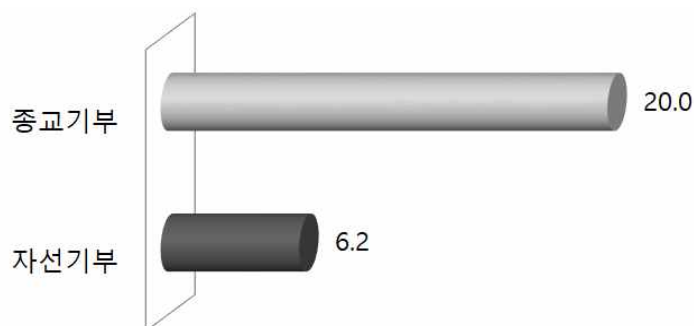
<그림7-26> 자선적 기부 횟수 : 2017



(2) 종교기부와 비교 : 2017

종교적 기부는 자선적 기부에 비해 기부횟수가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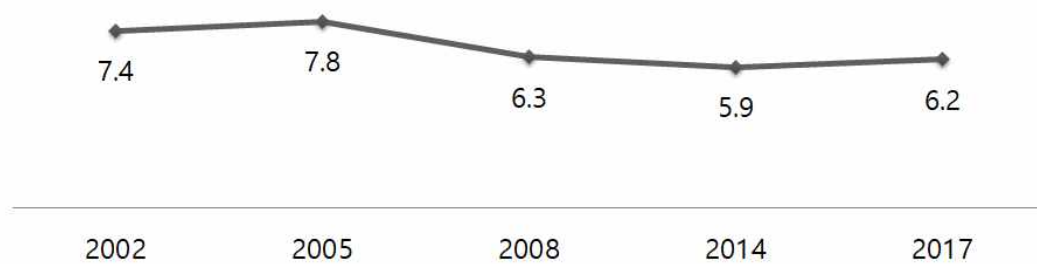
<그림7-27> 종교기부와 자선기부 평균 기부 횟수 : 2017



(3) 2002-2017년 시계열 비교

2005-2014년 동안 기부횟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2017년 조금 증가했다.

<그림7-28> 자선적 기부 평균 기부 횟수 비교 : 2002-2017



5. 기부 활성화 방안

자선적 기부의 참여율, 기부 금액 및 횟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부문화의 정착 지연이 우려된다. 이에 2017년 전국조사에서 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7-29> 기부 활성화 방안 : 2017



VIII. 이웃돕기

1. 이웃돕기(helping) 국제표준안

1)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구분

‘이웃돕기’는 이제 국제 표준화로 정착되고 있다. 자원봉사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2011)는 자원봉사를 “무보수, 자발적 활동”으로, “개인들이 조직을 통해서나 타인에게 직접 수행한 활동에 시간을 제공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조직을 통한 ‘조직기반’(organization-based) 활동은 공식적인 자원봉사로, 그리고 친지가 아닌 친구나 타인을 위한 ‘직접적’(direct) 또는 ‘사적’(private) 활동은 비공식, 사적 자원봉사로 구분하면서도 각국의 자원봉사 통계에 이웃돕기도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이웃돕기는 그간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공식적’ 활동과 구분되는 개인 사이의 ‘비공식적’ 활동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자원봉사 국제 표준화’에 호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웃돕기’ 또는 직접적, 혹은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을 ILO의 국제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10가지 이웃돕기 항목들을 개발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ILO는 국제표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국의 문화와 전통에 기초한 ‘이웃돕기’ 항목들을 개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영국의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분류

영국 정부는 이웃돕기(helping)를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으로 분류해, 전국 조사를 실시해왔다. 영국에서 분류한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이웃돕기)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되고 있다(CLG 2010).

3)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분류

국제노동기구(ILO 2011)는 이웃돕기를 ‘비공식’ 또는 ‘사적’ 자원봉사로 간주해, 국제표준코드 번호로써 이웃돕기 유형을 <표8-1>과 같이 분류한다.

<표8-1> 영국 정부의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이웃돕기) 분류

‘공식적’ 자원봉사 활동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
특정 단체, 클럽, 조직을 위해 무보수로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친척이 아닌 타인을 위해 무보수로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 모금활동/행사 업무 활동 - 단체 간부 또는 위원회 위원 활동 - 단체 활동/행사의 조직이나 지원 - 사람들을 방문하는 활동 - 사람들과 친교 또는 멘토링 - 자문, 정보제공, 상담 - 일반 행정, 사무업무 - 차량 제공 또는 운전 -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 - 캠페인 활동 - 현장지원 활동 - 단체/클럽/조직을 위한 기타 활동	- 자문/상담 - 곤경에 처한 사람과 연락(방문,전화,메일) - 쇼핑, 연금수령/영수증 납부 - 요리, 청소, 세탁, 정원일, 가사 - 장식, 집정리, 차수리 - 유아/아동 돌보기 - 병약자 돌보기 - 집 지켜주기, 애완동물 돌보기 - 편지/서류 작성 - 심부름 활동 - 운전/에스코트 - 기타 도움주기

2. 한국인의 이웃돕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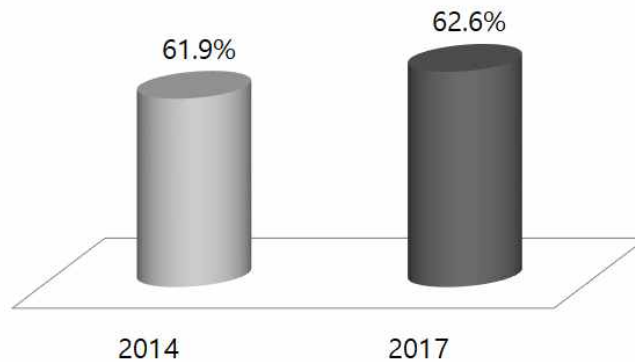
1) 이웃돕기 참여율 : 2014, 2017

(1) 이웃돕기의 심각한 위축

지난 1년간 이웃돕기에 참여한 한국인은 62.6%에 달한다. 아래처럼 이웃돕기 10가지 유형에서 하나 이상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 중 62명에 달한다. 2014년에 비교하면 다소 위축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OECD 34개국 조사에서는 2015년 35%로 조사되었는데, 참고로 2012년 45.2%, 2007년 41.5%에 비교해 크게 위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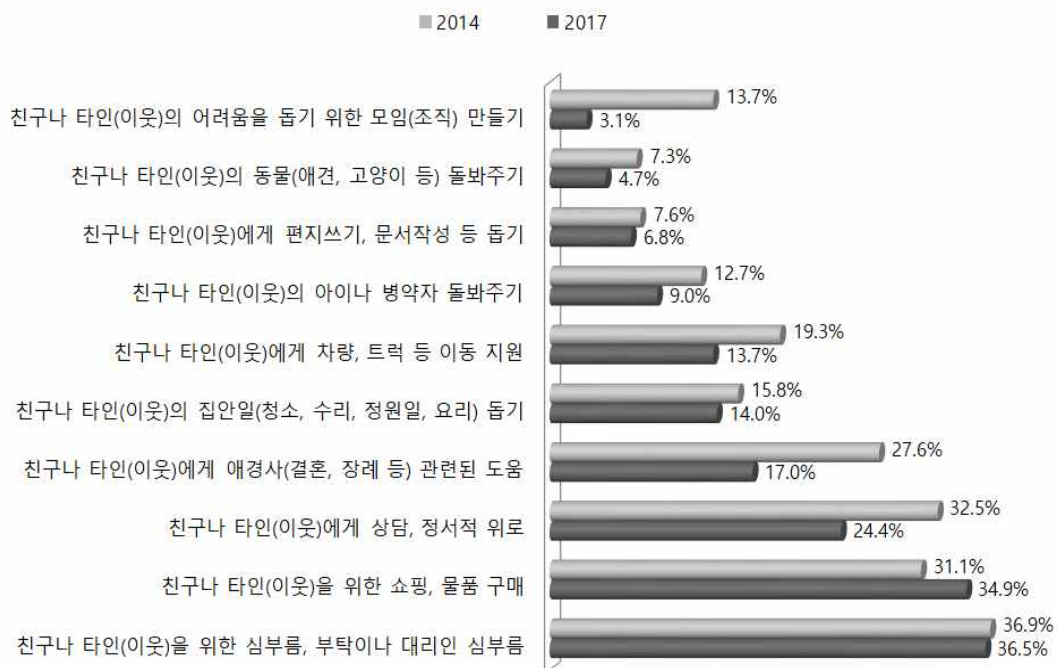
<그림8-1> 한국인 이웃돕기 참여율 : 2014, 2017



(2) 부탁이나 물품구매 심부름이 대표적인 이웃돕기

한국인의 가장 일상적인 이웃돕기는 ‘부탁이나 심부름’이다. 지난 1년 간 부탁이나 심부름으로 이웃돕기를 한 사람은 36.5%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담이나 정서적 위로’가 2014년 제2 순위에서 8%로 제3 순위로 위축되었다. ‘쇼핑이나 물품구매’ 돕기, ‘애경사 도움’은 제2, 제4 순위이다.

<그림8-2> 한국인의 이웃돕기 활동 10대 유형 : 2014, 2017



2) 1999-2008년 시계열 비교

이웃돕기에 관한 조사는 1999년 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사 시기에 따라 설문문항이 달라 1999-2008년 기간에 대해서만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표 8-2>에서 ‘이웃’ 항목에 초점을 맞춰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1999년 이웃돕기 참여율이 43.3%에서 2002-2005-2008년으로 가면서 43.3% → 37.1% → 22%로 대폭 하락하는 추이를 발견한다.

<표8-2> 이웃돕기 참여율 추이 : 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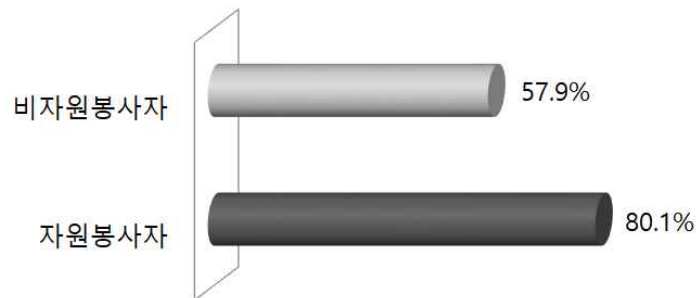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5			2002			1999*		
	전 체	자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부모·친척	36.5%	48.5%	33.5%	47.7%	58.9%	44.8%	54.6%	63.2%	52.9%	55.6%	65.1%	54.0%
가까운 친구	28.0	39.4	25.1	39.9	52.0	36.8	45.2	55.1	43.3			
이웃	22.0	37.7	18.1	37.1	60.4	31.1	43.3	66.4	38.8			
그 외 도움주기	18.1	36.4	13.5	32.2	55.9	26.1	38.2	60.3	33.8	43.8	63.7	40.5

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1) 이웃돕기 참여율

이웃돕기에서도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웃돕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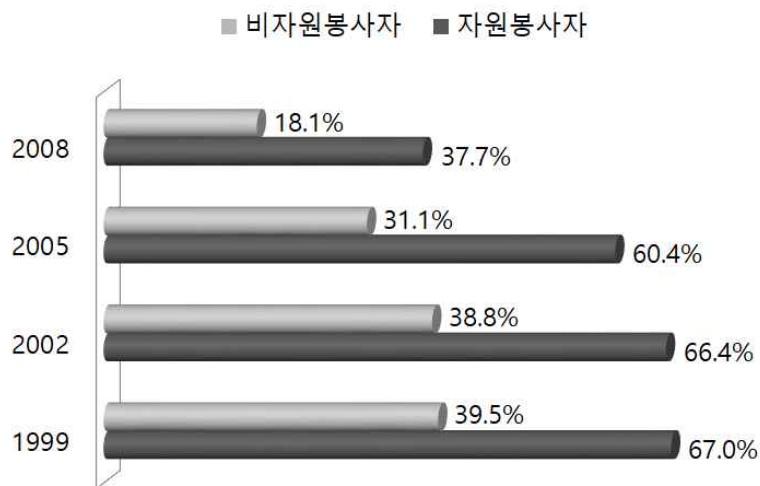
<그림8-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이웃돕기 참여율 : 2017



(2) 1999-2008 시계열

1999-2008년 시계열 분석에서도 <그림8-4>과 같이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참여해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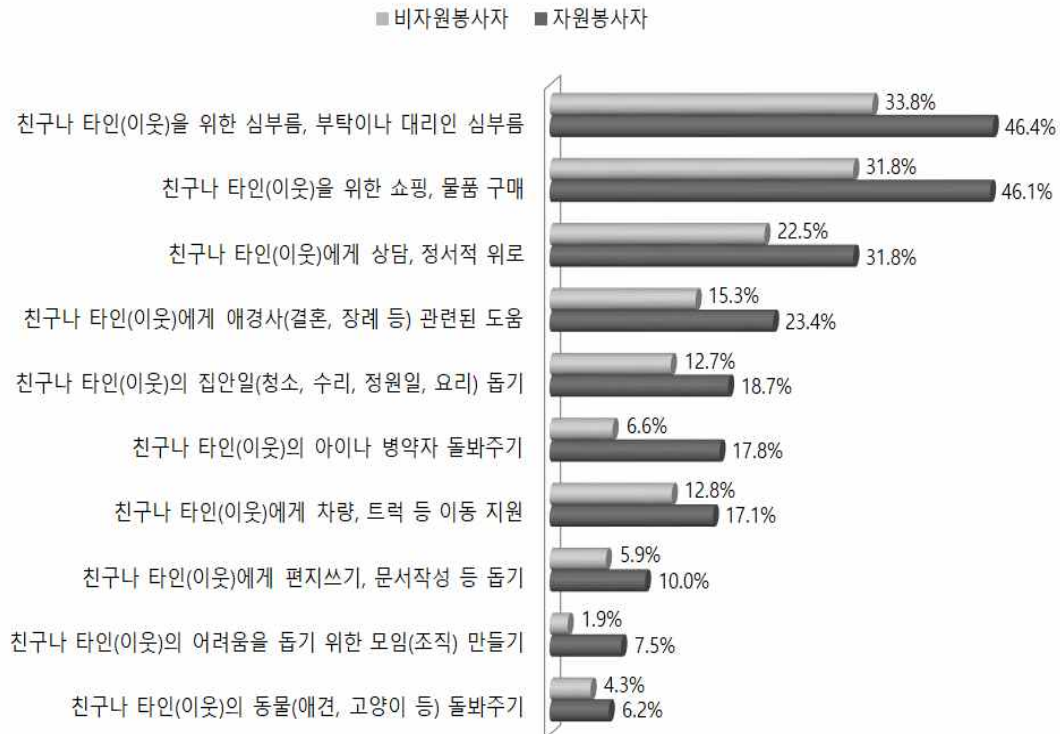
<그림8-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이웃돕기 참여율 : 1999-2008



(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이웃돕기에서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한다. 이웃돕기 빈도에서도 자원봉사자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더 자주 활동한다.

<그림8-5> 이웃돕기 참여 :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비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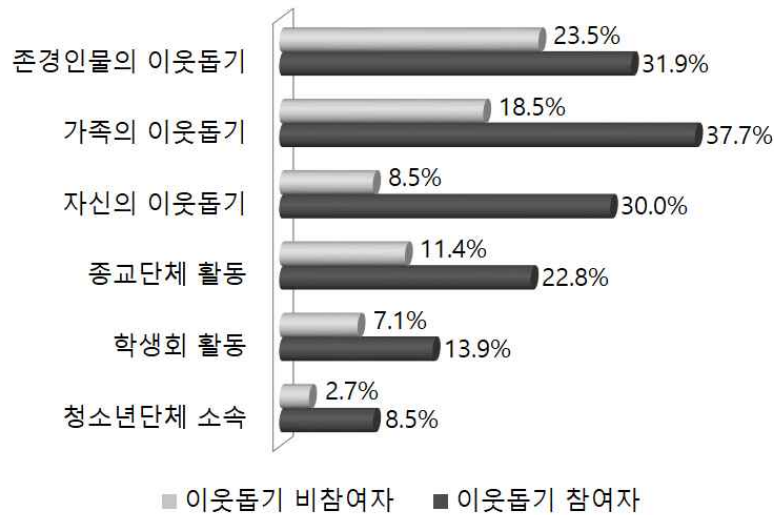
4) 개인의 경험과 인구학적 특성별 비교

(1) 친사회적 경험과 이웃돕기

개인의 다양한 경험 중 ‘친사회적’(pro-social)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 돕기를 더 많이 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해 (사)한국자원봉사문화(前 볼런티어21)는 1999년부터 친사회적 경험과 자원봉사의 상관성을 검증해왔는데, 이번 2017년 조사에도 상당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새로 설계한 이웃돕기 부분에서도 ‘친사회적 경험’과의 상관성이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웃돕기 참여와 비참여 사이의 차이가 친사회적 활동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8-6> 이웃돕기와 친사회적 활동 경험과의 상관성



(2) 성, 연령,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별 비교

이웃돕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특성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이웃돕기 10대 유형 중 가장 많은 활동이 이뤄지는 4대 유형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본다.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애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활발한 이웃돕기 활동을 한다.
- 부탁이나 심부름에서는 여성이, 연령으로는 40대 여성이 가장 활발하고, 중저소득층, 고학력층이 활발하다.
- 상담이나 정서적 위로에서는 여성이, 연령으로는 40대 여성이 이웃돕기에 가장 열성적이며, 여기에서 교육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 쇼핑이나 물품구매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활동적이며, 여성 30대가 특히 왕성히 활동한다. 고학력층, 고소득층이 비교적 활발하다.
- 애경사(결혼, 장례 등) 이웃돕기에서는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 특히 남성 50대가 가장 활발하다. 고학력층이 활발하지만, 소득수준에서는 중저소득층이 비교적 활성적이다.

<표8-3> 이웃돕기 유형별 비교 (성,연령,교육,소득,직업) : 2017

	부탁, 대리 심부름	쇼핑, 물품 구매	상담, 정서적 위로	애경사 도움주기
전체	36.5%	34.9%	24.4%	17.0%
남자	32.5	29.3	22.4	17.5
여자	40.4	40.4	26.5	16.6
20대	34.3	36.4	21.9	12.4
30대	39.5	38.1	23.8	18.0
40대	37.8	37.5	25.1	18.7
50대	37.5	35.5	27.3	20.1
60세이상	33.8	28.9	23.7	15.3
남자 20대	28.1	32.8	20.3	14.8
남자 30대	38.6	31.5	23.8	18.3
남자 40대	32.3	31.1	19.3	19.3
남자 50대	32.9	31.0	25.8	20.6
남자 60+	30.5	21.3	22.6	14.0
여자 20대	41.2	40.4	23.7	9.6
여자 30대	40.4	45.0	23.7	17.6
여자 40대	43.5	44.2	31.2	18.2
여자 50대	42.3	40.3	28.9	19.5
여자 60+	36.4	34.9	24.6	16.4
중졸이하	36.3	25.8	27.4	16.2
고졸	33.4	32.7	21.6	16.4
대재이상	39.6	40.0	26.6	17.8
199만원미만	32.9	22.8	27.2	18.0
200-299만원	42.0	33.5	24.8	20.0
300-399만원	35.8	31.7	20.1	14.2
400-499만원	33.9	40.5	21.7	16.2
500만원이상	38.2	40.6	31.0	18.5
전문/자유직	30.8	38.5	23.1	23.1
관리직	50.2	33.7	50.2	17.1
반전문/기술직	36.4	48.5	33.3	27.2
사무직	35.4	33.7	27.6	16.7
자영업	38.5	39.1	24.3	15.6
판매직	36.6	30.7	23.8	21.0
서비스직	28.7	28.7	24.0	15.6
생산직	35.1	28.4	9.5	9.5
농어민	47.7	34.7	26.0	17.3
전업주부	40.7	37.5	24.9	21.6
학생	40.0	47.5	23.8	7.5
미취업	28.1	19.3	22.8	14.0

<참고> * chi-square 차이검증 : 유의수준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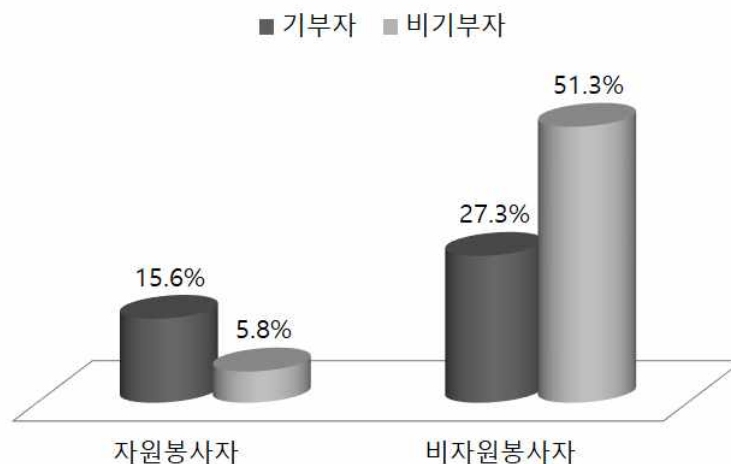
IX.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2014년 조사부터는 자원봉사를 비롯해, 기부, 이웃돕기 등 세 가지 친사회적 행태를 비교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설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활동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어, 하나 이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tistics Canada 2012). 또 OECD 34개국 비교분석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많은 국가에서 기부자와 이웃돕기 참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OECD 2015).

1.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기부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기부자라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자원봉사와 기부를 동시에 실천한 사람이 자원봉사만 참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기부자 중에는 기부만 하고 자원봉사는 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를 이룬다.

<그림9-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 비교



한국인 100명 가운데, 자원봉사와 기부, 하나 이상을 실천한 참여자는 49명으로 비참여자 51명보다 약간 적다.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를 실천한 사람은 16명, 기부만 실천한 기부자는 27명, 자원봉사만 실천한 자원봉사자는 6명으

로 구분된다.

<표9-1>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자와 불참자 : 2014, 2017

	2017	2014
자원봉사, 기부 모두 참여	15.6%	15.8%
자원봉사만 참여	5.8%	6.4%
기부만 참여	27.3%	25.3%
자원봉사, 기부 모두 불참	51.3%	52.4%

2.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이웃돕기에서도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한다. 그럼에도 이웃돕기 참여자가 자원봉사도 참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이웃돕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4.3%에 불과하지만, 비자원봉사자 중에서 이웃돕기만 참여하는 사람은 45.5%로 10배에 달한다.

<표9-2>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7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이웃돕기 참여자	17.1%	45.5%
이웃돕기 불참자	4.3%	33.1%

<참고> chi-square 차이검증 : 유의수준 $p < 0.000$

한편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하다.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모두 참여자는 1% 줄고, 모두 불참자도 1% 가량 줄었다.

<표9-3> 자원봉사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4, 2017

	2017	2014
자원봉사, 이웃돕기 모두 참여	17.1%	18.1%
자원봉사만 참여	4.3%	4.4%
이웃돕기만 참여	45.5%	43.8%
자원봉사, 이웃돕기 모두 불참	33.1%	33.7%

3. 기부와 이웃돕기

기부와 이웃돕기 사이의 관계도 밀접하게 나타난다. 기부자는 비기부자에 비해 이웃돕기 참여 가능성이 훨씬 높다.

기부자가 이웃돕기를 안 한 경우는 12.7%에 불과하지만 이웃돕기 참여자가 기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32%로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9-4> 기부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7

	기부자	비기부자
이웃돕기 참여자	30.2%	32.4%
이웃돕기 불참자	12.7%	24.7%

<참고> chi-square 차이검증 : 유의수준 $p < 0.000$

한국인 100명 가운데 기부와 이웃돕기 모두에 참여한 사람은 30명에 불과하고, 둘 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 25명에 비하면 5명 앞선 성적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45명 중 기부만 참여한 사람 13명, 이웃돕기만 참여한 사람 32명이 있다.

한편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기부와 이웃돕기 모두 참여자는 약간 늘고, 모두 불참자는 약간 줄었다.

<표9-5> 기부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 2014, 2017

	2017	2014
기부, 이웃돕기 모두 참여	30.2%	29.3%
기부만 참여	12.7%	11.4%
이웃돕기만 참여	32.4%	32.5%
기부, 이웃돕기 모두 불참	24.7%	26.7%

4.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자원봉사 × 기부 × 이웃돕기를 3차원 교차분석해보면, 셋 다 참여한 사람은 12.9%, 셋 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3.2%로 더 많다.

<표9-6>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참여율 비교 : 2014, 2017

	2017	2014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모두 참여	12.9%	13.2%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셋 중 둘만 참여	24.5%	23.3%
자원봉사만 참여	1.5%	2.1%
기부만 참여	9.9%	9.1%
이웃돕기만 참여	28.1%	27.7%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모두 불참	23.2%	24.6%

자원봉사와 기부와 이웃돕기, 셋 중 이웃돕기만 참여한 사람이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100명 중 다음과 같은 참여를 보여 2014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

- 1) 셋 중 하나만 참여한 사람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 2) 이웃돕기만 참여한 사람은 28명으로 다음 순서,
- 3) 셋 중 둘만 참여한 사람이 24명,
- 4) 셋 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23명,
- 5) 셋 다 참여한 사람이 13명,
- 6) 기부만 참여한 사람이 10명, 그리고
- 7) 자원봉사만 참여한 사람 1명 순서이다.

5.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모두 적극적인 참여자, 모두 불참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이다.

- 지역에서는 대도시가 모두 참여자도 많지만 모두 불참자도 많고, 읍면 지역은 참여자도 적고 불참자도 적으면서 셋 중 둘 또는 하나 이상 참여자는 적지 않다.

-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기혼자가 훨씬 더 많이 참여하면서도 불참 비중도 가장 높아 일종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 연령에서는 40대가 모두 참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불참자 비중에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다.

- 학력에서는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이 모두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모두 불참자 비중에서는 고졸 학력층이 가장 높다.

- 소득층에서는 고소득층이 가장 높은 참여자 비중을 차지하지만 불참자 비중에서는 저소득층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준다.

- 직업에서는 직업 대표성이 샘플수의 한계로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모두 참여자 비중에서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모두 불참자 비중에서는 사무직이 가장 높고 전문/자유직과 관리직이 가장 낮다.

<표9-7>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참여자와 불참자 비교 : 2017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모두 참여자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모두 불참자
전체	12.9%	23.2%
대도시	50.8	38.2
중소도시	40.9	53.2
읍/면	8.3	8.6
남자	37.3	54.6
여자	62.7	45.4
미혼	16.1	25.6
기혼	78.2	69.5
이혼/사별/별거	5.7	4.9
20대	13.0	17.5
30대	12.4	18.7
40대	26.9	15.2
50대	23.3	19.5
60세 이상	24.4	29.0
중졸이하	10.4	15.8
고졸	40.9	47.4
대재이상	48.7	35.6
199만원이하	5.7	15.8
200-299만원	13.5	17.0
300-399만원	19.7	27.0
400-499만원	26.9	22.4
500만원이상	33.7	17.2
전문/자유직	3.6	0.6
관리직	1.0	0.3
반전문/기술직	3.1	0.9
사무직	18.7	18.7
자영업	20.2	18.4
판매직	6.2	10.1
서비스직	10.4	14.1
생산직	2.6	6.3
농어민	2.1	1.1
전업주부	25.9	17.8
학생	4.7	5.2
미취업	1.6	6.6

X. 국제비교 : OECD에서의 한국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OECD는 2011년부터 Gallup International이 글로벌 145개국에서 조사한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세 가지 활동을 ‘친사회적 행태’(prosocial behavior)로 중시해, 사회통합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OECD는 회원국의 친사회적 행태 지수를 매년 ‘*Society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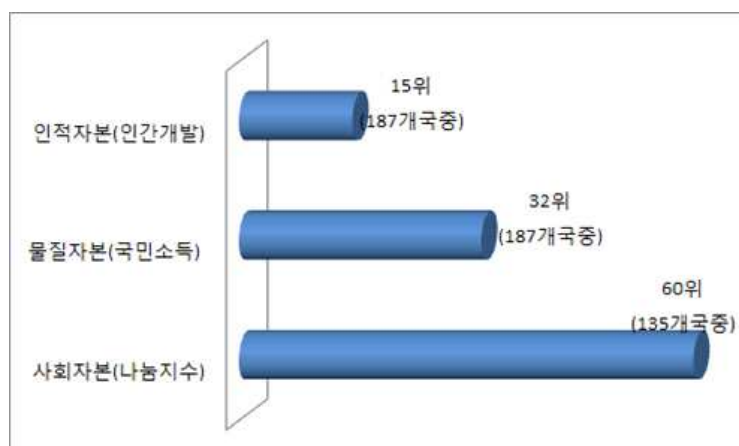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등 ‘나눔활동’과 국가 차원의 물질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과의 연관성을 OECD 34개국 비교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물질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나눔활동

1) 한국인 나눔활동과 사회자본의 국제적 위상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력으로 풍부한 인적자본을 누리는 사회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사람들의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회로 발전해 있지만, 사람들 사이의 친화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넉넉지 않은 사회에 머물러 있다.

<그림10-1> 한국인의 물질, 인적, 사회자본의 세계적 위상 : 2013



참고: 국민소득(일인당 GNI, 2011년 PPP);
 인간개발지수(GNI, 기대여명, 수학연령 복합지수; 1점 최고);
 나눔지수(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비율; 100% 최고)
 자료: UNDP, 2014; CAF 2014.

OECD 차원에서 국가별 나눔문화의 현황을 보면,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고 중위권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하위권으로 뒤를 잇고 있다.

<표 10-1> 물질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나눔지수 : OECD 31개국, 2013-2015

나눔순위	국가	국민소득*	인간개발**	나눔지수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1	미국	52,308	0.91	64	68	44	79
2	캐나다	41,887	0.90	60	71	44	65
2	아일랜드	33,414	0.90	60	74	41	64
4	뉴질랜드	32,569	0.91	59	62	44	69
5	호주	41,514	0.93	56	66	37	65
6	영국	35,002	0.86	55	74	29	61
8	아이슬란드	35,116	0.89	50	70	29	52
10	덴마크	42,880	0.90	47	62	23	55
12	핀란드	32,438	0.88	43	43	32	54
13	노르웨이*	63,909	0.94	42	43	38	45
16	스웨덴	43,201	0.90	39	55	12	51
7	네덜란드	42,397	0.91	53	70	34	54
9	오스트리아	35,719	0.88	48	57	29	57
11	스위스*	53,762	0.92	44	54	28	49
14	독일	43,049	0.91	42	42	25	58
17	벨기에	33,357	0.88	36	41	24	43
20	룩셈부르크	50,557	0.88	31	40	22	31
18	한국	30,345	0.89	33	33	22	43
22	일본	36,747	0.89	26	24	28	26
19	스페인	30,561	0.87	32	27	15	53
21	이탈리아	32,669	0.87	28	28	9	47
22	프랑스	36,629	0.88	26	26	22	30
26	포르투갈	24,130	0.82	24	24	15	46
30	그리스	24,658	0.85	21	9	10	43
15	슬로베니아	26,809	0.87	40	41	32	47
24	헝가리	21,239	0.82	29	24	12	51
25	슬로바키아	25,336	0.83	26	30	15	32
27	에스토니아	23,387	0.84	23	16	18	36
28	폴란드	21,487	0.83	22	21	9	35
28	체코공화국	24,535	0.86	22	21	14	32
31	터키	18,391	0.76	18	12	5	38

자료: 국민소득(1인당 GNI \$), 인간개발(UNDP 2014);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CAF 2014).

2) 물질자본, 인적자본,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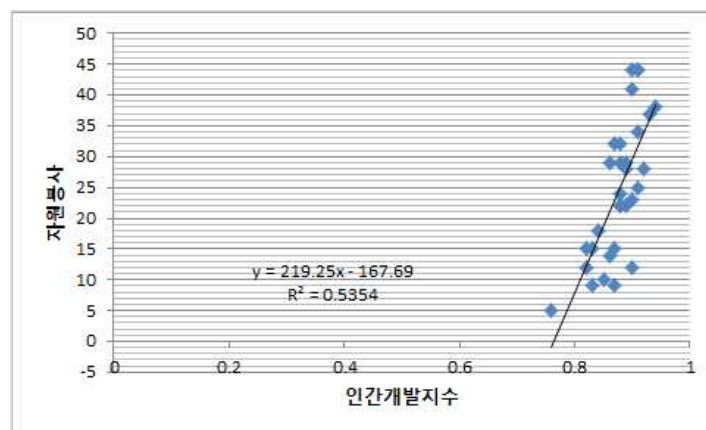
(1) 물질자본과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물질자본은 나눔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 나눔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등 나눔지수가 높은(낮은) 국가는 국민소득(1인당) 수준이 높은(낮은) 국가들이다. 세계적으로 최상위 나눔지수를 기록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국민소득수준(1인당)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나눔지수와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들이다.

또한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각각과 국민소득과 인간개발 수준과의 상관성도 확인되고 있다. 인간개발 수준은 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학을 복합한 인적 자본의 지표이다. 국민소득 수준이나 인간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기부, 자원봉사, 또는 이웃돕기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10-2> 자원봉사와 인간개발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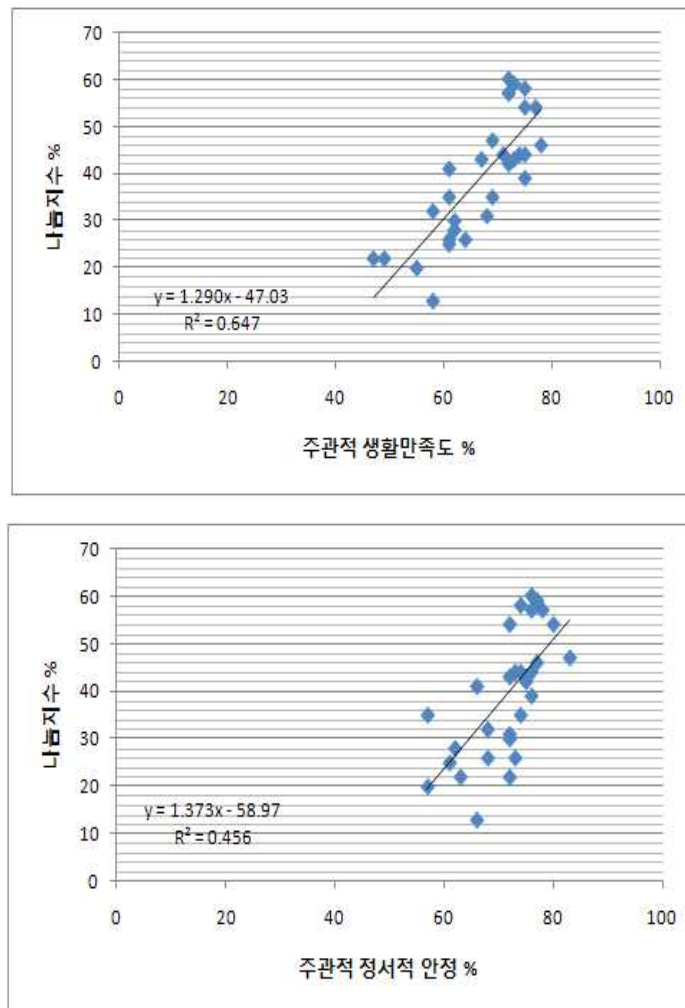
(2) 나눔지수와 인적자본

또 나눔지수는 건강 지표들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관적인 건

강평가로 조사된 양호한 건강상태 비율과의 상관관계,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모두에서 그리스는 둘 다 높은 수준이지만 나눔지수가 낮은 국가로,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둘 다 낮은 수준이지만 나눔지수가 높은 수준에 있는 예외적인 국가에 해당된다.

한편 정서적 안정을 보여주는 하루 동안의 좋은 감정(편히 쉬고, 존중받으며, 웃고, 흥미로운 일을 하며, 즐거운 기분)과 나눔지수와의 상관관계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예외적으로 나눔지수 수준은 중간수준이지만 정서적 안정에서 하위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림10-3>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과 나눔지수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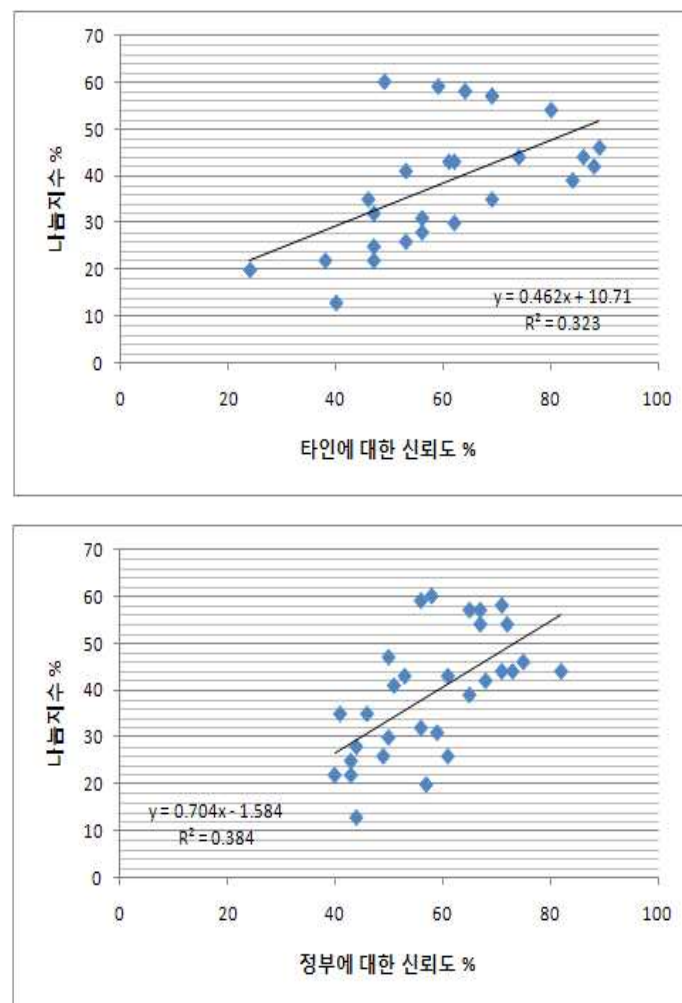
2. 사회자본과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 사회자본과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나눔활동은 관계의 활동으로,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우호적인 관계가 풍부한, 즉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 활발하다. 경험적 분석 결과, 신뢰와 유대 등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 나눔활동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신뢰(trust) 차원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낮은) 국가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낮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그림10-4> 나눔지수와 타인신뢰 관계 및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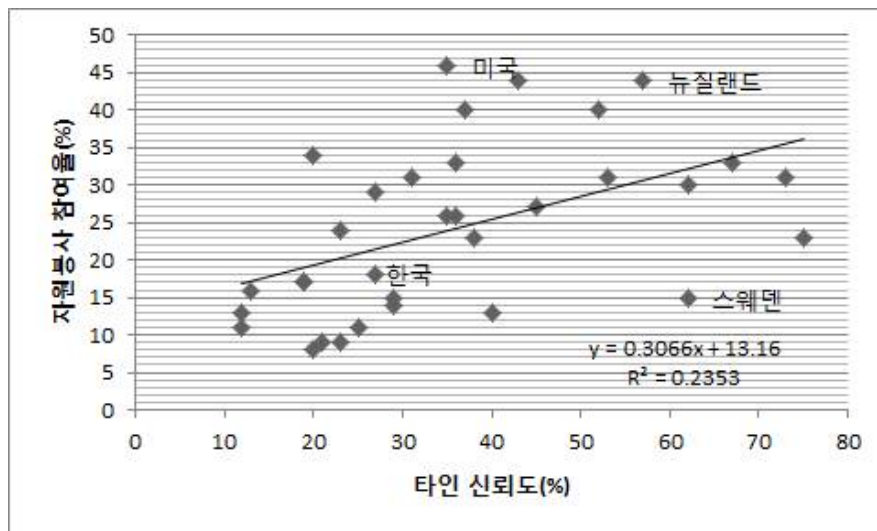
2)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신뢰와 유대 등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를 경험적 분석을 한 결과, 자원봉사와 사회자본 사이에는 밀접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낮은) 국가에서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낮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예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으면서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한 국가로는 스웨덴이, 반대로 자원봉사 참여도는 높지만 신뢰도가 낮은 국가로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그림10-5> 자원봉사와 타인신뢰 : OECD 34개국, 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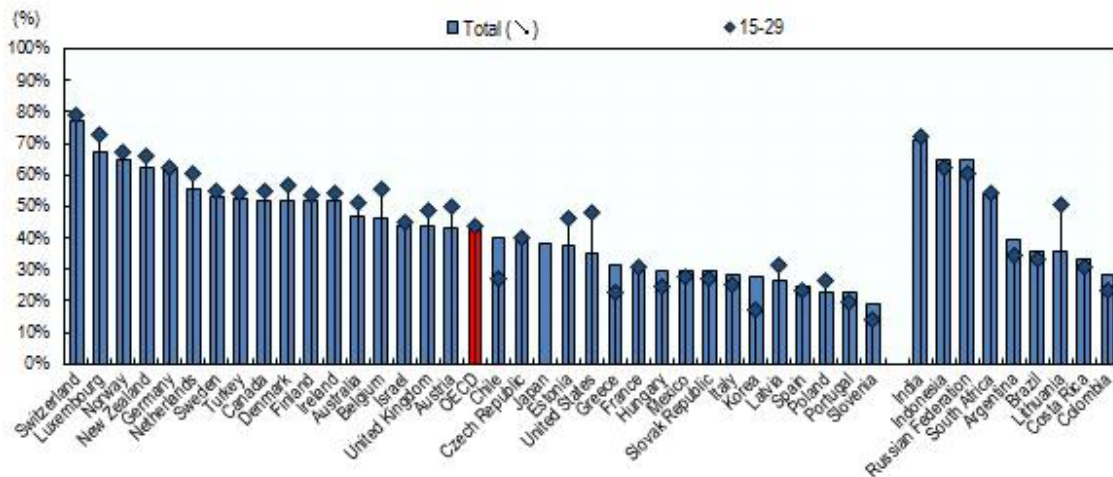


(2)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원봉사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갤럽의 2014-2015년 자료를 분석해볼 수 있다. <그림10-6>과 같이 OECD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최고 77%(스위스)부터 최저 19%(슬로베니아)까지 심각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체 34개국 평균이 42%인데, 한국은 28%로 하위권에 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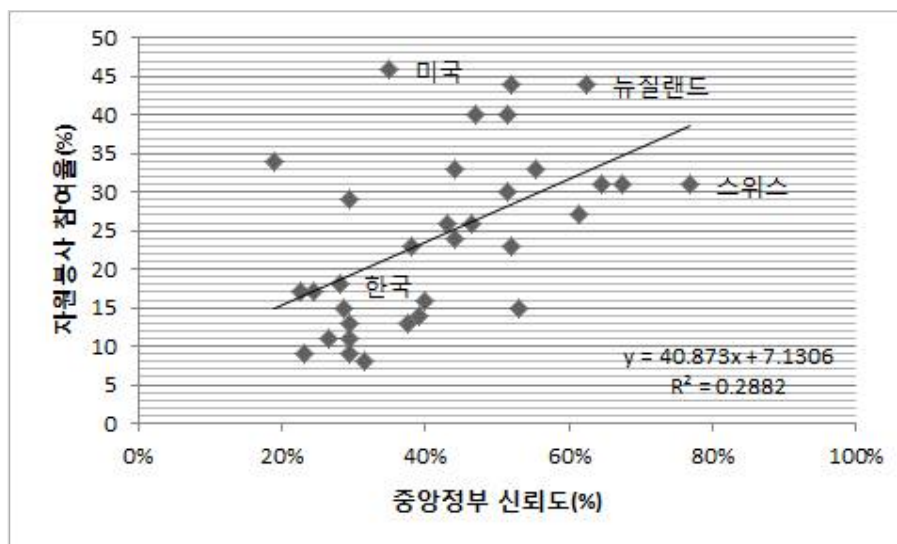
러 있다. 이번 2017년 조사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56%로 두 배 이상 높다. 그런데 2014-2015년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신뢰도는 17%로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최하위로 추락했다.

<그림10-6>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 OECD 34개국, 2014-2015



중앙정부 신뢰도와 자원봉사는 국가 차원에서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자원봉사 활동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림10-7> 중앙정부 신뢰도와 자원봉사 : OECD 34개국, 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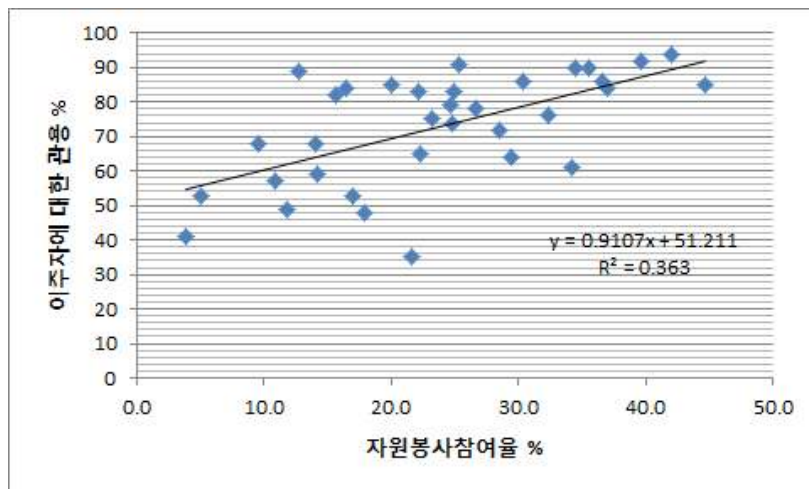


(3) 타국 이주자에 대한 관용

‘타국 이주자가 살기 좋은 곳’인지를 묻는 문항은 타국 이주자에 대한 관용 지수로 OECD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타국 이주자에 대한 높은 관용도는 자원봉사가 발달한 국가의 특징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타국 이주자에 대한 관용과 자원봉사 참여율 사이에는 높은 긍정적 상관성을 보여준다.

<그림10-8> 자원봉사와 이주자에 대한 관용 : OECD 34개국, 2012



3. OECD에서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 자원봉사와 경제 침체

글로벌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추이를 보여준다. 갤럽 인터내셔널의 국제조사 자료를 활용한 영국의 자선재단(Charity AID Foundation, 2016)의 분석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던 2009년 GDP 성장은 -0.6%였고, 그 때 자원봉사 참여율

은 17.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010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원봉사 참여율도 다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2008년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표10-2> 글로벌 자원봉사 참여율과 경제성장율 :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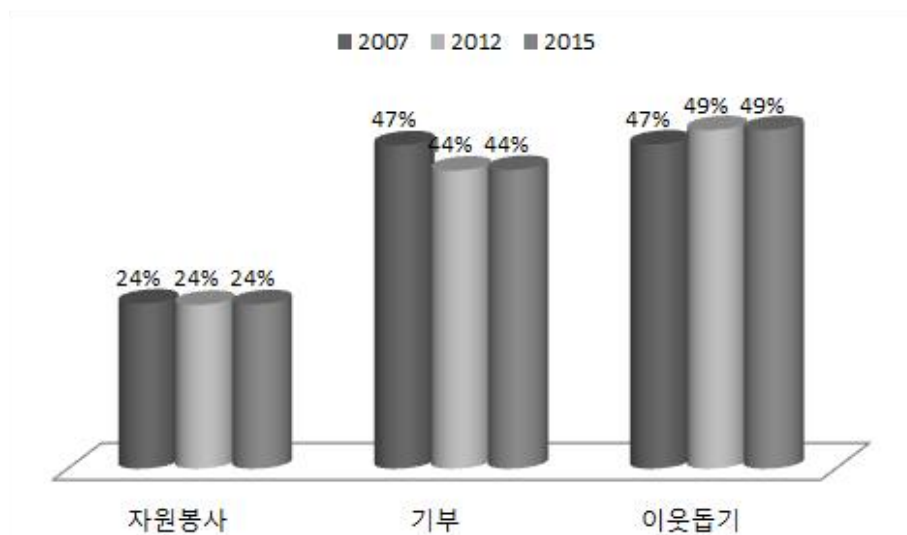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자원봉사 참여율	21.2%	17.9%	20.0%	18.3%	19.7%	21.6%
GDP 성장률	2.8%	-0.6%	5.2%	4.0%	3.2%	3.1%

자료 : CAF, *World Giving Index* (Gallup Int'l), 2013, 2016.

2)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 자원봉사는 2007년 24.1%에서 2015년 23.9%로 다소 감소하였고,
- 기부(자선기관 현금 기부) 또한 47.2%에서 43.5%로 감소했지만,
- 이웃돕기는 47.3%에서 49.4%로 다소 늘었다.

<그림10-9> OECD 34개국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 2007, 2012,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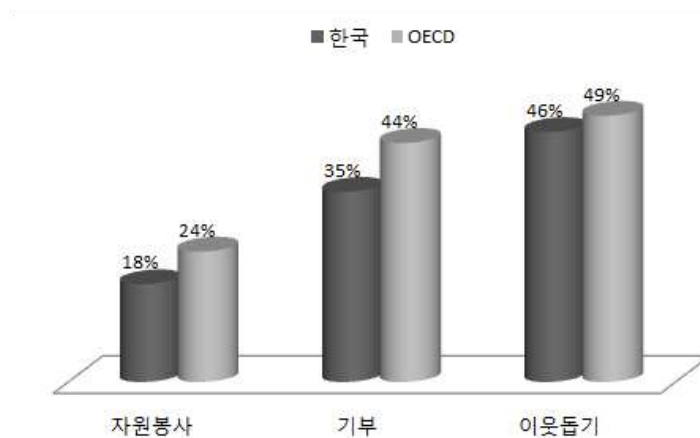
3) 한국과 OECD 34개국 비교

자원봉사는 OECD 34개국 평균이 24.1%, 최고 미국(46%)부터 터키(5%)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 한국은 18%로 중하위에 있다.

기부는 OECD 34개국 평균이 43.6%로 최고 호주(73%)부터 그리스(9%)에 이르며,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국은 21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웃돕기는 OECD 34개국 평균이 49.4%로 최고 미국(73%)부터 일본(25%)에 이른다. 한국은 46%로 23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림10-10>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2015



4. 자원봉사와 웰빙

자원봉사는 정신적 보람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만족과 웰빙의 보람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OECD 2015, 주성수 2016).

1) 자원봉사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젊은 나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증진시키고 위험한 행태를 억제시키며, 또 자원봉사는 청년층이 당면하는 문제들, 십대 임신, 퇴학, 약물 중독,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OECD 2015).

<표10-3>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 OECD 34개국, 2015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미국	46%	63%	73%
캐나다	38	65	65
뉴질랜드	44	71	61
네덜란드	33	66	55
아일랜드	40	66	56
노르웨이	31	67	52
호주	40	73	68
슬로베니아	34	38	52
스위스	31	53	53
룩셈부르크	31	51	35
한국	18	35	46
오스트리아	26	50	52
핀란드	31	50	55
아이슬란드	26	70	52
영국	33	69	61
이탈리아	15	32	43
벨기에	28	46	54
프랑스	29	25	37
일본	23	23	25
독일	27	58	55
이스라엘	24	49	49
덴마크	23	62	54
에스토니아	13	20	35
멕시코	13	18	47
스페인	17	31	48
포르투갈	17	20	50
체코공화국	14	23	31
칠레	16	39	59
스웨덴	15	61	59
폴란드	9	26	42
슬로바키아	11	23	32
헝가리	9	16	34
터키	5	13	35
그리스	8	9	40
OECD 평균	24.1%	43.6%	49.4%

자료: CAF, 2014, 2016. World Giving Index (Gallup World Poll).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직장인, 활동적인 부모 등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역할 상실을 대신해주는 대안으로 자원봉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행운아들이다. 따라서 노후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생산한다. 역할 상실로 인한 고립과 좌절을 차단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유대를 늘려주며, 자아존중감을 찾고,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의식을 증진시킨다.

타인 돕기와 자원봉사 활동은 스트레스와 질병의 리스크를 줄이는 네트워크 개발에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노년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빈도가 높고 일자리와 결혼 등의 사회적 통합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더욱 강력한 위로와 안정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OECD 2015: 212).

최근 OECD가 조사한 자원봉사와 건강 상태의 인과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식적 자원봉사자, 비공식적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세 그룹을 비교해보면 단체를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자 중에서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또 다른 두 그룹에 비해 공식적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또 고령의 나이까지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은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식적 자원봉사자, 비공식적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세 그룹을 비교해보면 단체를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자 중에서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또 다른 두 그룹에 비해 공식적 자원봉사자 중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 불안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또 고령의 나이까지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표10-4> 자원봉사의 건강증진 : 비자원봉사자와 비교, OECD 18개국, 2015

	주관적 건강 (양호/ 매우 양호) %			정서적 불안(우울) (없거나 낮음) %			고령까지 장수 (낙관적 기대) %		
	비봉사자	봉사자	이웃돕기	비봉사자	봉사자	이웃돕기	비봉사자	봉사자	이웃돕기
오스트리아	64	80	75	79	83	81	62	79	71
벨기에	68	81	78	71	76	70	51	66	63
체코	54	72	59	70	75	71	35	46	44
덴마크	70	85	80	79	87	83	65	80	74
에스토니아	26	52	37	59	79	65	47	64	58
프랑스	57	78	73	63	70	62	48	62	60
독일	51	72	66	74	81	74	52	64	63
헝가리	33	47	38	57	71	58	27	49	34
이스라엘	64	77	69	80	83	77	51	79	66
이탈리아	55	72	65	63	68	60	58	73	72
룩셈부르크	61	72	71	71	78	71	59	71	67
네덜란드	61	81	71	79	86	79	60	72	72
폴란드	39	36	58	58	33	55	54	35	43
포르투갈	37	48	44	61	69	41	54	57	56
슬로베니아	58	77	71	73	81	77	55	67	63
스페인	54	71	62	66	73	66	57	75	64
스웨덴	72	80	80	79	85	80	53	67	70
스위스	80	90	86	81	85	84	64	70	70
OECD 18	56	71	66	70	76	70	54	65	62

자료 : OECD 2015, p.213.

2) 자원봉사와 생활만족도와 웰빙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으로 주관적 웰빙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한다(OECD 2015). 갤럽의 세계 설문조사(World Poll)의 국가별 비교자료를 통해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안정 경험 측면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에 대해서는 양자 사이의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호스피스 봉사자나 가출 청소년 봉사자들 가운데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10-5> 자원봉사자의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효과 : OECD 34개국

국가	생활 만족도 (0-10 척도)		정서적 웰빙 개선 (긍정적 답 %)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미국	7.3	6.9	77	75
아일랜드	7.1	6.7	81	77
호주	7.5	7.2	76	76
뉴질랜드	7.7	7.3	84	78
영국	6.8	6.5	79	79
캐나다	7.4	7.2	78	77
-----	-----	-----	-----	-----
아이슬란드	7.7	7.5	86	84
덴마크	7.7	7.5	86	80
핀란드	7.6	7.4	85	82
노르웨이	7.7	7.4	84	79
스웨덴	7.6	7.2	79	81
-----	-----	-----	-----	-----
네덜란드	7.4	7.2	84	85
룩셈부르크	6.9	6.8	84	81
스위스	7.7	7.4	86	83
독일	7.3	7.0	85	77
프랑스	6.8	6.4	81	77
오스트리아	7.5	7.0	83	79
벨기에	7.1	6.8	78	76
-----	-----	-----	-----	-----
한국	6.3	5.7	71	66
일본	6.1	5.7	87	77
-----	-----	-----	-----	-----
스페인	6.4	6.4	69	70
이탈리아	6.1	6.0	65	63
포르투갈	5.7	5.1	67	61
그리스	5.9	4.7	73	59
-----	-----	-----	-----	-----
슬로베니아	6.4	5.4	78	64
폴란드	5.6	5.1	76	74
체코공화국	6.6	6.5	78	70
슬로바키아	6.0	5.8	79	72
헝가리	5.3	5.1	86	67
터키	5.7	5.4	71	61

자료 : OECD 2015, p.217.

XI. 결론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1. 자원봉사의 가치와 임팩트

1)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는 사회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동향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역사와 전통 뿐 아니라 복잡 다양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 근거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보편적인 근거로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자원봉사는 보다 원대한 목표로서 시민들 사이의 신뢰, 유대, 네트워크에 기초하는 사회자본의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자본’ 시각도 강한 이론적 설득력을 보여준다. 또 자원봉사는 신뢰로 구축되는 시민의 자율적인 공론의 장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시민사회의 건설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 2011)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시간’ 기여 가치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기부(giving)에 의한 금전적 가치보다 적어도 50%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국제 자원봉사 연구진(Salamon et al. 2007)이 조사한 7개국의 국가통계 자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기여도(시간 기여)는 기부활동의 기여도(금전 기여)보다 훨씬 높아, 양자의 비율이 60% 대 40%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사)한국자원봉사문화(前 볼런티어21)는 1999년부터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왔는데, 이번 2017년 조사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이다. 자원봉사활동 인구가 약간 줄면서 활동시간이 크게 줄어 시간당 임금 계산 방정식에서 줄어든 활동시간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감소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활동시간을 풀타임 고용자의 임금으로 계산해 전체 자원봉사활동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미국에서 2016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자(18세 이상) 6,300만 명의 자원봉사 활동시

간 8억시간 × 시간당 \$24.14 = 1,930억 달러가 된다⁴⁾.

한국의 경우, 1999년부터 추산해온 경제적 가치는 2014년 이후 크게 줄었다. 2017년 자원봉사 인구는 856만 6,576명으로 추산된다.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4,003만 730명)에 자원봉사 참여율 21.4%를 적용시킨 수치이다. 금전적 가치는 8조 3,802억 원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011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경제적 가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시간이 2011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이다.

2) 기부와 이웃돕기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자원봉사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나눔 문화’의 기초라는 경험적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2017년 조사에서도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기부와 이웃돕기 문화의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자원봉사와 기부를 동시에 실천한 사람이 자원봉사만 참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기부자 중에는 기부만 하고 자원봉사는 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웃돕기에서도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한다. 그럼에도 이웃돕기 참여자가 자원봉사도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선진사회와의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부와 이웃돕기는 OECD 평균 이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OECD 34개국 평균(24.1%)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원봉사는 18.0%로, 최고 미국(46%)에 비해 28% 차이가 나지만, 34개국 중 21위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또 한국의 기부율은 35%로 OECD 34개국 평균(43.6%)에 비교해 9% 가량 차이가 나며 2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웃돕기 참여율(46%)은 OECD 34개국 평균(49.4%)에 비교해 약간 낮은 23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3)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4) Independent Sector. http://www.independentsector.org/volunteer_time?s=volunteer

2017년 한국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참여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뢰와 유대 등의 사회자본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민참여의 전형적인 형태로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을 통한 회원활동과 더불어 봉사활동이 이뤄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데 자원봉사가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2017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시민참여로 기부와 이웃돕기 활동 뿐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였던 대통령탄핵 집회와 시위에 적극 동참하였다. 집회 참여자 중 12.9%가 현금기부에 동참했고, 또 7.1%는 자원봉사자로 집회의 준비, 진행, 마무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번 2017년 조사에서도 자원봉사자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등 사회자본 ‘생산자’ 역할을 맡아 왔다. 그래서 ‘신뢰 사회’를 지향하는데 자원봉사는 필수적인 시민교육의 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간 한국 사회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 사회자본이 많이 부족한 ‘저신뢰 사회’에 해당되었지만, 이번 2017년에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등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저신뢰 사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56%)는 OECD 34개국 평균(4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2. 자원봉사 참여의 정체

한국 자원봉사문화의 현주소는 시민참여로서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현실에 초점이 맞춰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던 자원봉사활동은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성장을 멈추고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간 2%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다.

1) 자원봉사 참여 정체의 요인들

자원봉사의 참여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자원봉사는 단체를 통한 집단적 행동이지만, 참여의 시작은 개인의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자와 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와 네트워크는 개인의 동기(motivation)를 자원봉사 참여로 이행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나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 등의 다양한 자원 또는 역량(capabilities)과 단체나 지역사회 등이 제공하는 관계망(network)의 기회들이 적절히 잘 결합될 때 성공적인 참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Verba et al. 1995; 주성수 2013, 2016).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학력, 소득, 건강 등)에 따라서 어떤 개인은 참여하고 어떤 개인은 참여하지 않으며, 또 개인별로 소속된 단체나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여건이 마련되고 기회가 주어진다.

먼저 ‘동기’ 측면에서는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참여의 중요성이나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불참자는 관심이 없거나 참여의 중요성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한다. 자원봉사 홍보에 정부와 자원봉사 중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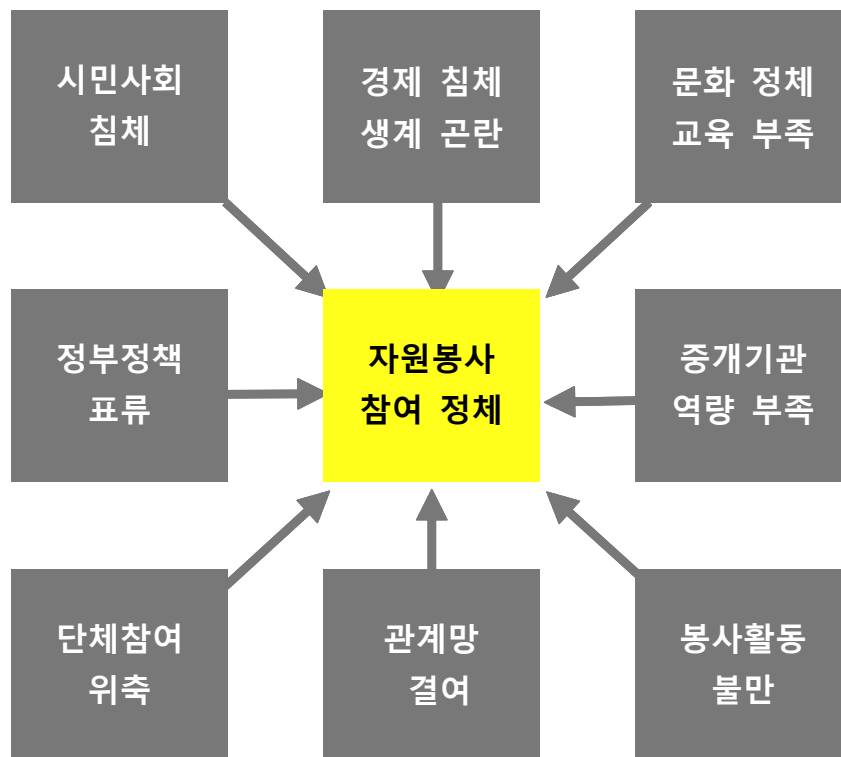
‘역량’ 측면에서 참여자는 참여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학력, 소득, 건강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비참여자는 이런 역량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계망’ 측면에서는 참여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망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군가 또는 어떤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 참여 요청을 받으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동기’ 측면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역량’ 측면에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망’ 측면에서는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요인들을 2017년 현재 한국 자원봉사의 참여 정체 요인들로 종합해보면 <그림11-1>과 같이 여덟 가지 주요 요인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의 정체는 그야말로 팔방에서 불리한 환경, 제도, 정책, 개인적 좌절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거시적 요인들부터 자원봉사자 개인특성별 요인들 순서로 살펴보면 모두가 정체, 부족, 침체, 곤란, 표류, 위축, 결여, 불만 등 부정적 현상 뿐이다.

<그림11-1> 한국 자원봉사 참여정체의 주요요인들



이상의 여덟 가지는 2014년에 비교해도 여전히 같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 가지 대부분이 2017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참여 정체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이며, 이에 따라 해소방안 또한 중기적 제도와 정책 접근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 문화 정체와 교육 부족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안정적 참여에 기초하는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것이 한국 자원봉사 참여 정체의 주요요인이라는 점을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서도 분석하였다. 게다가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필요한 기본교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2014년에 비교하면 자원봉사 교육은 다소 개선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다(2014년 자원봉사자 중

66%가 교육을 받지 않음).

특히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등 기본철학에 대한 오해와 인식수준의 저하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일부가 활동비 수준 이상의 수당 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고, 일부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수당지급 정책을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수당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순수 자원봉사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 경제 침체와 생계 곤란

경제 침체가 2008년 이후 지속되면서 생계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위축되고 있다. 일반 직장인의 참여도 늘지 않고, 대학생들의 참여 정세도 지난 2014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30대 참여율이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20대 취업 준비 대학생들의 참여도 역시 크게 줄었다.

경제 침체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침체와 생계곤란의 영향이 가장 심한 저소득층의 참여가 감소된 추이가 뚜렷하다. 저소득층의 참여 위축은 개인의 역량 부족 뿐 아니라 경제침체로 인한 생계곤란, 또 주위 사람들의 요청 등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볼 수 있다.

(3) 시민사회의 침체

자원봉사는 주로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원봉사의 성장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런데 최근까지 시민사회가 성장하기보다는 다소 침체되는 추세들이 목격된다. 한국인의 구호 및 지원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참여 활동은 1999-2017년 시계열 자료에서도 심각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공익단체들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최근까지 줄고 있는 것도 한국 자원봉사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아직은 시민의 단체 회원활동이 광범위하고 또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활성적 시민사

회'(active civil society)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주성수 2016).

(4) 중간지원기관 역량부족

시민사회에 속한 자원봉사 중간지원기관들의 진흥과 관리 역할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도 주요요인이 된다. 역량의 부족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과 재정 확보 역량부족이 심각하다. 시민의 회비에 기초하는 재정적 자립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기부도 매우 부족한 재정부실에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도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직영체제에 있고, 민영 센터들도 지자체의 재정과 인사 정책에 종속되어 있어 자율성마저 상실한 상태이다. 자원봉사기금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으로 중개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5) 정부정책의 표류

2017년 조사에서도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당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이처럼 '자원봉사'를 내세워 활동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생계 곤란 문제가 없는 퇴직자들도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서 수당 지급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옮겨가는 추세도 전국적인 유행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고, 자원봉사 전문가들과의 연석회를 통해 바로 잡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위원회 활동이 정체된 상태라 크게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자원봉사의 수당 지급, 학력이나 연령 차별을 하는 자원봉사 운영 등 심각한 자원봉사 현안들에 대한 심의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은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 시행되고,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도 제1차(2008-2012년)와 제2차(2013-2017년)에 걸쳐 민관 파트너십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계획대로의 시행은 크게 미흡

했다.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연구진과 연구에 동참한 전문가 집단은 한국 자원봉사의 가장 심각한 이슈로 정부주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민간 자원봉사기관의 자율성 상실 문제를 꼽았다.

또 박근혜 정부 기간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나눔기본법안은 기존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체제를 무시하며 자원봉사 뿐 아니라 기부와 장기기증 등 모든 나눔활동을 총괄하면서 그간의 정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이 실패했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다. 이 같은 부처 간의 주도권 논란도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표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가 된다.

(6) 단체참여 위축

자원봉사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공익단체 활동은 시민참여가 점차 위축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자원봉사가 더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21% 수준에 정체된 것도 한국인의 공익단체 참여활동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어느 단체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20%를 넘어섰다.

시민사회단체나 지역풀뿌리단체 등 공익단체 참여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종교단체 활동 뿐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의 구호 및 지원단체 활동, 학부모회 등 학교모임 활동도 크게 줄었다. 단체를 통하지 않으면 자원봉사활동은 지속가능성을 갖기 어렵다. 자선구호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 비회원으로 일시적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단체 소속이 없는 자원봉사자는 단체의 회원들만큼 상호적인 유대나 동료 시민의식이 부족하며, 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의 직원들과의 동료의식 공유나 소속감, 정체성 결여 문제도 있다.

(7) 관계망과 요청 부족

2017년 조사에서도 누군가 또는 어떤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일차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나 대학의 학과나 동아리 동료 등 다양하다. 그런데 가족(자녀, 부모 등)이나 친구의 요청도 크게 위축되며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는 사회관

계망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직장이나 학교 등 단체 봉사활동이 많은 곳에서도 이러한 요청이나 진흥의 역할이 미흡해서 참여율이 낮아졌다. 학교, 대학, 종교기관,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학력 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층 등은 관계망이 많지 않은 ‘관계망 소외층’으로, 자원봉사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자원봉사 참여의 향도 거의 없다고 답한다.

(8) 봉사활동 불만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2017년에는 크게 개선되며 최고 수준의 만족도 기록을 남겼다. 그럼에도 자원봉사자 관리와 인정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직장과 대학에서 시행되는 집단적 ‘사회봉사’의 문제점으로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자원봉사자가 여전히 40%에 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한국 자원봉사문화 정착 방안

자원봉사 참여율이라는 ‘양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quality)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자원봉사 참여율보다는 오히려 질적 수준을 중시해야 한다. 자원봉사의 질적 수준이 충분한 수준에서 안정화될 때, 한국 자원봉사문화의 정착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대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발전지수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질적 수준의 지수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해, ‘자원봉사 발전지수’(volunteering development index)로 제시해보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수, 활동시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고른 참여, 그리고 자원

봉사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자발성과 무급성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1999-2017년 기간의 비교 가능한 자료들로 자원봉사 발전의 지수를 구성해보면, 아래와 같이 1) 참여율, 2) 활동시간, 3) 만족도, 4) 자발성, 5) 균등참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해볼 수 있다. ‘무급성’도 발전지수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시계열 자료가 부족해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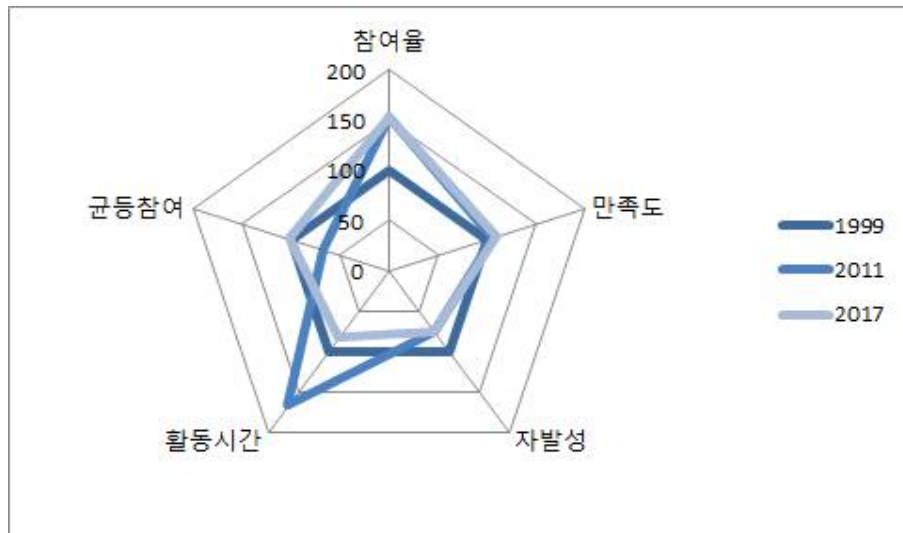
- ① 참여율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로 양적 성장의 핵심 지표이다.
- ② 활동시간은 자원봉사가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이라는 질적 수준의 핵심 지표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전체 활동시간을 활용한다.
- ③ 만족도는 자원봉사자의 주관적인 활동 만족도 지표로,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점수이다.
- ④ 자발성은 자유의지의 지표로, 자원봉사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자신이 원해서 활동’을 했는지 설문을 통해 조사한 비율을 보여준다.
- ⑤ 균등참여는 저학력 층의 참여율로, 계층 간 고른 참여의 균등화를 지향하는 지표로, 중졸 이하 학력의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활용한다.

지표별 점수를 측정해보면 <그림11-2>와 같다. 1999년을 100점 기준으로 2011년과 2017년을 비교한 것으로, 2017년 한국 자원봉사 발전지수는 참여율 154점, 만족도 109점, 자발성 76점, 균등참여 102점, 활동시간 83점이다.

1999년에 비교하면 참여율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활동시간은 크게 줄었다. 만족도는 안정 상태를 보여주지만, 자발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교육수준별 균등참여는 개선되며 저학력 층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참여율, 만족도, 자발성은 거의 같은 점수로, 2017년 자원봉사 발전도가 201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활동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저학력층 참여도를 보여주는 균등참여는 크게 개선된 성적표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저학력층 참여의 내용은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는 저학력 노인층의 참여 증대가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질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11-2> 한국 자원봉사 발전지수 : 1999-2017



2) 한국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 정책 대안

한국 자원봉사발전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 11-1>과 같이 20가지로 제시해볼 수 있다. 그런데 20가지 중 10개가 심각한 질적 저하를 보여주는데, 이는 2014년 15개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참여율, 만족도, 비참여자의 참여의향, 이웃돕기 동참, 사회위기 동참, 다섯 가지를 제외한 다른 10개 지표에서 우려할 만한 발전수준의 정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동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시간과 기간 증가, 정기적 봉사활동의 증가를 위해 대학과 직장 등의 ‘사회봉사’ 내실화 과제가 있고, 노인층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도 요청된다.

둘째, 자원봉사의 정체성과 만족도 개선방안으로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중간교육과 전문교육도 정체성과 만족도에 기여하는 과정이다.

셋째, 노인층 참여정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노인층의 인식을 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이고 활성적인 사회생활로 건강유지를 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전체에서 추진된 ‘액티브 에이징’ 프로그램을 참고해 볼 만하다(Volonteurope 2012).

넷째, 저소득, 저학력층의 소외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포용력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센터 등 중개기관들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 개방성에 세심한 기획, 추진이 요청된다.

다섯째, 근로자 등 직장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단기, 가족동반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미국 기업들에서 일반화된 사례가 참고될 수 있다(CECP 2013).

여섯째, 비자원봉사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참여요청 방안을 추진하는 시민사회 연대의 전국적 캠페인 등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자원봉사의 자발성 증진을 위해 직장내 사회봉사를 개선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운영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원봉사의 무급성 가치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 증대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기부로 자원봉사 내실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열째,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틀의 도입,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임팩트에 관한 다양한 문항들의 설계, 조사가 필요하다(CNCS 2016).

<표11-1> 한국 자원봉사 발전 정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대안

발전 수준 지표	주요 동향과 문제점	미래 전망과 정책 대안
1. 자원봉사 참여율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 성장 후 2005, 2008, 2011, 2014, 2017년에 21-22% 수준에 정체. 통계청 조사도 2005-2008-2011-2013-2015년 14.3%, 19.3%, 17.7%, 17.6%, 16.7%로 정체.	인구규모가 적은 노인층의 참여가 낮지만, 인구규모가 많은 30-40-50대 참여가 유지되는 수준에서는 심각한 쇠퇴보다는 현상유지 추세가 유력. 그럼에도 참여율 예측은 불투명.
2. 활동시간	1999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 1년간 자원봉사자 전체(명)의 연간 전체 활동시간이 1999년 4억9,892만 시간에서 2011년 8억3,455만 시간, 2014년 3억9,248만 시간, 2017년 4억2,432만 시간으로 소폭 증가.	학생, 직장인은 경제침체에 따라 활동시간과 기간이 증감되고 있어 사회봉사 활성화와 내실화 과제가 부각. 또 노인층 참여가 늘면 활동시간과 기간이 다소 증가해 정기봉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미

3. 활동기간	정기 봉사활동이 늘면서 활동기간은 다소 개선. 2017년 조사에서 평생 활동기간도 2-3년 미만(28.1%)과 2-3년(23.6%)이 절반 이상을 차지.	국, 영국 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기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음. 은퇴자와 노인 참여증진 방안으로 국가차원의 인프라가 국가은퇴자봉사단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4. 정기적 자원봉사	2011-2014년에 감소되다 2017년에 개선. 주1회와 월1회 정기 활동자가 각기 32%, 46%로 증가.	
5. 자원봉사 정신적 보람	2017년은 2014년에 비해 크게 개선, 1999년 이후 최고의 기록. 자원봉사가 정신적 보람만을 추구하는 활동임을 확인.	자원봉사 정신적 보람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본교육과 관리자 교육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정방안 등 관리도 중요함.
6. 자원봉사 만족도	자원봉사 만족도 또한 1999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97%)을 기록. '매우 만족' 자원봉사자 2014년에 비해 7% 늘어나 39%로 확대.	
7. 고령사회 노인참여	2017년 21%로 모든 연령층 평균 수준에 근접해, 역대 최고 기록. 통계청 조사에서는 2006년 6.5%에서 2013년과 2015년 7.8%로 증가. 그럼에도 이번 조사의 21%와 통계청의 2015년 7.8%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해석의 주위가 필요함.	자원봉사보다 수당지급 일자리에 치중된 부정적 효과로 보임. 활동비와 수당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는 응답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저학력층. '액티브 에이징' 정책으로 은퇴자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가은퇴자봉사단 추진도 바람직함.
8. 저학력 저소득층 참여	2017년 저학력층 참여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저소득층 참여는 크게 위축.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으면 자원봉사 참여가 위축되지만, 소득 수준에서는 경제 침체로 참여 위축이 된 것 같음. 중졸 이하 저학력층 참여가 증가한 것은 활동비나 수당을 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층의 참여 확대와 일부 관련된 것 같음. 통계청 자료에서도 저소득층 참여율은 22%(2006) → 18.7%(2013) → 14.2%(2015)로 크게 위축.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지역에서 진흥 프로그램이 없다면 감소세 지속.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제보다 생계 곤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저소득층의 퇴장이 심각한 이슈가 되므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은 실태파악과 지역별 대처 마련을 제시한 바 있음. 이번 3차 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안 마련이 중요함.
9. 근로자와 무직자 참여	200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일반근로자(생산직, 판매서비스직)와 무직자 참여는 지속적 위축.	소득수준이 낮은 직업군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계층 간 불균등 참여 문제가 제기됨.

10. 비참여자 참여의향	2008년에 비해 2011년과 2014년의 참여 의향은 다소 개선되다 2017년에 다소 약화.	비참여자의 참여의향은 높지만, 실제 참여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시행. 특히 직장인과 노인층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 개선 필요.
11. 자원봉사 자발성	2002년에 비해 2014년 조사에서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답한 자원봉사자가 세 배 이상 확대(11.5% → 40%). 2017년에는 32%로 다소 위축. 자발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지만 자원봉사교육 참여와 교육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발성은 자원봉사의 기본철학으로, 중고교와 대학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05, 2008, 2011년 계속 90% 이상 수준이다가 2014년에는 83%로 하락, 2017년에 90% 이상으로 회복.
12. 무급성과 정신적 보람	2014년과 2017년 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 인센티브 수혜는 매우 제한적. 주차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가맹점 할인혜택, 놀이공원, 공원이용료 할인 등도 위축.	마일리지, 쿠폰 등의 사회적 유행 풍조에 따르는 것은 자원봉사 기본철학과 문화 정착을 저해하므로, 정신적 보람과 가치관에 관한 기본교육으로 보완. 제2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제시.
13. 자원봉사 인정	2017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중 인정이나 인센티브 경험자는 매우 제한적.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 ‘카드, 연하장, 휴대폰문자 등 감사·안부 인사’ 등 다양한 비공식 인정을 선호함.	진정한 자원봉사 인정은 비공식적 인정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자와 국민 모두가 의견일치. 표창이나 행사보다 자원봉사자를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활동 결과에 대해 알려주기 등의 관리가 필요.
14. 마일리지 인센티브	2014년 조사에 이어 2017년 조사에서도 시간관리와 마일리지 시행범위는 매우 제한적.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은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고령자 저소득층에 제한적. 그럼에도 국민과 자원봉사자 절대다수가 강한 인센티브 욕구 표출.	활동비와 수당 지급은 많은 공공기관이 관행처럼 시행중으로,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무급성’과 정신적 보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15. 스펙과 도구주의	2011년부터 다소 증가 추세이지만 2017년은 의무감이 중시. 2014년과 2017년 자원봉사 참여 동기 중 ‘여가시간 활용’과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 청년층에서 타인이나 공동체보다 자신의 여가, 경험, 스펙을 위한 도구적 동기가 우선.	자원봉사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한 이타주의, 의무감 등 자원봉사 문화와 철학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 중고교와 대학에서 자원봉사 기초교육 시행과 강화 필요.

16. 공익단체 활동	1999년 이후 감소 추세. 지난 18년간, 자원봉사와 밀접히 관련된 종교단체, 구호 및 지원단체, 지역 풀뿌리조직,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시민사회의 정체가 자료로써 입증.	자선구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회원 모집에도 활용.
17. 기부 참여	2002년부터 안정적 수준 유지하다 2014년에 와서 급락. 2002-2014년 기간 자원봉사자의 기부참여는 70% 안팎으로 안정화되다 2014년에 와서 2011년 보다 20% 가량 급진적 하락, 2017년에도 지속.	경제침체 영향으로 2017년 자선적 기부 참여율은 26.7%, 2011년 48.9% 보다 20% 이상 하락. 자선적 기부금액도 3년 전과 비슷한 수준. 자원봉사자의 기부금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투자되도록 기금 마련방안 모색이 바람직함.
18. 이웃돕기 참여	2014년 조사에서는 이웃돕기 항목을 10가지로 상세하게 제시하며 하나 이상 참여한 사람을 조사해 61.9%로 집계. 2017년 조사에서는 이웃돕기 참여율 62.6%로 다소 증가. 이웃돕기는 자원봉사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 중요함.	국제사회가 정책적으로 이웃돕기를 비공식적 자원봉사로 인정하며 진흥하는 동향으로, 정부정책도 이에 주목할 필요 있음.
19. 사회위기 극복 동참	2017년 대통령탄핵 집회 시민참여자 중 18.5%가 현장 봉사활동과 현장 지원활동에 참여, 다시금 시민참여로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로 기록.	2008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재앙수습에 참여한 123만 명의 자원봉사활동에 버금가는 사회위기 극복 사례로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정책과 프로그램 도입 필요.
20. 사회적 임팩트	2008-2014년 기간에 비해 사회기관 신뢰도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2017년 자원봉사자들은 “나의 활동이 기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22%)고 답해, 기관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를 크게 체감하지 않았음.	사회적 임팩트 증진을 위한 개선안 마련 과제. 대상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 수요단체의 역량 개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 다각적인 사회적 임팩트 평가 지표와 분석틀 마련 필요.

3) 사회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인프라

결론적으로, 빈곤이나 고령 사회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마침 정부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2018년까지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은퇴자봉사단 조직이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은퇴자봉사단처럼 은퇴자들이 국가와 자원봉사단체들이 개발해 운영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실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과 대우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번 2017년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처음으로 모든 연령층 평균 수준에 올라선 것은 바람직한 성과이지만 내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공공기관 및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의 민간 위탁기관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비 등의 수당을 지급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활동비나 수당을 받는 활동도 자원봉사로 생각하는 심각한 자원봉사 정신과 원칙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정신적 보람만을 추구하는 자원봉사 정신과 개인적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그릇된 자원봉사 풍조나 분위기를 바로잡는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OECD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무수하게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의 지원 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은퇴자 자원봉사활동 가운데 가장 조직화된 활동을 하는 퇴직공무원 상록봉사단의 경우도 사무실 등의 활동기반 부재 등의 문제들로 정체 상태에 있다. 퇴직공무원 뿐 아니라 전국의 은퇴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국가은퇴자봉사단> 조직과 운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시니어봉사단(Senior Volunteers)>, 영국의 <은퇴자자원봉사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가은퇴자봉사단>을 창단해볼 만하다.

둘째, 국가 차원의 은퇴자봉사단의 조직과 운영의 책임을 맡아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할 만한 전국적인 자원봉사 전문 지원조직이 민간 인프라의 핵심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많은 정부부처들이 설치해두고 있는 진흥원이나 연구원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진흥원>의 조직화가 시급하

다. 사회혁신을 강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혁신 국정 철학에 적합한 “전국 차원의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에 해당된다. 자원봉사진흥원은 민간 차원에서 분절되어 있는 학교, 대학, 직장,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는 교육(일반교육과 전문교육), 조사와 연구,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기획과 수행, 민간단체들 사이의 공조적 ‘집단 임팩트’(collective impact) 자원봉사 프로젝트 시행, 자원봉사활동기금의 모금과 배분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민간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자원봉사진흥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며 민간의 기부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해주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민관의 협력체제로, 자원봉사 참여와 문화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를 시정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추진 현황을 보고받아 이행 진전도 점검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드러난다.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과 정책 추진 모니터링 등의 제도화를 위해 현행 민간협력과의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 또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법에 근거한 주무부서의 자원봉사 팀이 현행 수준으로 관리와 평가의 책임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과로 확대해서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민간 자원봉사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핵심이다.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주도의 모니터링과 평가도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원봉사는 민간 주도의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민간 자원봉사기관들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인적, 물적 자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2018년까지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의 하나로 자원봉사진흥원과 같은 전국적인 자원봉사진흥 조직이 설치, 운영되면 기본적인 자원봉사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원봉사진흥원은 정부의 재정과 행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기부, 민간의 자원과 자본 투자 등 다양한 민간 자본으로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를 대표하는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볼런티어21 (2008). 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연구.
- 볼런티어21 (2011). 201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연구.
- 주성수 (2013). 『자원봉사 문화와 제도』, 한양대 출판부.
- 주성수 (2016). 『나눔문화 :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 한양대 출판부.
- 주성수 외 (201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주성수 외 (2014). “전국 자원봉사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통계청 (1999, 2003, 2006, 2009, 2011, 2015). “사회조사” data file.
- 통계청 (2015). “국내 나눔 실태 2015.”
- 행정안전부 (2016). “2016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 CEV(European Volunteer Center) (2011). “The Future of Volunteering : Concepts, Trends, Visions.”
- Charity AID Foundation. (2013). “World Giving Index.” London.
- Charity AID Foundation. (2016). “World Giving Index.” London.
- CLG(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0). “2009-2010 Citizenship Survey.”
- GHK. (2010). *Volunteering in the European Union*.
- CNCS(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16. “CNCS Agency-wide Priority Measures.”
-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 JFA(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2011). “Giving Japan 2010.”
- OECD (2010). “Society at a Glance 2010.” Paris.
- OECD (2012). “Society at a Glance 2012.” Paris.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Paris.
- OECD (2015). “How Is Life? 2015.” Paris.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Paris.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amon, L. et al. (2007). "Measuring Civil Society and Volunteering." Working Paper No.23. Baltimor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Statistics Canada (2012). "Volunteering in Canada."
- UNV (2011). *The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 USBLS (2011).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11."
- Verba, S. Kay L.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and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olunteer Canada (2010). "Bridging the Gap."
- Volonteuropa (2012).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부 록

1. 조사개요
2. 부표

1.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제주도 제외)
표본크기	1,5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다단층화 후 성/연령별 할당 추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표본오차	±2.52%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2017년 7월 17일 ~ 8월 18일 (5주간)
조사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Gallup Korea)

2. 부표

<전체 응답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빈도	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 중 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 중 비율
남자	744명	49.6%	135명(42.1%)	18.1%	609명(51.7%)	81.9%
여자	756	50.4	186(57.9)	24.6	570(48.3)	75.4
20대	242	16.1	53(16.5)	21.9	189(16.0)	78.1
30대	268	17.9	43(13.4)	16.2	225(19.1)	83.8
40대	315	21.0	78(24.3)	24.8	237(20.1)	75.2
50대	304	20.3	68(21.2)	22.4	236(20.0)	77.6
60세이상	371	24.7	79(24.6)	21.2	292(24.8)	78.8
미혼	345	23.0	61(19.0)	17.7	284(24.1)	82.3
기혼	1094	73.0	248(77.3)	22.7	846(71.8)	77.3
이혼/사별/별거	60	4.0	12(3.7)	19.9	48(4.1)	80.1
중졸이하	191	12.8	38(11.8)	19.8	153(13.0)	80.2
고졸	657	43.8	131(40.8)	19.9	526(44.6)	80.1
대재이상	646	43.1	152(47.4)	23.6	494(41.9)	76.4
전문/자유직	13	0.9	7(2.2)	53.8	6(0.5)	46.2
관리직	6	0.4	2(0.6)	33.2	4(0.3)	66.8
반전문기술직	33	2.2	9(2.8)	27.2	24(2.0)	72.8
사무직	282	18.8	62(19.3)	22.0	220(18.7)	78.0
자영업	320	21.3	64(19.9)	20.0	256(21.7)	80.0
판매직	147	9.8	22(6.9)	14.9	125(10.6)	85.1
서비스직	192	12.8	35(10.9)	18.3	157(13.3)	81.7
생산직	74	4.9	10(3.1)	13.5	64(5.4)	86.5
농어민	23	1.5	10(3.1)	43.3	13(1.1)	56.7
전업주부	273	18.2	69(21.5)	25.2	205(17.4)	74.8
학생	80	5.3	24(7.5)	30.0	56(4.7)	70.0
미취업	57	3.8	7(2.2)	12.3	50(4.2)	87.7
199만원이하	177	11.8	22(6.9)	12.3	155(13.1)	87.7
200-299만원	245	16.3	50(15.6)	20.4	195(16.5)	79.6
300-399만원	388	25.9	68(21.2)	17.5	320(27.1)	82.5
400-499만원	351	23.4	84(26.2)	23.9	267(22.6)	76.1
500만원이상	335	22.3	95(29.6)	28.4	240(20.4)	71.6

대도시	682	45.5	148(46.1)	21.6	534(45.3)	78.4
중/소도시	702	46.8	144(44.9)	20.6	558(47.3)	79.4
읍/면	116	7.7	29(9.0)	25.0	87(7.4)	75.0
서울	298	19.9	71(22.1)	23.8	227(19.3)	76.2
부산	105	7.0	26(8.1)	24.8	79(6.7)	75.2
대구	74	4.9	8(2.5)	10.8	66(5.6)	89.2
인천	85	5.7	17(5.3)	19.6	68(5.8)	80.4
광주	42	2.8	7(2.2)	16.7	35(3.0)	83.3
대전	43	2.9	12(3.7)	27.9	31(2.6)	72.1
울산	35	2.3	7(2.2)	20.0	28(2.4)	80.0
경기	366	24.4	69(21.5)	18.9	297(25.2)	81.1
강원	46	3.1	11(3.4)	23.9	35(3.0)	76.1
충북	47	3.1	15(4.7)	31.9	32(2.7)	68.1
충남	69	4.6	20(6.2)	29.0	49(4.2)	71.0
전북	55	3.7	13(4.0)	23.6	42(3.6)	76.4
전남	56	3.7	15(4.7)	26.8	41(3.5)	73.2
경북	80	5.3	11(3.4)	13.7	69(5.9)	86.3
경남	99	6.6	19(5.9)	19.2	80(6.8)	80.8
불교	273	18.2	55(17.1)	20.2	218(18.5)	79.8
개신교	281	18.7	111(34.6)	39.5	170(14.4)	60.5
가톨릭	75	5.0	27(8.4)	36.1	48(4.1)	63.9
기타	6	0.4	4(1.2)	66.7	2(0.2)	33.3
무교	866	57.7	124(38.6)	14.3	742(62.9)	85.7
자원봉사경험	321	21.4	321(100.0)	100	0(0.0)	0
자원봉사비경험	1179	78.6	0(0.0)	0	1179(100.0)	100
기부경험	643	42.9	234(72.9)	36.4	409(34.7)	63.6
기부비경험	857	57.1	87(27.1)	10.2	770(65.3)	89.8
조직소속	1200	80.0	294(91.6)	24.5	906(76.8)	75.5
조직비소속	300	20.0	27(8.4)	9.0	273(23.2)	91.0
합계	1500		321		1179	